



제 4 편 民俗과 信仰

제 1 장 歲時風俗과 民間信仰

제 1 절 섬공동체의 特徵

1. 漁村性

牛島面은 환해의 섬이며, 地勢가 ‘소가 누운 形局’이라 하여 ‘소섬’이라 한다. 牛島面은 12개의 자연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중앙동을 제외한 11개 마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한 浦口 마을이다. 때문에 우도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서 어촌마을로 잠수·어로 작업을 생업으로 한다. 바다로 둘러진 섬이기 때문에 특히 그 信仰이나 歲時風俗이 바다와의 관련성이 깊다. 그 하나가 防邪塔이다. 우도면의 각 마을은 바다로부터 오는 邪를 막기 위하여 세웠다는가 동네 젊은이들이 자주 뜻밖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세웠다는데 방사탑이 없어진 것도 많지만 남아있는 것도 여러 군데 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로부터 비치는 邪를 막으려고 여러 기의 탑을 쌓아 놓은 것은 해촌 마을로서의 특이한 인상을 준다.

〈남아 있는 방사탑〉

영일동	2기
하고수동	2기
주흥동	2기
동천진동	1기

어떤 지관이 와서 이 동네를 살펴보니, 바다 쪽이 너무 험하고 동산지고 그러니 탑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탑을 쌓았다. 탑 위에는 뽕족한 돌 하나 놓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또 영일동 산 위에 음침하게 패인 곳이 있는데,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용호자리'라 했다. 왜 '용호자리'라고 불렀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용이 승천하면서 꼬리로 쳐서 땅이 패인 자리기 때문이다. 어느 지관이 동리 앞에 저렇게 보기 싫은 게 있으니 과부가 많이 난다 했다.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우리가 17~8세 때 동네가 보기 싫게 비친다고 해서 흙을 덮어 매운 자리다. (영일동 : 김항중)

탑위에 뽕족하게 새 닢은 것을 놓지 않은 건 여자다. 옛날 동네에 사람이 많이 죽자 탑을 만들어 놓은 거다.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르지만, 내 나이 70세가 넘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것이다. 근간에 허물어졌는데, 계속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니 동네에서 의논하여 제사라도 지내고 탑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쌓았다. (하고수동 : 윤수남)

방사탑은 요새 말로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란 의미다. 그걸 세워야 邪도 방지한다 해서 세웠는데, 요 근래 수축한다고 해서 내가 祝을 지어주었는데 그해 20년이 지났을 거다. (상고수동 : 김운일)

2. 潛嫂村性

또 예로부터 우도면 潛嫂가 많고 연중 무례질(물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며, 해초의 시세가 좋을 때는 가계 수입이 대부분이 바로 이 해전 작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 추운 날에도 바람의 반대쪽 1종 공동어장에는 수십여명의 잠수들이 불질을 한다. 세찬 바람처럼 강인한 생활의 풍습이다. 이와 같이 해전정작은 우도 전 지역 1종 공동어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였으나 자연부락 단위로 어장분할이 이루어지자 '바당'의 경계 때문에 '바당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의 바다 경계를 가르는 '바당킴'이 나눌 '分子'로 새겨져 있어 해녀들이 물에 들 때면 감시자가 있어 다른 마을의 잠수가 경계를 침범하여 어장을 잠식하는 것을 감시한다. (하우목동 : 정찬경)

3. 共同體性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도 사람들은 부차적으로 밭을 갈기도 하여

반농·반어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나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산물의 경기가 침체하고 발작물의 수입도 나빠져 이전보다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11개 마을에 관혼상제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을처럼 참여하여 부조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분들의 푸념을 들을 때는 아직도 후한 인심이 남아 있고, 섬공동체의 미풍이 여실히 남아 있는 곳이라 여겨진다. 부조하는 풍습을 보면 혼례나 상례 때, 남자는 상에 가서 봉투를 하나 놓으면 되지만 여자는 그 집안의 상주 각각에게 따로 扶助하기 때문에 상주가 열이면 열 군데 부조하는 셈이 된다. 또 우도면은 마을 안에서 혼인하는 마을內婚이나 이웃 부락과 사돈을 맺는 근처혼이 많아 결국 섬 전체가 서로 친인척 관계를 이루는 동일 통혼권에 속하며 신앙 또한 본향당을 가지 같라다 따로 모시는 동일 신앙권이다. 때문에 마을의 관혼상제에는 부락면전체가 부조하는 혈연·지연·신앙·생산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우도는 친척끼리 부조를 하니까 남이 해주는 두 배를 하는 셈이다. 잔치도 4~5일을 하게 되어 불편한 점이 많다. 우도면이 603호가 되어 나이 많은 분을 빼고 나면 500여 호가 상·혼례에 끌려 다니는 셈이다. 잔치에 남편 가는 데 여자가 따라가게 되면 그쪽 집의 여자는 친구가 되니, 친구와 그 집안의 어머니와 시집가는 신부에게 모두 부조를 해야 한다. 또 남편은 그 집안의 남자 주인에게 부조를 한다. 상례 때도 상주가 5명이면 5명 각자에게 다 부조를 해야 하니,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최근에 동네 어떤 분은 아들 아홉 형제 있는 소상 집에 문상을 갔는데, 아들들이 조카뻘 되기 때문에 며느리까지 해서 주근주근 2만원씩 부조하니 18만원, 상에 2만원 놓고 절하니 모두 부조로 20만원이 싹 나가더라 한다. 2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돼지 한 마리나 쌀 한가마를 하면 표적이나 날 텐데 말이다. 생각으로는 2~3만원 부조하여 상에 올리고 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천진동 : 김향자)

4. 女多男少

우도에는 밖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눌러 앉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고향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점점 남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한편 밖에 나가 성공한 지도급 인사들이 있어 우도면에 직·간접적으로 향토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도 많다.

아들이 모두 밖에 나가 살아버리고 남편이 죽게 되면 할머니들만 우도에 남게 된다. 서천진동에는 15戶 가운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일곱이나 된다. 이들 다섯 난 집도 혼자, 셋난 집도 모두 할머니 혼자다. 해녀는 한 25명이 되지만, 남자 어른은 일곱 뿐이다. (서천진동 : 김항자)

마을 조사에 도움을 준 분들은 아래와 같다.

영 일 동 김항중(남, 77세)

영 일 동 여성화(남, 59세)

영 일 동 김준택(남, 59세)

동천진동 신인홍(남, 70세)

하우목동 오영돈(남, 66세)

하우목동 김천능(남, 74세)

상고수동 김윤일(남, 79세)

하고수동 윤수남(남, 69세)

비 양 동 강기현(남, 65세)

서천진동 김연배(여, 73세)

서천진동 김항자(여, 55세).

제 2 절 歲 時 風 俗

1. 歲時風俗

〈正月〉

□ 설날

명절에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데, 우도면은 명절의 차례보다 제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성대히 한다. 때문에 명절은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 명절에는 좁쌀을 빻어 술을 담는데, 청주와 탁주를 만들어 먹었다. 또 좁쌀 가루를 찌서 누룩을 섞고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서 탁주를 만들어 두었다가 고소리로 진물을 뽑아 증류하면 독한 술이 되는데 이를 '고소리술'이라 했고

이를 물에 타 희석하면 소주가 되었다고 한다. (하우복동 : 오영돈)

□ 醺祭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에서 正月 初丁日에 유교식 마을제로 醺祭를 한다. 우도의 포제는 상·하단제로 치러진다. 상단제는 醺神, 하단제는 場神을 위한 제사다. 우도가 單一 里로 되어 있었을 때는 지금 충혼묘지가 있는 포젯동산에서 각 자연마을에서 1인을 제관으로 선출하여 포제를 크게 하다가 해방이 되자 자연마을 단위로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두 마을에서만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醺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 문전비들기

우도에서는 정월에 심방을 빌어다가 집안의 안녕을 축수하는 문전제를 <문전비들기>라 한다. (하우복동 : 오영돈)

<문전비들기>는 正月 15일 심방을 빌어서 한다. 문전신을 주신으로 삼아 신년 집안의 평안을 빌고 이어서 조왕·안칠성·밧칠성 등 가내 제신들에게 기원한다. 이 날은 집 뒤뜰에 있는 '칠성놀'을 갈아 덮기도 하는데 '칠성놀'은 주쟁이¹⁾를 덮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는 빈 단지에 조, 콩, 팥, 수수 등 잡곡과 소라껍질이 들어 있다. 단지에다 새 곡식을 갈아 넣고 주쟁이를 새 것으로 갈아 덮고 소라껍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밧칠성에 대한 의례를 '칠갈이'라고 한다.²⁾

□ 방쉬

정월 명절이 지나면 토정비결을 본다. 그 해 신수가 나쁘다고 하면 방쉬를 하여 액을 막는데 부도를 그려 붙여서 액을 막는 집도 있고 달이 뜰 때 버선 짝에 무엇을 담아 달맞이를 하거나 '허재비'를 만들어 삼도전 거리(세거리)에 나가 이 밤과 저 밤 사이 12~1시 사이에 그것을 세워 두고 온다.

또 토정비결을 보는 대신 '떡점'을 치는 경우도 있다. '떡점'은 식구마다 시루에 이름을 적어 찰을 놓고 시루떡을 찌는데 식구 중에 액운이 있으면, 그 찰의 떡이 잘 안 찌진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방쉬(防邪)를 하였다.

1) 남가리 위에 바가 새지 않도록 짚으로 엮어 덮은 것.

2) 탐라문화연구소 편, 『濟州島部落誌』(3),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p. 133.

□ 액막이

서천진동에서는 정월 보름날 당에 가서 과세문안을 한다. 이를 <신과세제>라고 하는데, 이 곳은 앓은제로 간단하게 지내는 마을의 본향당제이기도 하지만, 이때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당에 닭을 가지고 가서 ‘액막이’를 하며, 따로 뱃고사도 지낸다. 하우목동에서도 정월 14일에 신과세제를 지내며, 배를 부리는 사람은 ‘액막이’를 한다.

□ 당굿(新年過歲祭)

우도의 정월 당굿은 신과세제와 뱃고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어선을 가진 사람과 해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정월 보름굿은 정성을 다한다. 제물도 남달리하고 명쇠(命錢)도 특별히 놓는다. 漁船을 가진 사람들은 당에 닭을 가지고 가액을 막기도 하고(하우목동), 당에 다녀와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뱃고사를 하기도 한다(동·서천진동). 하우목동·전홀동의 목지당에서는 14일날 신과세제를 크게 한다. 대부분의 단골들이 제물을 차리고 가 신에게 과세문안을 드리며, 바다에 요왕지를 드린다. 정월 보름날의 풍어를 기원하는 돈짓제와 뱃고사는 중요한 신례의례의 하나다.

〈二月〉

□ 요왕제와 지드림

서천진동에서는 3년에 한번 크게 <잠수굿>을 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매해 개인적으로 심방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앓은제로 요왕에 지를 드린다. 동천진동에서는 매해 돈짓당에서 심방을 데려서 요왕제를 지내고 바다에 지를 드리고, 짚으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워보내는데, 이 요왕제를 <돈짓제> 또는 <영등제>라 한다.

□ 영등굿

동천진동, 서천진동 하우목동에서 영등굿을 하였다. 우도는 해변 자연부락 단위로 돈짓당이 있어 2월 보름에 ‘요왕에 지를 드리는’ 돈짓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하우목동 목지당에서는 영등굿을 크게 하였다. 특히 우도는 제주도에 입도한 영등신이 떠나가는 길목이므로 영등 2월 보름날은 모든 도항선의 항해를 급하고, 당굿을 하는 본향을 청하고 요왕맛이를 하여 씨를 붙이고 한해 바다농사의 풍흉

을 점치고, 바다에 지를 드린 후에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영등신을 보낸다. 영등신이 떠난 후에야 모든 선박의 출항이 가능하다.

〈三月〉

□ 청명·한식

연중 사대 명절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한식 명절이다. 한식 명절도 다른 명절에 준하여 하지만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도에서는 명절은 간소하게 하고 제사는 크게 생각하는 때문에 한식 명절은 해방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고, 청명 날에 선묘에 바를 세운다든가, 성묘하는 풍습은 지금도 남아 있으나 성묘는 대부분 8월에만 다닌다.

〈四月〉

□ 보리쌈장

보리밥을 해서 퇴워서 담는다. 보리장은 쌈장으로 먹는 여름 음식이다. 콩장을 담아 놔다가 보리를 물 방에에서 갈아 오는데 장 담을 보리는 거칠게 갈아도 된다. 그것을 술에서 찌서 튀우면 곱팡이가 잘 피어나는데 그것을 소금에 잘 버무리고 고추가루를 뿌려두었다가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보리장은 새콤하여 국을 끓여 먹지는 못한다. 국은 된장으로 끓이고 보리장은 쌈장으로 먹는다. (하우목동 : 김천수)

□ 초파일 머리깎기

초파일날 아기 머리를 깎아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 태안에서 자란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에 부스럼이 안 생기고, 술이 많아지며, 머리칼이 까맣게 자란다는 속신에서 나온 것이다.

〈五月〉

□ 단오

‘端午名節’은 설과 추석과 더불어 3대 명절 중의 하나다. 시기적으로 보리수확이 닳친 때라, 여느 때의 명절보다도 분주한 명절이다. 조상들을 모셔서 차례를 지내는 이외에, 이날은 술붕, 땃순, 검은콩, 보리꿀,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약으로 고아 먹는 습속이 있었고, 여자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여러 약초

를 캐어 말린다. 주로 집 주변에 흔한 쑥과 익모초, 인동 등 백 가지 약초를 캐어 ‘늑랍지 에리돏’ 엮어 처마나 외양간에 매달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약은 집 안에 임산부가 해산했을 때 요긴하게 쓸 뿐만 아니라 백중날 절보리로 엮기름을 놔 말렸다가 선달 첫 날일에 엮을 고아 먹으면, 만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단 오명절은 60년대 가정의례 간소화로 폐지되어 그후 사라져 버린 명절이다.

〈六月〉

□ 제석코스

포제 다음으로 큰 마을제가 6월 或丁或亥日에 택일하여 하는 ‘제석코스’다. 이날 ‘메밥’을 산메로 지면서 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메밥이 익고 선 것으로 어느 쪽은 흉년이 들겠냐 풍년이 들겠냐 하며, 기울어진 것으로 어느 쪽에 바람이 불겠냐 하며 짐을 친다. 재물은 메와 과일 헤어 등을 차리고 동네 책임자 두 세 사람이 가서 단헌단작하고 잡식하여 끝낸다. 제석제는 30년 전에 없어졌다(하우목동 : 오영돈).

□ 독잡아먹는 날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이 되면, 제주도민들은 한참 닭을 잡아먹기에 바빠지는 풍속이 성행한다. 이날 잡아먹는 닭은 이른 봄에 깐 병아리를 마당이나 우영에 풀어서 기른다. 유월 스무날 쯤 되면 중닭으로 자라는데, 한 집에 두어 마리를 잡는 게 보통이다. 닭에 마늘을 놔 쌀죽을 함께 끓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다. 환자가 있는 집에는 마늘 외에 다른 몸보신되는 약재를 첨가하기도 한다. 특히 닭 중에도 烏骨鷄(=발과 온몸의 살색이 검은 닭)는 약효가 더 있다 하여 허약한 사람일수록 약닭으로 사다 잡아먹는다. 주로 중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이 烏骨鷄를 잡아 콤대산이(마늘) 한 보시기에 칠낭(웃칠나무) 다소를 넣어 실로 꿰메고 고아 먹는다. 이때 그 칠이 몸에 오르지 않으면 보기(補氣)가 되어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닭을 잡아 먹일 경우는 닭 속에 어영뒤낭(앵두나무)을 나소 잘라 놓고, 황토 물과 쌀 한 보시기를 넣어 실로 꿰메고 고아서 먹이면 회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인병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은 황계(새빨간 수닭)를 잡아서 그 속에 콤대산이

한 줌, 쌀 한 줌, 백토란과 지네를 놓아 다려 먹으면 보기(補氣)가 된다고 한다. 아무튼 유월 스무날에 닭잡아 먹으면 만병통치라 하거니와 여자는 반드시 수탉을 먹어야 하고 남자는 암탉을 먹어야 더욱 그 효과를 본다고 한다.³⁾

〔七月〕

□ 백중제

7월 14일은 백중제를 지낸다. 이 명절은 <췌명질>이라 하는 牛馬를 위한, 우마를 키우는 집안의 명절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해서 <소시계>라고도 한다. 현재 하우목동·오봉리, 특히 동천진동에서는 이 백중제를 아주 크게 하였다. 소를 기르는 집안에서는 계원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돼지나 닭을 잡고 모두 모여 잔치를 하며 논다. 또 각 집안에서는 술과 떼를 마련 대차룻에다 놓고 소를 방목하고 있는 등대 부근에 있는 ‘섬머리’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동천진동 ‘섬머리’는 牧場地였고, 동천진동에서 牧場祭 또는 場祭를 따로 지내기도 하였다. 목장지가 육짓사람에게 넘어간 뒤 따로 場祭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八月〕

□ 추석

팔월 명절은 지금도 크게 하는 정월 명절과 함께 2대 명절의 하나다. 8월에는 ‘모도리 상어’를 잡는 시기이므로 상어잡이를 하여 제수(상어적)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 후, 당에 가서 액을 막고,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가원하며, 닭을 잡아 액을 막는다.

□ 모듬벌초

8월 들면 초하루에서부터 추석 전날까지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특히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웃대조상의 묘소에 친족집단이 공동으로 벌초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모듬벌초>를 통하여 웃대조상의 묘역을 벌초한 연후에, 초하루를 전후하여 벌초하기 시작하며 적어도 추석 전에 끝내는 것이 제주도 벌초하는 풍습이다. 벌초는 대개 부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자손들이

3) 진성기, 앞의 책, pp. 217~220.

많이 모여 하루에 끝내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2, 3일씩 걸리는 수도 있어서 보통 지역별로 분담하여 벌초를 하며, 모듬벌초 때 남자들이 없는 집에서는 여자들이 대신 나오는 수도 있다. 한 가구당 1명씩, 의무는 아니지만 안 나오면 따돌림을 받으니 대개 한 명씩은 나온다. 그래서 문중에 따라서 상황은 각각인데 술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모여들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 당굿

팔월 열나흘 굿이라 해서 목지당의 당굿으로는 정월 신과세제와 마찬가지로 크게 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뒷날이 팔월 보름이기 때문에 특히 정성을 다하여 당에 가고, 당에 가서는 닭을 가지고 가서 심방에게 산을 받고 액을 막는다. 팔월 보름 돈짓당의 제일에는 어부·해녀들이 당에 가 제를 지내고 뱃고사를 한다.

〈十二月〉

□ 장담기

동짓달에 메주를 쑤어 설날 그믐날은 귀신이 없는 날이라 하여 대부분 이날 장을 담는다. 옛날 풍속에 정월에는 메주를 안 담고 2월이 넘으면 장맛이 없다 하여 그래서 주로 설날 그믐에 장을 담는다고 한다(하우목동 : 오영돈).

□ 갑장회와 추렴

음력 스무 이튿날부터 스무 여드렛날까지 나이가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동갑끼리 7~10명 정도로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갑장회를 구성하고 있다. 갑장회에서는 연말 결산총회와 함께 명절 祭需를 마련하기 위하여 뚝추렴을 한다. 뚝추렴은 폐지를 잡아 인원수대로 공동분배하는 것이다.

2. 生業歲時

우도 해안에서 채취하는 해초는 실갱이 듬북, 넙메역, 감태, 툷, 전초 등이다. 처음에는 실갱이 듬북을 보리밭에 비료로 사용하면서 듬북이 중요한 해초로 등장하였다. 그 후 하우목동에서부터 종달리까지 이어지는 넙메역(광포)이 저 멀리 중국에서까지 팔리게 되어 넙메역을 채취하게 되면서 하우목동이 부촌이 되었고 우

도면은 넝매역 채취가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육지에 양식 미역이 나면서 넝매역의 시세가 떨어지자 넝매역이 많이 나는 하우목동이나 천진동은 수입이 줄고 천초가 많이 나는 비양동이 부촌이 되었다 한다. “잘리목이 부자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해산물의 시세 변동에 따라 우도 해안 마을의 경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은 감태, 툇, 천초가 수입원이 되는 주요 해산물이다.

〈표 1〉 해초의 채취기간

기간 해초명 월	채 취 기 간 (陰 · 月)												채 취 도 구 채 취 방 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갱이듬복		—											줄나시, 조구성 갈퀴, 조구성 풍태구미 물질, 번안지구미 물질, 툇구미
넝 매 역					—								
감 태							—	—					
천 초			—	—	—	—							
툇		—	—	—									

□ 실갱이듬복

실갱이듬복은 음력 2월 25일부터 3월 한달 채취한다. 실갱이듬복은 과거에 밭에 비료 대신 쓰였던 중요한 해초로 주흥동과 비양동에서 많이 난다. 실갱이듬복은 주로 ‘줄나시’라는 도구로 채취를 하는데, 이 도구를 대장간에서 버려 준비해 두었다가 이 줄나시 양쪽에 줄을 매어 한 사람이 터우로 노를 저어 주면듬복이 줄나시 날에 걸려 무거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뒤에 따라간 터우가 이를 건져서 실어 온다. 실갱이듬복 채취기가 되면 몇 사람씩 조를 짜게 되는데, 줄나시를 이용하여 실갱이듬복을 베는 사람 2인, 노젓는 사람 1인 해서 3인 그 뒤에 실어나르는 터우배가 3척, 1척에 두 사람씩 하며는 9인이 한 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듬복을 베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리하여듬복을 퍼 올리면 집에 있는 사람은 그걸 호미로 잘라서 말린다. 이를 보리를 갈 때 비료로 사용하였다. 비양동에는 ‘이장실갱이밭’이란 게 있었다. 옛날 이장은 따로 보수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실갱이듬복 밭에서 사람을 빌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듬북을 배어갈 수 있는 채취권을 주었다. 이는 보수 대신 주는 것이다. 지금은 비료가 나니까 실갱이듬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비양동 : 강기연).

□ 툇

툇은 음력 2월 그믐 물찌(물때)부터 채취를 시작하여 4월 한달 동안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툇 시세가 하락하여 예전처럼 열성껏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툇은 우도면 수확량의 2/3가량이 비양동에서 나고 나머지는 삼양동과 서천진동 ‘넙대기여’ 부근에 많이 난다. 비양동에는 ‘툇구미’가 네 개의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구미’라는 말은 경계 또는 구역이란 말로 쓰이는데, 비양동 툇구미는 수늪바위 한 구미, 동등머흘 한 구미, 섯등머흘 한 구미, 윤등머흘 한 구미, 한와지가 한 구미 해서 모두 4개의 툇구미가 조직되어 윤번제로 4개반을 돌아가면서 한 구역의 툇을 채취하였다. 예전에는 개맛까지 툇아 자랐는데 감태가 올라 썩으면 툇은 자라지 않는다(비양동 : 강기연).

서천진동의 ‘넙대기여’는 3, 4반 구역으로 과거에는 1, 2반과 공동 채취를 했는데 82년도부터 구역을 갈라 3, 4반에서만 툇을 채취하게 되었다(서천진동 : 김항자).

□ 넙미역 채취

넙미역 채취기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보름 동안이 된다. 넙미역은 보통 남자들이 채취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 갈퀴라는 도구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배 하나면 보통 갈퀴를 세 개 놓는다. 그러니 배 없는 사람은 미리 배 있는 사람과 조를 짜고 집안 식구들도 작업에 동원이 된다. 5월이 그물어 가면 넙미역의 발육도 좋아져 번성기가 된다. 이전에 조를 다 갈아서 파종해 버리고 고구마도 다 심고 나면 바로 넙미역을 채취할 시기가 된다. 넙미역은 우도면 하우북동 바다에서부터 종달리 바다쪽으로 서식지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넙미역은 ‘넙미역작지’라는 광택이 나는 하얀색의 굵은 모래(珊瑚砂)자갈 위에 서식한다. 해초기가 되면 우선 하우북동이 중심이 되어 우도 전지역에 기별을 하여 아무 날부터 넙미역을 채취한다고 알린다. 우도에서 시작이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종달리 오조라 심지어 멀리 서귀포에서까지 소식을 듣고 와서 넙미역을 채취한다.

채취방법은 물때를 본다. 풍선이기 때문에 들물에 하늬바람이 불면 채취하기가 쉽지만 마과람이 불면 할 수가 없다. 물과 바람이 같이 불면 한 번 쓸어가면 넘미역 바다 바깥까지 끌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썰물에 마과람이면 물이 물쪽으로 오니까 채취할 수 있고, 밀물엔 하늬바람이면 더욱 좋다. 밤에 채취할 때는 불을 켜고 키를 잡고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남의 배를 들어받아 놓고 달아나는 일이 있다. 어둠 속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른다. 넘미역을 할 때는 물은 역수가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다. 넘미역은 불의 흐르는 쪽으로 눕고 반대로 거스르듯 끌어야 걸리기 때문이다. 넘미역 갈퀴의 길이는 석 자 또는 두 자 반이 되며 혼자 끌기에는 무척 힘이 드는 도구다(동천진동 : 신인홍).

□ 감태채취

요오드 성분이 많은 감태는 7월과 8월에 태풍이 불고 바다가 뒤집힌 다음 갯가에 떠오른다. 이를 풍태라고 하는데, 이를 건져 올려 말리어서 판다. 마을마다 조를 짜고 구역을 정하여 윤번제로 돌아가며 풍태를 줍는데 이 풍태가 오르는 구역을 풍태구마라 한다. 감태가 나는 바다에서 감태를 주워버리지 않으면 썩어 바다의 갯지렁이가 고갈되고 뜻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불고 풍태로 떠오르는 것은 반드시 거둬주어야 하는데 시세가 하락할 때는 이를 게을리하여 툇과 같은 다른 해초도 흉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태는 셋바람(풍풍)이 불면, 비양동 서천진동 등에 많이 오른다. 특히 서천진동의 '똥내미구석'에는 태풍이 한 번 바다를 뒤집고 나면 온갖 쓰레기가 잔뜩 몰려든다. 미역이나 천초도 오르고 풍태도 오른다.

셋바람이 불면 감태 많이 오른다. 셋바람이 온 2~3일 불다 그치면 감태가 올라와서 험해 되면 인력도 작고 건조장이 작기 때문에 못해 썩어버리고 썩히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고갈되는 지라 마썸. 감태 썩는 물이 독물이 되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부근에 보말, 갯지렁이 이런 거 다 죽여분단 말이우다. 붓도 안 나버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는 한 물찌에 다 못헤버리면 썩어. 동네에 감태 썩으려는 여름에 잠을 못잡니다. 냄새 풍겨가지고(비양동 : 강기연).

92년도엔 풍태 값으로 65만원 갈랐수다. 이 동넨 똥내미구석에서 95% 풍태가 올라오는디양. 경호문 어떤 땐 너무 귀찮앙 너무 지겨왕 “똥내미구석은 똥내미구석이로

다” 합니다. 정월달만 나쁜 너무 바닷에서만 사는 실정이 되니, 어떤 땐 너무 방송을 많이 하는 앵프가 고장나고 고동을 붙이게. 우리 1, 2반은 고동 소리에 노이로제 걸려잡적 합니다. 자당보른 아침 6시에 붙은 막 씹중나도 나가야 되고, 다섯시에도 가곡 정혹니께(서천진동: 김항자).

□ 천초

천초(우뭇가사리)는 ‘우미’라고 하는데, 미역의 시세가 하락한 뒤 전복·소라와 같은 해산물 이외에는 여전히 값이 나가는 해초류로 우도면 전 1종 공동어장에서 난다.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밀려오는 ‘우미번안지’도 있지만 무래질(물질)을 하여 캐어내는 우도면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천초는 많이 오를 때는 정월부터 올라오지만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채취한다.

□ 번안지 구미

비양동에는 풍태나 천초 번안지⁴⁾를 줍기 위해서 바다 전체를 4개 반이 육상의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윤번제로 돌아가며 수집하였다. 들복, 감태 같은 것이 태풍이 불면 오르는 구미가 있고, 전연 감태 한 포기 구경 못하는 구미가 있다. 또 감태가 안 오르는 대신 번안지가 올라오기도 한다. 구미는 ‘바당 굴’ 바다의 구역을 말한다. 4개 반이 돌아가면서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번안지를 줍는 것이 귀찮으니까 최근에는 천초밭을 마을에서 팔아버린다. 입찰을 해가지고 한 20~30명이 부자해서 권리를 사게 되는데 천초 번안지를 사서 천초가 많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안 오르면 손해를 본다. 이와 같이 우미(천초)만 주워먹는 번안지는 동네에서 팔아버리고 감태와 들복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반별로 주워 먹는다. 감태는 팔게 되는데 금년은 60kg에 4만 8천원으로 값이 좋았다. 바다를 파는 회의는 12월 30일 전 규약상으로 12월 25일 이전에 신규 개편을 하게 되어 있다(비양동: 강기연).

우리 어릴 때, “번안지 주시래 가게”⁵⁾ 형 간 보난 때역 오른 걸 번안지 번안지 헨게, 그것이 이젠 이롭이 되면 감태 오르면, 감태 올랐젠 합니다 마는 우미가 올라도

4) 번안지는 잠수가 바다 밑에 가서 캐어 오는 해산물이 아니라 바닷가에 밀려와서 줍는 미역이나 천초를 말한다.

번안지 올랐져, 메역이 올라도 번안지 올랐져 합니다. 감태 오를 땐 감태 올랐져 합니다 요셋 사람 덜은 풍태엔 합니다(서천진동: 김항자).

제 3 절 마 을 제

1. 儒敎式 마을제

우도면의 마을제로서 남성 중심의 유식 마을제는 〈醺祭〉, 〈蟲祭〉, 〈祈雨祭〉 등이 있었고 지금은 천진동과 영일동에서 〈醺祭〉만을 계속하고 있다.

1) 醺 祭

경민장이 마을의 里政을 맡던 이전부터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도면은 1리였으며, 전 마을 공동의 단일 醺祭로 지금 충혼묘지가 있는 '포젯동산'에 있는 포제단에서 祭를 지냈다. 마을의 경비나 포제의 경비는 우도 섬 중의 섬인 飛揚島가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곳의 지명을 '똥비양'이라 했는데, 이 '똥비양'에서 나는 해산물의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포제의 경비도 처음에는 각 마을 별로 분담 거출하였는데, 비양동 사람들이 해방 전에 '똥비양'을 주면 자기네가 '똥비양'에서 벌어 먹는 대신 포제 비용을 전담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당시 이장과 비양동 주민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비양동 사람들이 '똥비양'에서 나는 해초와 해산물을 채취하여 얻은 수입의 일부로 포제 비용을 전담하다가 해방이 되자 당시의 이장과 비양동 주민사이의 계약문서는 분실되고 우도면의 소유였던 '똥비양'은 비양동 소유로 넘어갔고, 포제는 호지부지하게 되었다.

그후 포제는 각 마을 단위로 분산하여 치르게 되었으나, 새마을운동 당시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에서만 지내고 있다.

① 神位

젯상은 두 개로 별인다. 그러나 대상 神位는 醺神之靈과 場神之靈, 그리고 境內無祀鬼神 3位이다. 醺神에는 제관이 여덟 사람이 들고, 場神에는 두 사람이 든다.

醺神之靈 …… 상단위 신위

場神之靈 …… 하단의 신위

境内無祀鬼神 …… 雜神

② 祭官

우도면 단일 포제로 할 때는, 각 마을 단위로 대표 한 사람씩 선출하여 포제 제관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마을에서만 뽑는데 8제관을 쓴다.

제관의 자격은 연령도 보고, 집안 사정도 보고 제 지내는 동안 무슨 비뻔 일이 없는가, 무슨 일이나 나지 않겠는가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선출한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제관으로 뽑히는 걸 꺼려 한다.

初獻官 …… 祭官

亞獻官 …… 祭官

終獻官 …… 祭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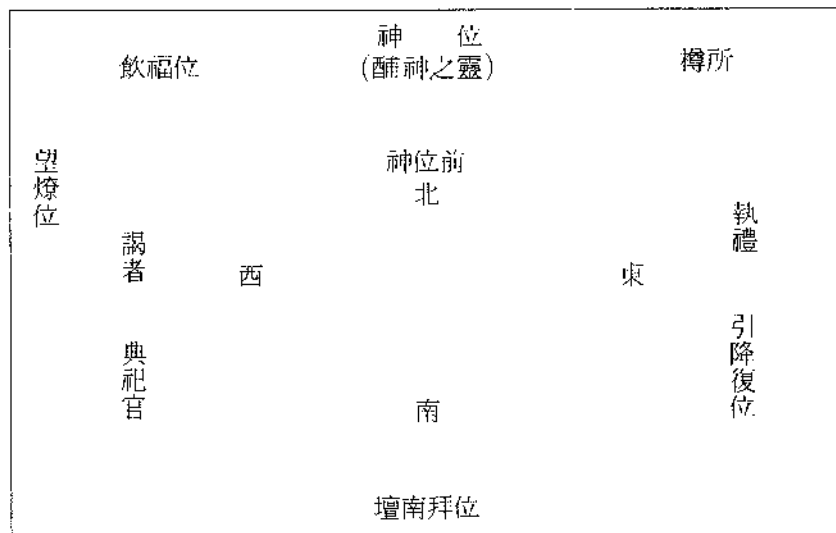
執禮 …… 祭를 지낼 때, 사회자 격으로 笏記를 부르는 사람

大祝 …… 祝文을 고하는 사람

謁者 …… 안내 역을 하며, 집례가 흥기를 읽는대로 복창하고 안내한다.

典祀官 …… 모든 祭物을 관리하는 사람.

□ 제관 및 제장의 배치도



③ 祭物

산 희생은 포신에 올리고 익힌 것은 장신에 쓴다.

祭物陳設은 상단과 하단이 약간 다르다. 上壇에는 白飯 1器, 犧牲(돼지) 1마리, 孰(돼지를 삶아 적한 것), 淸甘酒(날 것으로), 魚脯 1, 黃脯 1, 菁芹菜 1, 五果, 幣帛, 幣紙 등을 올리고, 下壇에는 白飯 3器, 雜穀飯 3器, 孰(돼지 한 마리를 삶아 적하던 나머지를 전부 올린다), 海魚(군 것) 1, 黃脯 1, 五果, 甘酒 등을 올린다. 上壇에는 매를 제외하면 거의 날 것을 올리며, 下壇에는 익힌 것을 올린다.

④ 祭日

정월 初丁日을 祭日로 하지만 마을에 불상사가 있을 때는 그 다음 或丁或亥日에 제를 지내게 되며 늦어도 2월로 넘기지는 않는다.

⑤ 祭次

8세관이 酬祭를 지낸 다음, 그 祭官이 장신제를 지내는데 제일 하급 세관이 장신제의 초헌관이 된다. 장신제는 단천단작하고 축을 읽고 끝난다.

먼저 상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酬神之靈位'라는 紙榜을 써 붙여 상단제를 지낸다. 세관이 각각 위치에 서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奠幣禮 → 初獻禮 → 讀祝 → 亞獻禮 → 終獻禮 → 飲福 → 撤籩豆 → 望燎 → 焚幣 → 焚祝의 순으로 진행된다.

上壇祭가 끝나면 下壇에는 紙榜을 붙이고 제물을 진설 하단제를 지낸다. 하단제는 典祀官 혼자 헌관이 되어 單酌으로 告祝하는 것이다. 하단제를 끝낼 때 단에 올렸던 각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은다. 이를 '잡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단 境外에 나가 주위에 뿌리면서 절명축을 낭송한다. <절명>이란 하위신, 잡신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⑥ 정성기간

3박 4일 정성을 한다. 제를 지내기 1주일 전부터 동네 입구 제단 제청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세관이 제청에 들어 입제가 되면, 정성은 4일을 하고, 4일 되는 저녁 子正을 기해서 제물 지내게 되는데, 그 뒷날이 해일이거나 정일이 되니, 그 날 첫 시에 하는 後日祭인 셈이다.

⑦ 포제향회

동장이 반장을 통하여 동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포제에 쓰이는 경비의 규모, 제관의 선출, 제비의 마련, 제청의 결정 등을 의논하게 되는데 이를 '포젯상회(酺祭鄉會)'라 한다. 祭廳은 제관들이 舍宿齋戒할 장소로 마을 안에서 크고 조용하녀 깨끗한 곳으로 정한다.

⑧ 홀기 및 축문

□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壇南拜位。祝以下皆四拜鞠躬拜。興 平身。引詣盥洗位。東向立。盥手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拜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事謹俱請行事。

獻官伊皆四拜 鞠躬拜。興 平身。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東向立盥手。引詣樽所西向立。執樽者洗酌舉幕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 三上香獻幣。獻酌 獻祝 俯伏 興小退 跪。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 俯伏。興平身 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東向立 盥手。引詣樽所 西向立。執樽者洗酌舉幕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獻酌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東向立 盥手 引詣樽所。西向立 執樽者洗酌舉幕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獻酌 俯伏 興平身。引降復位。獻官伊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跪 執事者以酌授獻官 獻官伊受酌飲卒酌。執事者以肴授獻官 獻官伊受肴 俯伏 興平身 引降復位。謁者進獻官之左祝進撤籩豆。執事者以取祝及幣帛置干坎。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 焚幣焚祝。毛血蓋燎。引降復位。謁者進獻官之左。獻官伊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白禮畢。謁者引獻官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復壇南拜位。祝以下皆四拜 鞠躬拜興 平身 禮畢出。

□ 祝文(迎日洞)

酺神祝(상단축)

酺神之靈伏以。於赫明神 鎮我疆域 大哉其位 盛矣其德。歲首設亨。匪今伊昔伏惟尊靈 特垂陰澤。俾我一洞。永受多福。嘔瀉元氣 克掃疾疫。五穀豐登。六畜蕃殖。行船無敗。舉網多得 冀蒙神休。敢薦菲薄 蟲蟹不害。水火不驚 民

産滋盛 閭閻安堵. 謹以牲幣. 醴齋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場神祝(하단축)

場神之靈伏以 墾耕由來 鎮我疆域 除害降福 莫匪神崇. 人無疾疫 穀無蟲害
畜不呵噤 魚必多得 水火不驚 農商得利. 伏願靈神 歆我殘誠 使此殘民 康樂太
平. 謹以清酌 庶羞奠獻 尚

饗

境内祝(하단축)

境内無祭鬼神 或流離乞死刀兵遭害 或水火死厄死鬼神 或落傷致死獄死杖
死結項致死 或父子冤鬼夫婦冤鬼 或落胎產死路中伏死 或牆壁頽壓蟲獸啣害 或
瘟病厄死軍亂橫死 或本國客神他國客神 或牛馬軍牧下殘軍卒携明絜儒來我祭祀
醉飲飽食作賀以退

⑨ 포제단

□ 동천진동 포제단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사이 탐이 있는 윗쪽 큰 동산 발 가운데 가두는 담을 높이 둘러 쌓은 곳에서 한다. 포제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를 지낼 때는 임시로 천막을 치고 제단을 마련한다. 제단을 만들려 했으나 외지인 소유자가 부지를 팔아주지 않아 아직도 제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영일동 포제단



2) 蟲祭(영일동)

서숙(좁쌀)을 갈고 파종한 뒤 여러 번 김을 매고나서 동네에서 이 충계를 지낸다. 이를 <말죽코스>라고도 한다. 제물을 차리고 축을 고하는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蟲祭祝

維歲次云云

場神之靈伏以 墾耕由來 鎖我疆域 除害致祥 莫匪神極 含哺鼓腹 伊誰之力
吁嗟近日 怪肆毒蟲 斯作孽蟲螫 斯貽欲盡 五穀飛集阡陌 伏願靈神

監斯恤斯 荐降陰德 克掃凶災 稻畦粟田 妖孽乃去 莖秀葉潤 重沾膏澤

使此殘民 康樂太平 謹以清酌 庶羞奠獻 尚

饗

3) 帝釋祭

조 과종이 끝난 뒤, 혹정혹해일 了時에 한다. 마을 戶口마다 보리쌀 1되씩 모아 제물을 차리고 동장과 반장이 맡아 치른다. 제일 전날 저녁 제관인 동장과 반장이 기주떡, 해어, 숙감주 등 제물과 백미 술을 지고 제장에 가 술을 걸어 매를 짓고 子時가 되면 돛자리를 깔고 메 1기 떠 올려 제물진설하고 배례없이 감주를 한 잔 부어 올리고 숟가락을 메에 꽂고 잠시 있다 잡식을 한다. 메밥을 지을 때는 산메를 찌는데 밥의 높낮이로 점을 치기도 한다. 메밥이 높은 방향에 풍년이 들고 낮은 쪽 방향엔 흉년이 든다고 하며, 밤에 구멍이 뚫뚫 나 있으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한다.

제석제는 맛볼릴 때 밭에다 밥을 캐우리며 하는 '제석할망고사'를 마을제로 지내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서 帝釋神은 농경신으로 <세경할망>을 일컫는 것이다. 제석제는 조농사의 풍등을 비는 농경의례의 하나다.

2. 堂信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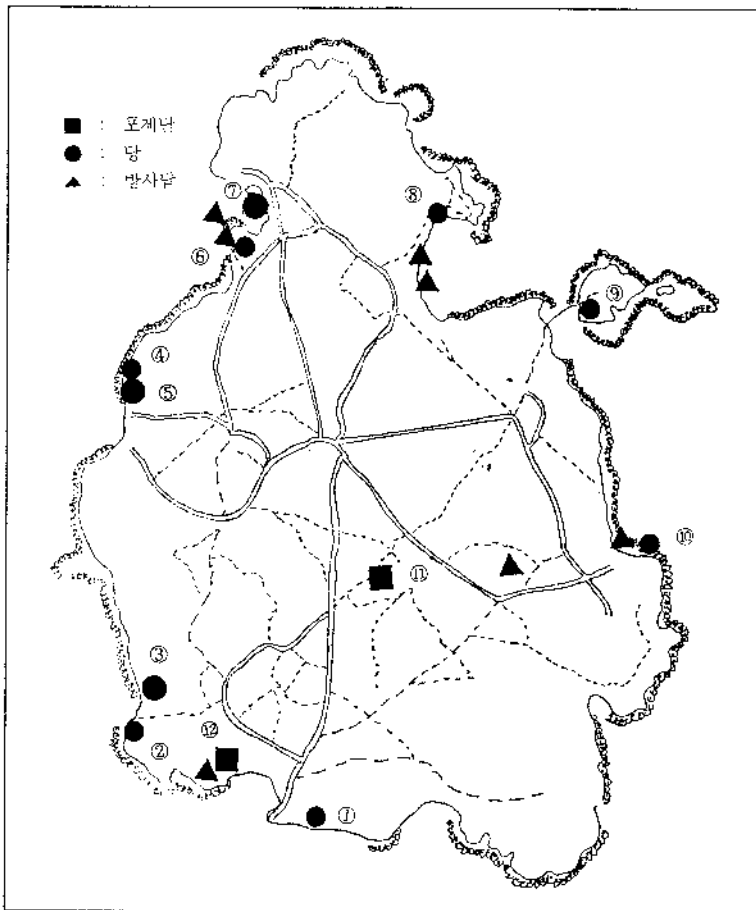
巫俗部落祭로서 당제는 <본향당제>와 <돈짓당제(海神祭)>가 있고 1년의 세시로 보면, 정월의 <신과세제> 2월의 <영등제> 7월의 <백중제>가 있다. 포제를 하는 영일동과 동·서천진동을 제외한 마을은 당제를 주로 하여 마을과 개인의 안녕을 축수하고 농사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특히 우도면은 본향당이나 돈짓당에서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바다의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와 2월의 영등제가 성행하고 있다.

1) 본향당과 당굿

① 전흘동 목지당

'큰당', '목지당' 또는 '박을당'이라고 한다. 오봉리 5개마을 주흥동·삼양동·상고수동·하고수동·전흘동 사람들이 다니는 본향당이다. 전흘동 포구 동남쪽 '뜯동산'에 있다. 제일은 정월 14일, 2월 보름, 7월 14일이며, 당에 갈 때는 배 있는 사람은 메 3그릇, 보통은 2그릇 가지고 가며, 당굿할 때는 보신탕을 가지고 가서 산을 받는다.

우도면 신당 위치도



② 하우목동 본당

하우목동의 본향당은 '본당' 또는 '목지당(牧者堂)'이라 한다. 本堂은 본향당을 말하는 것이며, 목지당은 당신이 '牧畜神' 또는 '牧者의 神'이기 때문에 붙인 기능을 포함한 당이름이다. '우북개' 선창이 있는데 몇 해 전에 돌로 쌓아 만든 궤를 중심으로 지붕을 덮어 추운 날에도 당굿을 할 수 있게 당집을 지었다. 가운데 '하르방·할망' 두 夫婦神의 위패를 모시고 왼쪽에는 부근에 있는 하우목동의 돈짓당을 같이 모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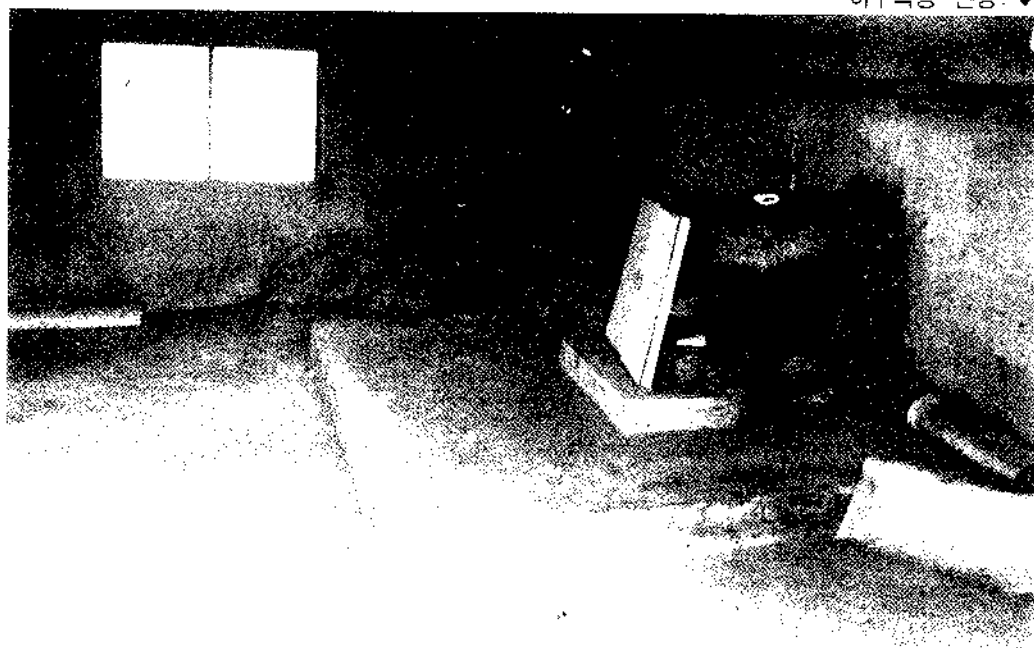
당에 갈 때는 집안에서 배 두 그릇하고 제물 그리고 붉은색, 흰색, 노란색의

삼색 물색과 종이 지전 열장을 가지고 가서 산을 받고 액을 막은 뒤, 물색은 절고 지전은 태우고 온다.



▲ 전흘동 목지당

하우목동 본당 ▼



할머님 당에 갈 때 배 몇 그릇 가지고 갑니까?

당에 올리는 거 한 그릇, 배 하는 시름은 배 두어 개 행 가만 되여, 배 한쪽 무레도 나가면 석 그릇도 하고, 요왕지 늘일 때는, 이녁 식구대로, 요왕지 들이꼭 당에 당지들이꼭 돈지에 돈짓지 들이꼭 이녁 몸지 들이꼭, 바당에서 돌아가시민 영갓지 들이꼭, 몸지, 당지, 뱃지... 당에는 정월 열나흘 날하곡 이월 열나흘 날, 칠월 열나흘 날 갑내다(하우목동 : 김천웅의 처).

□ 하우목동 본향당의 유래⁵⁾

堂設立의 由來

本郷堂은 只今으로부터 150余年前 金氏 할망이 設立하였다는 說이 있는데 堂의 形態는 돌로 쌓아 안쪽에 五色 천과 白紙를 걸쳐 놓고 江南國道通使者堂 하르방 할망의 神位를 모셔 年例行事로 세 차례의 堂祭日을 지내어 마을의 泰平和 사람들의 平安을 祈願하는 곳을 베풀어 왔는데 매년 첫달 正月 十四日에 지내는 堂祭日은 집안 食口의 康寧을 빌기 爲하여 아낙네들은 精誠껏 메밥과 祭酒·제숙·과일 등과 食녀들의 이름과 나이를 자치에 적어서 祭物 구덕에 넣어 堂에 가서 祭壇에 올려놓고 拜禮를 하면 심방은 본풀이로 들어가는데 堂하르방 할망님께 祈願을 하고난 다음 歷代 심방님께 安慰를 받고 나면 마을의 無事泰平을 祈願하고 다음으로 信者들의 一年運을 보고난 뒤 심방이 豫言하는데 堂祭日 날 심방의 豫言은 거의 맞는다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說이 있다.

「西紀 一九八八年 正月 十四 堂祭日 때 豫言中 이날 그름 쯤 漁船一隻이 매우 좋지 않으니 매우 銘心하라는 豫言이 있었는데 같은 달 正月 二十六日 漁船이 風波에 破損되고 船員 三名이 死亡한 事件이 發生하여 信者들은 더욱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심방이 運數를 보고나면 아낙네들은 白紙에 메밥을 싸고 바다의 요왕님께 빌면서 지를 바다에 던진다.

다음은 영등달로서 二月 一日 濟州道 北濟州郡 한경면 한수리로부터 入島해서 濟州를 돌아보고 二月 十五日 소섬으로 떠났다고 하여 하루 前日인 二月 十

5) 1989년 3월 마을에서 정리한 「본향당의 유래」라는 필사본이다. 우도면 노인회장을 역임한 오영돈씨가 직접 정리하고 보관하였다고 세공한 자료이다.

四일에 영등을 보내는 곳을 하는데 심방의 본풀이 곳이 끝나면 漁船에 심방과 아낙네들은 올라타서 징과 북을 요왕님께 잠수들이 물질하는데 無事함과 모든 海產物 豐作을 爲하여 씨앗을 뿌리며 온 바다를 돈 다음 아낙네들은 춤과 노래를 흥겨웁게 부르면서 포구로 돌아오면 곳이 끝이난다.

세번째 堂祭日인 七月十四일은 百中굿으로 家畜의 疾病豫防과 가을 農事가 豐作을 이루도록 祈願하는 곳인데 심방은 본풀이를 하면서 장남 코에 무명천으로 꿰어서 마을 안을 돌며 모든 厄運을 막는 곳을 하는데 近來에 와서는 하지 않고 堂에서만 굿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우제 굿을 하였으며 가을 穀食 밭에 벌레가 빈지면 예방하는 굿을 해 오기도 하였다.

一九六〇년부터 一九七九年까지 二十年間은 나라 方針으로 巫堂을 禁하여 큰 受難을 當하였지만 信者들은 官의 눈을 피하여 堂에 가서 精誠을 드리는 程度로 지내오다가 西紀 一九八〇年度 無形文化財 制度가 定해지면서부터 本鄉堂은 活氣를 찾고 堂祭日을 지내게 되었으며 西紀 一九八五年 二月十五日에 濟州無形文化財團 主管으로 영등굿을 지냈는데 이때 대학교수 및 학생들이 研究하기 爲하여 參觀하기도 하였다.

本鄉堂의 形態가 매우 허술하여 信者들이 뜻을 모아 堂을 補修할 것을 洞에 建議하여 西紀 一九八八年 十二月 二十五日 洞定期總會의 議決을 보아 西紀 一九八九年 陰正月二十九日 심방으로부터 着工祭를 올리고 建坪十坪의 스테트 건물을 四月二十日 竣工하였다.

歷代심방

- 第一代 金氏 심방
- 第二代 宋智弼 심방
- 第三代 朴氏 심방
- 第四代 洪昌元 심방
- 第五代 오순이 심방
- 第六代 今女 심방
- 第七代 高氏 심방
- 第八代 梁正順 심방
- 第九代 李氏 심방
- 第十代 梁正順 심방

補修推進委員會

委員長 高英舟 洞長

委員 梁桂英 運營委員長

委員 禹斗錫

委員 高京權

委員 金千吉

委員 康淳培

委員 金用堅

委員 吳永敦 眠諮問委員長

委員 梁連順 婦人會長

委員 梁玉子 總務

委員 尹春年

委員 高京春

委員 梁玉蘭

委員 李起蘭

委員 高正玉

一九八九年 四月 二十五日

③ 서천진동 당동산 종달잇당



서천진동 당동산 종달잇당

서천진동의 본향당은 구좌읍 종달리에서 가지갈라 온 당으로 ‘종달잇당’이라 한다. 종달리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당을 설비하여 소섬 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당에 다니다가 하동(전흘동) 하나 ‘알우묵개’ 하나 해서 세 군데로 나뉘어 갔다. 동·서천진동 20가호가 이 당에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굿수굿을 한다. 특히 도항선을 취급하는 선주들이 이 당에 다니는데, 제일은 정월 보름, 2월 보름, 7월 보름 1년에 세 번이다. 정월은 <신과세제>, 2월은 <영등제>, 7월은 <백중제>라 한다. 2월 15일은 제주도에 入島한 영등신이 바로 소섬으로 해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성산포와 우도를 운항하는 도항선이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소섬 사람들을 바다에 나가 지를 드리며 영등신을 전송한다. 영등신이 나간 뒤에야 도항선이 비로소 운항을 시작한다. 당에 갈 때는 매 두 그릇, 삼색 물색, 지전, 과일, 제숙, 소주해서 간단하게 차리고 간다.

과거에 조상들이 탕겨나난 부모 탕겨난 나라 해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그 당에는 우리 호적들이 들어있다 생각하고 다녀야 한다. 호적초지 예? 우리 뱃출장소나 마찬가사나 우리가 부정이 있으며는 거기서 호적을 찾아볼려는 생명이 위험한 당이니까 그 조상을 위해야 한다는 뜻에서 다니는 겹주.

이 당을 맨 심방은 오순이 하르방 → 홍창원 → 김금연 → 양정순 → 이순이 → 강금녀, 지금은 종달리 심방 강금녀씨가 당을 매고 있다.

2) 돈짓당과 돈짓제

① 영일동 돈짓당

영일동 포구 남쪽 100m 지점에 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 일부는 돈짓당에 가제를 지내며 특히 8월 명절에는 크게 차리고 간다. 요왕제를 지낼 때는 바다 아무데나 가서 ‘지드린다’고 하였으나 간단하게 돌을 덮은 형태의 당이 있었다. 정월 나면 1년 동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왕제를 지낸다. 또 초하루 보름이나 뱃고사를 하기 전에 이 돈짓당에 먼저 간다고 한다(영일동 : 朴成華).

□ 영일동 돈짓제

영일동에서는 남성 중심의 포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바닷가에 작은 돈짓당이 있을 뿐 별다른 무속적인 당굿을 마을 단위로 한 적이 없다. 바다 어장은



영일동 돈짓당

넓으나 포구 사정이 좋지 않아 어부도 적은 편이다. 주로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돈짓제가 있다. 겨울철 출어를 하지 않고 놀다가 처음 출어하는 날 메·해어·술·돼지머리 등 제물을 준비하고 돈짓당에 가서 진설한다. 제는 배례함도 없이 술을 부어 올리고 매에 손가락을 꽂아 두었다가 잠식한 다음 배로 가서 한 판에 제물을 진설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를 지내고 잠식한 것을 바다에 던진다.

② 비양동 돈짓당

비양동의 돈짓당은 '낙리성창'을 지나 '뽕비양(飛揚島)' 煙臺가기 전 다리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 높은 동산에 있다. 이 당은 비양도 사람만 다니는 해신당이다. 넓적한 돌로 만든 궤가 있고 이 궤에다 神位를 모셔 돌문을 닫아두고 있으면 3~4평의 잔디밭에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 이 당을 '게당'이라고 하는데 해녀나 어부가 다니며, 보통 정월 보름날 많이 가며, 배가 고사를 지낼 때 먼저 이 당에 제를 지낸다. 배에서 당에 갈 때는 돼지머리를 가져가기도 한다.

③ 상·하교수동 '성창봉오지' 돈짓당

하교수동 포구에 있다. 상·하교수동 해녀와 어부들이 다닌다.



비양동 돈짓당



하고수동 돈짓당

음력으로 1월 초승달 때, 초 하루와 그믐날, 그리고 팔월 추석에 크게 차려, 선주나 어부들은 정성을 들여 당제와 뱃고사를 하기도 한다. 보통 때는 초하루 보름에 좋은 날을 택해서 쌀과 멧그릇을 가져 가 재를 지낸 후 바다에 지를 드리기도 하고, 배하고 사람들은 돼지 머리도 가지고 다닌다.

하고수동은 배 두 척에 열 사람의 어부가 있고 해녀는 한 집에 1인 꼴로 30명, 상·하고수동 합쳐 70여명이 된다. 요즈음은 해녀·어부들이 전부 당에 다니지 않고 일부만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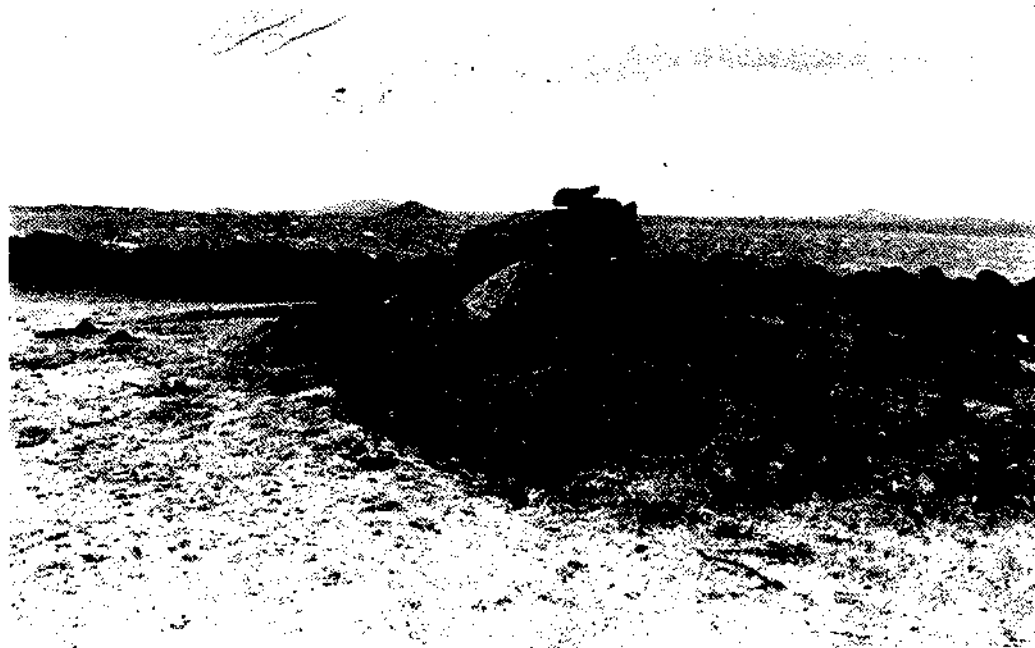
④ 주흥동 돈짓당

주흥동 '중개' 포구 왼쪽에 방사답이 있고, 그 부근 동남쪽에 '당알'이라는 곳에 돈짓당이 있다. 당에 갈 때는 보통 택임해서 다니지만, 뱃고사를 지낼 때 당에 가며, 당에 갈 때는 메 2그릇 가지고 간다.

⑤ 하우목동 돈짓당

'우목개' 선창 길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본향당에 당집을 짓고 본향당산 좌측에 옮겨다가 모셨다.

⑥ 서천진동 '똥내미구석' 돈짓당



서천진동 '똥내미구석' 돈짓당

‘똥네미구석’ 동쪽 높은 지경에 돌을 쌓아 둔 곳이 이 낭이다. 지금도 당에는 돌을 쌓아 둔 속에 지전·불새 조각이 보인다. 주로 해녀들이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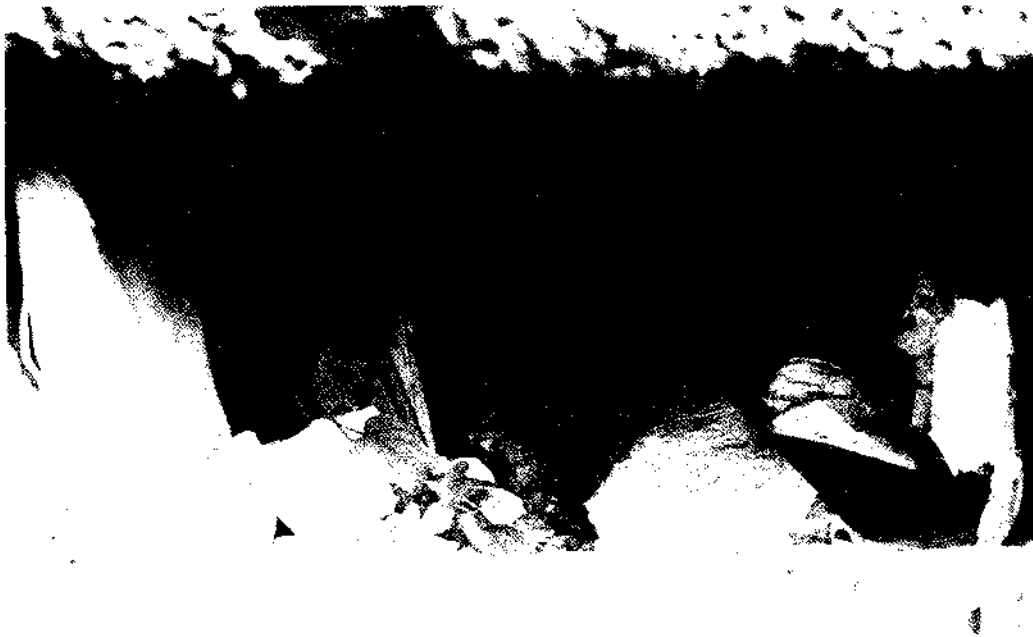
⑦ 동천진동 돈짓당



동천진동 돈짓당

돈짓당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잘 정돈된 당으로 영등굿을 하는 낭이다. 도항선이 다니는 포구 동쪽 200m지점 바닷가에 울타리를 둘렀으며 돌로 만든 궤 속에 지전과 불새이 있고 돌문을 닫아 문다. 동천진동 돈짓당에는 이 돌집 안에는 日本의 ‘가미다나(神棚)’식으로 나무 판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赤·綠·黃 삼색의 불새를 백지 한 장으로 싸 점은 것을 7개 걸어 놓고 있다.

이 낭은 주로 해녀들이 주장하여 다니는 당으로 매해 2월 15일에 영등제를 얹은제로 지내며 이를 <돈짓제>라 한다. 특히 우도는 영등신이 떠나는 곳으로 2월 15일이 되면 모든 배의 도항과 출륙을 금한다.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내는 배방선이 끝나고 비로소 영등신이 섬을 떠나면 도항선의 출륙금지는 해제된다.



동천진동 돈짓당 제안

□ 동천진동 돈짓제

제물로 메·시루떡·돌래떡·닭·술·채소류·五果 등을 마련하여 짚으로 만든 배가 준비된다. 이날 어부가 해녀 특히 배를 부리는 집안에서 당에 와서 제물을 진설하고 심방은 요령을 흔들며 마을과 각 집안의 선박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한다. 기원이 끝나면 제물을 종이에 싸서 바닷가로 가 던지는데 ‘저 드린다’고 한다. 단골들이 행렬을 지으며 바닷가에서 지를 드린 후 심방은 짚으로 만든 배에 각종 제물을 싣고 바다로 띄워 보낸다. 영등신은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다.

□ 말축굿

〈말축굿〉은 메뚜기의 빈식으로 생기는 농작물의 蟲害를 막기 위한 굿이다. 이 굿은 30년 전까지 했으나 지금은 없어진 것이다.

〈말축굿〉은 메뚜기가 성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심할 때, 하우목동의 바닷가 ‘우목개’에 있는 돈짓당에서 하였다. ‘우목개’는 우도면의 모든 牛馬를 실어 내고 들이는 포구였으며 ‘우목개’에 있는 돈짓당은 또 우도의 대표적인 돈짓당이였다. 돈

짓당의 신은 '돈지하르방·할망'으로 <말축굿>은 이 당신에게 기원하고, 매뚜기를 몰아다가 배에 실어 떠나는 보내는 굿이다.

돈짓당의 제일은 정월 14일과 7월 14일인데 이 때의 굿도 <말축굿>과 비슷하다. 굿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린다. 굿하는 날 아침에 상·하우목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각각 제물을 지고 돈짓당에 모여든다. 제물은 메 2器, 쌀 1되, 海魚, 술, 實果, 白紙 등인데, 어선을 부리는 집에서는 수탉을 한 마리 더 가져와 액을 막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당 앞에 제물들을 벌여놓고 심방이 굿을 시작하는데 굿은 다른 당굿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이 굿의 특징인 매뚜기를 몰아내는 굿 제차로 이어지는데, 수심방이 제장에서 '어떤 마소 어떤 마소를 아무개 태우리(牧童)가 몰러 갑니다'는 내용의 사설을 창하면, 무악기를 치던 小巫들이 목동들이 분장하고, '멜망탱이(어깨에 메게 되어 있는 작은 먹서리)'를 메고 막대기를 들고서 '아무 소를 몰러 나간다'고 외치며 제장을 빠져 당의 양쪽으로 갈려 나간다. 한 쪽은 오른쪽으로 출발하여 상우목동과 천진동의 사이길로 돌아 섬의 중앙 부분으로 나가고, 다른 한 쪽은 왼쪽으로 출발하여 하우목동의 변경을 돌아 섬의 중앙 부분으로 나간다. 그들은 손으로 닭을 끌며 '어어렁 퍼어렁 어허허허' 마소 모는 소리를 해가며, '아무 마소가 내려간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걸어간다. 닭은 수탉이요, 노끈으로 산채로 코를 꿰어 그 노끈을 부명천으로 묶어 매고 그 부명으로 잡아 끌고 다닌다. 두 일행은 섬 중앙에서 만나 동네 안 길로 해서 제장이 있는 '우북개'로 돌아온다. 끌고 있는 닭은 털이 빠지고 거의 죽어 있다. 이 닭을 다리, 날개, 머리를 각각 산산조각으로 찢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머지는 배에 실는다. 배는 이미 짚이나 바가지로 자그마하게 만들어 두었다. 수심방은 "요건 쏘입니다. 요건 간장이고, 요건 소금입니다. 아무 태우리 아무 태우리, 어서 배에 올라서 마소를 싣고 가십시오." 하는 내용의 사설을 창하며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뜯어 싣고 여기에 닭도 싣고서 배를 먼 바다로 띄워 보내면 굿은 끝난다.⁶⁾

6)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연평리 학술조사보고서」(탐라문화연구소편, 『濟州島部落誌』(3), 제주대학탐라문화연구소 1990), pp. 129~130.

제 2 장 漁 撈 民 俗

제 1 절 머 리 말

牛島는 濟州島 본섬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北緯 33도 29분 6초, 東經 126도 58분 3초). 면적 6.646km^2 로 제주도 부속 도서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행정상으로도 단일 牛島面을 이룬다. 섬 한가운데 면사무소와 학교 그리고 상가들이 있는 中央洞을 중심으로 하여 섬 둘레를 돌아가며 여기저기에 11개의 자연취락이 늘어서 있다. 바로 이 자연취락들은 하나의 漁撈共同體를 형성한다. 여성들은 나잠어업(무레질)으로 어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업에 도모하는가 하면, 남성들은 그 나름대로 바다에서 행해지는 생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 《牛島面誌》편집체계상 해녀들에 따른 漁撈民俗이 따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 글은 남성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어로민속 조사에 한했다. 조사 대상도 男性들 중심으로 행해졌다.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 전통적인 어로민속은 간접조사에 의존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증언 내용을 녹음, 轉寫하여 기록했다.

牛島는 수산업법상 단일 구역의 1종공동어장이나 섬사람들 관습상으로는 바다밭을 11개 구역으로 나눈다. 上下古水洞은 두 개 자연취락이면서도 같이 바다밭을 갖고 있고, 西天津洞은 단일 자연취락이면서도 바다밭을 둘로 나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中央洞을 제외한 그 이외 지역은 자연취락 단위로 바다밭

을 공유한다.

우도의 자연취락별 家口・人口・漁村契員數 漁船 현황은 다음과 같다.

聚落別 家口・人口・漁村契員數・漁船 現況

里	자연취락	家口	人口		漁村契員		漁船
			男	女	男	女	
天津里	東天津洞	68	153	170	9	50	12
	西天津洞	71	160	178	1	32	
西光里	上牛目洞	30	69	66	3	23	8
	下牛目洞	67	143	159	8	45	
	中央洞	54	112	131			
五峯里	周興洞	42	86	110	7	34	10
	錢屹洞	45	98	117	6	33	10
	三陽洞	43	93	112	3	32	
	上古水洞	35	75	91	8	21	
	下古水洞	41	91	103	4	28	4
朝日里	飛陽洞	92	189	221	7	65	8
	迎日洞	63	131	151	6	50	
總	計	651	1,398	1,609	62	413	52

제2절 漁撈環境

漁場・潮流・바람으로 나뉘 牛島의 漁撈環境을 조사했다. 漁場 또한 남성 중심의 어로민속에 따른 어장과 여성 중심 어로민속(裸潛業)에 따른 어장이 다르다. 남성 중심으로 어로민속과 관련된 어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어로환경 요인인 潮流나 바람도 어장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가급적 漁撈共同體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했다.

1. 漁 場

沿岸에서부터 바다 深海로 이어지는 線上에, 그 低質의 조건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만큼 그에 걸맞는 海産物 자원도 다르다.

보통 ‘개갯’(갯가)이라고 하는 연안 潮間帶에서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岩盤이나 돌덩이로만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연안에서부터 일정한 지점 線上까지 모래로만 깔려 있는 곳도 없진 않다. 또 沿岸은 돌로 형성되었으나 潮間帶를 넘어서면서부터 모래가 깔려 있는 곳도 있다. 일종공둥어장 구역이라고 하나 돌덩이나 岩盤이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아무튼 高潮線과 底潮線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線上의 지점까지, 돌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곳을 ‘걸바당’ 또는 ‘어덕’이라 하고,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을 ‘모살바당’이라 한다. 걸바당과 모래바당은 혼재해 있는 셈이다. 걸바당나 모래바당을 지나 연안으로부터 보다 深海에, 그 低質이 온통 펄로만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이 바다를 ‘펄바당’이라 한다. 우도 사람들은 펄바당에서 전통적으로 어로활동을 펼쳐오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에 따른 漁撈慣行이나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 이르러 下古水洞 일부 漁家에서 펄바당까지 어로활동을 나간다고 한다.

牛島는 섬 한가운데 자리잡은 中央洞을 중심으로 11개 자연취락들이 늘어서 있다. 자연취락들은 나름대로 沿岸의 일정한 海域을 나눠 갖는 漁撈共同體를 형성한다. 바다밭 나눔으로 자연취락들 간의 갈등 요인도 없지 않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시계바늘 돌 듯, 자연취락별 海域과 그 안에 있는 바다밭인 어장의 이름을 살핀다.

東天津洞¹⁾

迎日洞과 分界点인 속칭, ‘보섭봉우지’에서부터 西天津洞과의 分界点인 ‘개올레’까지다. ‘개올레’는 바닷속으로도 이어지는 듯, 西天津洞 해역에 속한 ‘손치고서방여’와 東天津洞 해역의 ‘죽은툰여’ 사이로 그 바닷속 밑이 모래로 깔린

1) 東天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申仁弘(남·70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곶을 이룬다. 그 곶은 바로 동서전진동간 바다 分界線을 이룬다.

보섭봉우지 : ‘코지’(岬)가 보습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牛島연안에서 가장 水深이 깊다. 수심이 깊으매, 상어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주낙을 놓기도 했었다. 이곳에서 상어잡이도 했었다. 冬至 前後하여 내려지는 雨期인 속칭 ‘동지마’ 동안이 상어잡이 漁期다.

보섭봉우지앞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보섭보우지뒷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쌀맞인개삿봉오지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삿봉오지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밭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그 여 주위에, 그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밭여’와 그 밖에 있다고 하여 ‘베깃밭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고 하여 ‘가운뎃밭여’가 있다.

조실머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장옥이아방여 : 장옥이 아버지라고 한 이가 자리를 잡다가 돌에 그물이 걸렸는데, 자리그물을 바꾸 당기다가 그물을 찢겨 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여에는 특히 초봄에 자리가 많이 몰리들기로 유명하다.

불락여 : 지난 날에는 불락이 많이 서식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락여’ 또한 그 앞에 있다고 하여 ‘앞여’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다고 하여 ‘뒷여’가 있다. 자리도 많이 서식한다.

만금이아방여 : 초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지난날 牛島에 金肥가 보급되기 전에는 보리 기름으로 가장 좋은 海草인 속칭 ‘실갱이듬복’ 自生地이기도 하다. 그 시절에 실갱이듬복을 채취하는 데는 ‘줄아시’라는 커나란 낚으로 베었었다. 그 시절 만금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실갱이듬복을 베기 위하여 ‘줄아시’라는 낚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곳(여)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숨은여 : ‘만금이아방여’ 동편에 위치한 여다. 자리가 많이 서식한다.

하늘의앞여 : 자리가 서식하는 여다.

들렁머리(등말) :

꿀정여 :

톨까니 :

새쌀맞인개 : 솔개(우도 사람들은 ‘춤새’라고 한다)가 서식하는 곳이다. 産卵期에는 그 새가 사나워져 사람이 접근해가면 부리로 쪼아버리는 수가 왕왕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쌀맞인개코지 :

西天津洞²⁾

東天津洞과의 분계점인 ‘개올레’에서부터 上牛目洞과의 분계점인 ‘넛골알’까지다. ‘개올레’는 서천진동 해역의 ‘손지고성방여’와 동천진동 해역에 있는 ‘죽은툰여’ 사이로 넛골을 이루며 바다로 이어진다. 두 여 사이 바다로 이어지는 넛골이 경계선이다. 그리고 상우목동과의 분계점인 ‘넛골알’ 일대 연안은 모래밭이기 때문에 경계짓기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서천진동은 하나의 자연취락이면서도 ‘들영코지’를 중심으로 바다밭을 다시 둘로 나눈다. ‘개올레’에서부터 ‘들영코지’까지는 3·4班 사람들이 바다밭이고, ‘들영코지’에서부터 ‘넛골알’까지는 1·2반 바다밭이다.

손지고서방여 : 자리돔이 서식하는 여이기도 하다. 옛날 한 高氏 선조가 차그만한 배를 타고 어로활동을 하다가 배가 부숴져버린 여라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넛대기 : 드넓듯한 水中 여다. 滿潮가 되면 수심 2~3m쯤되나 干潮 때에는 모습을 살짝 드러내기도 한다. 툇도 자라고, 자리돔도 서식한다.

사뭇들 :

빅개툇 : 장바 동안에 상어 진란장이었다. 그때는 손쉽게 산란하러 온 상어(빅제)가 손으로도 잘 잡혔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흑툇알 :

진여 :

진개툇여 :

2) 西天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連培(女·66세)·金恒子(女·51세)씨의 도움이 컸다.

들엉코지 : 서천진동 내에서 바다밭을 분계하는 분계점이 되는 곳이다. 일명 ‘들어온코지’라고도 한다. 牛島에 入耕하기 위하여 맨처음 들어온 사람이 첫밭을 내딛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방앳여 : 툇은 자라지 않으나 우뚝가사리는 자라는 수중 여다(우뚝가사리는 水深 5m 前後에서 자란다).

* 여가 영 수랑헌디(이라 가름한데), 가운데가 목자난 방앳귀(절굿공이) 닮단해연 방앳여 <西天津洞 金連培>.

쫓인여 : 썰물일 때는 모습을 드러내는 水中 여다. 자그마한 수중 여가 촘촘히 네 개가 한데로 모여 있다.

썰지미 : ‘쫓인여’에서부터 바다쪽으로 70여m 나간 지점에 있다.

바당여 :

납제기여 : 냇골알에 있는 여로 툇도 자랄만큼 조금만 썰물인 때도 모습을 드러낸다.

똥내미구석 : 西天津洞 포구 일대다. 우도 내에서도 風藻가 가장 많이 떠밀려드는 바닷가로 유명하다. 서천진동 1·2반 바다밭 연안에 떠밀려드는 풍조의 95%는 집중적으로 이곳으로만 몰려든다고 한다.

* 섯복음(東風)만 불민 곳인 건 그디 다 울류니다. 온 쓰레긴 다 둥글어 올네다. 우미·간태도 하영(많이) 올라오곡. 우리 동네 사름덜 직장이 바로 이 ‘똥내미구석’이 우다 <西天津洞 金恒子>.

* 썩으만 그 냄새가 오직홀 거꽈(오죽할 쟈니까). 게난 ‘똥내미구석’이엔 홀모냥 이다. 우리 동네 바당이 족으난 요왕(龍王)님이 다 이레만 거두와들이는 점주 <西天津洞 金連培>.

上牛目洞³⁾

東天津洞과의 分界点인 ‘냇골알’에서부터 ‘득생이코지’의 ‘떡개’까지가 上牛目

3) 鄭學俊(男·63세) 金香順(女·69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洞의 해역이다. 上牛目洞 북쪽으로는 분계점은 지금의 '득생이코지'에서 남쪽 약 50m 지점까지였다. 상우목동에서 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직선 거리로 5m 정도 하우목동 해역이 필요했다. 上牛目洞에서는 그것을 받고 '득생이코지' '납덕여'로 분계점을 내줘버렸다.

* 성창 안다운 댐 그 '구린질목' 알까진(밀까지는) 우리 바당이라심주께. 우리 바당인디 족은모실넷기에 성창 댐들이났는디 해크라져브난 댐들디가 없단 말이우다. '구린질목알'에 성창을 만들겐 ㅎ난 하우목동 바당이 ㅎ썰(조금) 필요 해연 성창은 우리가 ㅎ뒤 구린질목알 바당은 해 먹어블랜(먹어버려라고) <上牛目洞 鄭學俊>.

넛골알 :

큰모실넷기 : 白沙場이 보다 드넓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왕모실넷기 : 보다 큰 모래자갈돌인 '넛메역작지'가 많이 떠밀려오는 바닷가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족은모실넷기 :

고동여불턱 :

고동여 :

너릅너리 :

똥싼지미 :

* 잠수(潛水)덜이 불건 테레 간디(따러 갔었는데) 짚어노난 물엿 거 해영 나오명 똥싸벧댄 해연 <上牛目洞 鄭學俊>.

* 거기 여 서너개 잔잔한 거 잇우다. 해녀덜 물에 들언 나오명 술 다 먹언 똥싸나브난 '똥싼지미'엔 훤네다 <上牛目洞 金香順>.

수또지미 :

감태뿌리 :

下牛目洞⁴⁾

上牛木洞과 分界点인 '득생이코지'의 '납덕여'에서부터 周興洞과 분계점인

4) 下牛目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鄭贊景(男·74세)·金千能(남·74세)·金千壽(남·58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북돌코지’까지가 下牛日洞 海域이다. 양쪽으로 나눌 ‘分’자를 암반 위에 새겨 분계점을 식별한다. 周興洞과 분계점을 識別하는 방법은 돌보인다. 나눌 分 字 위에 선을 그어놓고, 다시 바다쪽에는 금이 번듯한 돌덩이를 세웠다. 북쪽을 향해 있다는 의미에서 ‘북돌’이라 한다. 分 字 위에 새겨진 일직선과 북돌의 일직선을 따라 바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다. 일직선은 최종적으로 제주도 본섬의 ‘행원코지’와 연결되게 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周興洞 高應秀씨 談).

下牛日洞의 海域은 伸縮의 역사를 갖고 있다. 上牛日洞쪽 해역으로는 늘어났고, 주흥동쪽으로는 줄었다. 독생이코지 남쪽 약 50m 아래까지 였다. 그런데 지금의 분계점으로 고정됐다고 한다(오영돈씨). 상우목동 해역에는 배를 정박시킬 만한 포구가 없었다. 어렵시리 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로 5m 정도의 하우목동 해역이 필요했다. 바로 그 해역을 상우목동 사람들에게 양보해주는 조건으로 직선거리로 약 20m 정도의 해역을 하우목동 사람들에게 줘 버린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독생이코지’다. 하우목동 사람들은 상우목동 사람들에게 해역을 되로 주고 밭로 받은 셈이 되어버렸다.

독생이코지 : 상우목동과 分界点을 이루는 곳이다. 우도에 入耕이 허락되기 전에 ‘독생이’라는 牧者가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주위에 우물을 파서 먹으며 살았다는 ‘독생이물’은 지금은 메워져 버렸다.

우뭇개 : 하우목동 해안 境上에 위치한 옛 포구 이름이다. 지금의 포구 바로 인접하여 그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금 동네 이름인 ‘牛日’도 바로 이 이름, ‘우뭇’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개창 : 우뭇개로 들어오는 뱃길의 목이다. 포구의 입구, 곧 罅이었다는 의미(?)를 갖는 듯하다.

진여 :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기다랗게 놓여 있는 여다.

방앗여 : 방아처럼 둥그렇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여의 이름이다. ‘우뭇개’ 옆으로 지금의 포구를 新築하면서 그 여를 發破해버려 지금은 자취도 없어졌다.

마바람개 : 하우목동의 신축된 포구 이름이다. 이 포구는 마바람(南風)이 의지되는 포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편니여 : ‘옷’이라는 바닷 갈매기가 많이 몰려드는 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신축된 포구의 防波堤는 바로 이 ‘오따녀’를 의지하여 축조되었다.

사우통 : 지금 포구 물양장 자리다. 지난 날에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던 새우 (‘사우’)가 많이 잡하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모살개 : ‘우뭇개’ 근처 연안 이름이다.

안조랑개 : ‘우뭇개’ 근처 연안 이름이다. 지금은 매립되어 버렸다.

장통알 : ‘우뭇개’ 북쪽 연안 이름이다. 이렇게 命名하게 된 배경이 전해진다.

* 장통이라는 것은 옛날 이 섬이 목장지(牧場地)지요. 사람도 안 살고 쇠물만 길렀지(길렀지). 옛날엔 포구도 어섯고(없었고). 여기 ‘장통알’이란 데가 수심이 좀 깊었던 모양이지, 옛날에 배가 와서 우마를 실어날으려 하면 돌파구가 만하니 쇠물털이(많은나 소말들이) 다리가 상홀런지 모르니까 장통을 발에 끼와서 쇠나 물을 배에 실었다고 해서 ‘장통알’이라 했다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설(風說)로 들건디는 ‘장통알’. 돌아가신 영감님덜안티 들은 말이라 <下牛目洞 鄭贊景>.

우범예알 : 禹氏 先祖가 살았었다고 전해지는 집터 바로 아래쪽 연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임춘이강알 : 포구 북쪽 연안 이름이다. 임춘이는 사람 이름이고, ‘강알’은 두 다리 사이인 살의 제죽말이다. 그렇게 命名되게 된 사연이 전한다.

* 옛날 임춘이엔 혼(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점을 봐난 모양이라. 그래서 배를 해어서 성산포(城山浦) 가서 물건을 때어 밤의 들어오다가 이거 포구다 해여가지고 들어오다가 배가 부서졌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름을 ‘임춘이강알’이라고 이름을 지와 본거라(지워 버린거야). 그디가 하늬북풍(西風) 치면은 행패이 사나운디라 <下牛目洞 鄭贊景>.

번지여 :

쟁반여 :

섬여 :

넓메역작지왓 : 下牛目洞 경 1종공동어장 구역을 벗어나 濟州 本島보다 가까운 終達마을 가까이까지 질편하게 넓미역(廣藿)이 자생하는 바다가 펼쳐진다. 廣藿은 ‘넙메역작지’위에서 자생한다. 이 일대를 두고 ‘넙메역작지왓’이라 한다. ‘작지

왔'은 자갈밭이라는 말이다. 더하여 문어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 바다밭을 토대로 넓마역(廣布)을 채취하는 일과 문어를 낚는 漁撈技術慣行이 전승되어 왔다.

周興洞⁵⁾

下牛目洞과 分界点인 '북돌코지'에서부터 錢屹洞과 分界점인 '물코'까지가 周興洞 해역이다.

곤예물 :

산물통 : 우도에서는 드물게 해변가에 산물(살아 있는 물?)이 솟는 곳이다.

당알 : 神堂이 위치한 그 아래쪽 해안가다.

죽은원 :

청년원 :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에 이 동네 청년들이 원담을 쌓아 그 안에 물려든 멸치를 靑年들 스스로가 잡아 청년회 공금으로 마련했다는 데서 붙여진 원(垣)이름이다.

죽은구미 :

실갱이듬북밭 : 金肥가 보급되기 전에 보리밭 거름으로 가장 愛用되었던 '실갱이'라는 海草가 자생하는 바다밭 이름이다.

周興洞 연안 潮間帶에는 어느 정도 돌바퀴로 이뤄졌으나 底潮線을 벗어나면 온통 바다 밑은 모래로만 깔려 있다. 모래바다를 조금 지나서 '실갱이듬북'(海草) 바다밭이 나올 정도로 1종공동어장 구역은 주로 모래로만 깔려 있다. '실갱이듬북'도 金肥가 보급되기 전이라면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었겠으나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때문에 극성스레 '실갱이듬북'을 채취하는 일도 없다. 모래로만 깔려 있는 바다에는 현재 換錢 가치가 높은 海產物(우뭇가사리·톳·전복·소라·해삼 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周興洞 사람들은 물론 이 일대 이웃 동네 사람들 간에 바다밭으로 인한 갈등 요인이 된다.

金肥가 우도에 보급되기 전, 실갱이듬북이 없이는 보리를 耕作할 수 없던 시

5) 周興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거주하는 高應秀(남·59세)씨와 尹能洙(남·58세)씨의 도움이 따랐다.

절에는 周興洞을 비롯한 인근 錢屹洞이나 三陽洞은 지금 주흥동 해역에 있는 ‘실갱이듬복밭’에서 해초를 베어다가 보리밭에 거름을 줘야 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갱이듬복은 지금의 換錢 가치가 높은 우뚝가사리나 소라 전복에 못지 않았다. 주흥동 해역의 실갱이듬복은 지금에 이르러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모래바나가 많아 換錢價值가 높은 해산물도 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실갱이듬복이 나지 않던 전흥동과 삼양동 해역은 지금에 이르러 換錢가치가 드높은 해산물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지금에 이르러 세 동네 사이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智慧가 나타난다. 그것은 세 동네 간에 바다밭을 합리적으로 共有하는 것이다.

周興洞은 행정단위상 가장 작은 단위인 네 개의 반(班)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흥동 漁撈공동집단이 공동으로 채취하는 뜻은 주흥동 해역에서만 행한다. 1종공동어장의 低質이 거의 모래로만 깔려 있는 주흥동에는 개별적으로 채취 대상인 우뚝가사리나 해녀들의 주채취대상물인 전복 소라가 그리 많지 않다. 우뚝가사리는 얼마 동안 금지했다가 일정한 기간에 그 채취를 허가하는 ‘許採’ 기간에만 채취하고, 소라 전복은 해녀들이 수시로 채취한다. 이를 ‘헛무레’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주흥동 해녀들은 우뚝가사리와 소라 전복을 그들 해역인 周興洞 바다는 물론 이웃 전흥동과 삼양동으로 나뉘 가서 채취한다. 그것도 錢屹洞이나 삼양동에서 마을 공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名目으로 구획된 속칭 ‘기성회바다’ 이외의 해역이다. 논의의 편의상 그 이외의 해역을 ‘공동바다’라 해두겠다.

錢屹洞⁶⁾

下牛日洞과의 分界点인 ‘물코’⁷⁾에서부터 이웃 三陽洞과의 分界点인 ‘물썸원’까지가 錢屹洞 해역이다.

기성회바다⁸⁾ : ‘물코’에서부터 ‘새비툰여’를 포함한 ‘새비코지’까지 해역이다.

6) 전흥동에 거주하는 金君善(男·66세)씨의 도움으로 조사했다.

7) 주흥동과 錢屹洞 사이에 바닷물이 몹으로 들어와 하나의 沼를 이루는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늪병’이라 한다. 바로 이 늪병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물코’라 한다.

8) 牛島에서 ‘기성회바다(바다)’이라는 말은 마을 공동 해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그들 힘으로 그들 전용 浦川을 築造하지는 취지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 해역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天草)나 툇은 전홀동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여 집단 공동기금으로 삼고, 부정기적으로 해녀들이 주로 전복이나 소라를 따는 ‘헛무레’는 전홀동 거주 해녀들만의 바다밭이다. 한 제보자(주홍동 거주 尹能洙)씨는 ‘기성화바다’를 다음과 같이 말해줬다.

* 옛날은 그 축항(築港)을 동네 자체로 만들어십주, 동네 사름덜이. 그렇게 해보니 그 돈이 없으면 안되어마썸. 그러니까 바다를 끌어가지고 아줌마덜이 물건을 캐어도 동네에서 관리하는 거라마썸. 동네에서 호당(戶當) 혼 사름이민 혼 사름, 두 사름이민 두 사름 나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나온 천초(天草)하고 ㄹ의(기예) 나는 툇을 풀양(팔아서) 동네 공금으로 잡는 거라마썸. 자금도 마찬가지로. 나 부락마다 기성화바당이 잇잖우짜(있잖습니까). 그러니 그 바다는 판(다른) 부락의 해녀덜이 와서 침입을 못함주 <周興洞 尹能洙>.

여기서 ‘판 부락’이란 錢屹洞이나 三陽洞 입장에서보면 周興洞의 해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동바다(박머리) : ‘새비코지’에서부터 三陽洞과 分界点인 ‘물썸원’까지의 해역이다. 전홀동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는 툇은 전홀동 어로집단만이 공동으로 채취하나 일정한 기간에만 채취가 許容되어 개별적으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와 부정기적으로 채취하는 해녀들 ‘헛무레’는 전홀동에 거주하는 해녀와 주홍동의 3, 4만 해녀들의 어장이다.

또 이 해역을 두고 ‘박머리’라 한다. 우도에서도 가장 潮速(물발)이 드센 곳. 때문에 조속이 센 곳이라 ‘저립’(재방어) 漁場이기도 하다. 해녀들도 물발이 어느 정도 느슨한 조금 동안에만 ‘무레질’(해녀작업)이 가능하다. 대신 干滿의 차가 심한 ‘웨살’ 동안에는 보다 潮速이 느슨한 ‘물코’에서부터 ‘새비코지’까지의 해역인 기성화바다에서 작업한다.

박머리 해역 내에는 자리 서식처인 ‘자리밭’이 두 군데나 있다. 이곳 또한 潮速이 어느 정도 느슨한 ‘조금’기간 중에서도 썰물이 어느 정도 느슨해질 때만 자리잡이를 고집한다.

막머리여 : 2~4척의 배를 세워 자리그물 2~4個網을 드리울 수 있는 크기의 여다.

닷다니여 : 한 척의 배에서 자리그물 하나만을 드리울 수 있는 크기의 자리밭이다.

새비코지 : '새비툐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코지'(岬)다.

소금밭 : '새비코지'에서 붙쪽, 바로 남서쪽에 위치한다. 조금은 움푹 패인 듯한 2백여평 정도의 岩盤이다. 지난 날 이 암반에 바닷물을 가둬놓아 소금을 만들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갈대밭'(갈대밭)이라고도 한다. 소금을 생산하지 않게 되자 한때 바닷물에서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갈대'들이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비툐여 : '새비코지'에서 떨어져나간 듯이 수중에 타원형으로 놓인 暗礁다. 어느 정도 썰물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여'를 중심으로 하여 천초나 툇 등의 해조류는 물론 어패류 그리고 그 주위 동북쪽에 자리 서식처인 '자리-밭'이 다섯 군데나 줄줄이 있다.

① **넙덕여** : '넙덕여뒷혹'과 '반넙덕여' 두 곳으로 나뉜다.

② **밭여** : 다섯 개 자리서식처(자리밭) 중 가장 深海쪽으로 밖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 **셋여** : 다섯 개 자리서식처 중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④ **두린새비여** :

⑤ **문하르방여** : 자리서식처(자리밭)를 이리 命名하게 된 배경이 전한다.

* 원래 요 동네 살았던 옛날 하르방인디 그 하르방이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지은 모양이라마썸(모양입니다). 지금 살아 계셨으면 백오십세 정도 <錢屹洞 金君善(남. 66세)>.

이들 다섯 군데 자리서식처인 '자리밭'은 一個의 자리網만 드리우면 좋을 정도의 자그마한 수중 암초들이다. 물때(무수기)를 가리지 않고 다섯 군데 모두 썰물 潮速이 어느 정도 느슨한 때를 택하여 그물을 드리운다. 이처럼 썰물이 급하게

흐르다가 어느 정도 潮速이 완만해지면서 느슨해지는 순간을 ‘쌀물좇임’⁹⁾이라 한다. 자리그물을 드리우는 데는 바로 그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물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그 위치를 찾는다. 다섯 군데의 자리밭은 주로 마을의 집들을 이용한다. 이처럼 마을의 집들만을 지형지물로 이용하여 가늠함을 ‘묵을가늠’이라 한다.

감태구미 : 북풍이 불어대면 돌이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있던 감태가 저절로 떨어져 밀려드는 해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미’는 일정 구역의 해역을 의미하는 말인 듯하다. 이웃 飛陽洞에서도 확인되었다.

뜸병 :

동치코지 : 지난날 돛의 일종인 ‘동치’를 낚던 ‘코지’(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66세된 한 제보자(金君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 20세까지만 하더라도 낚시에 문어를 한 마리 끼워 던져내 버리면 10여킬로나 되는 돛들이 몰려 있었다고 한다.

물썸원 : 이웃 三陽洞과의 분계점이면서, 담을 축조해 놓고는 밀물 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을 가둬잡았던 원이 있던 자리다. 지금도 그 담을 축조했던 흔적은 남아 있다.

툰걸 : ‘툰’은 다르나의 뜻을 갖는 제죽말 ‘툰나다’의 어간이고, ‘걸’은 바다의 低質이 돌덩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바다밭인 ‘걸바당’의 줄임말이다. 물해변에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지는 線上에서 해변의 걸바당을 지나 자갈이나 모래자갈밭으로 이어지고 한참 심해로 나가다가 우뚝 외딴 수중 암초인 여가 돌출되었다. 한 제보자(김군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외딴 여는 타원형으로 생겼고, 한 200여평은 남짓할 것이라 한다. 보다 바다쪽에 있는 외딴 여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서식한다. 地上의 지형지물을 가늠하며 그 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여에서 어로(주로 낚시어로)작업이 가능하다.

9) ‘쌀물좇임’에 대한 金君善(남·66세)씨의 설명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쌀물 탁 나가다가 자갈 때, 물 순환이 아주 저하(低下)되어갈 때를 ‘쌀물좇임’이라고 金君善 <錢屹洞 金君善>.

三陽洞¹⁰⁾

錢屹洞과 分界点인 ‘불썬원’에서부터 上下古水洞 分계점인 ‘늪은이물코지’까지가 三陽洞 海역이다. 이 공동어로집단 海역 또한 周興洞과 관계에서 기성회바다와 공동바다로 나뉜다.

기성회바다 : ‘불썬원’에서부터 ‘꿀정여’까지다. 이 海역에서 자라는 우뚝가사리(天草)나 툇은 三陽洞 어로집단 공동으로 채취하여 집단 공동기금으로 삼고, 삼양동 해녀들만이 부정기적으로 전복이나 소라를 채취하는 ‘헛무레’ 바다이기도 하다. 이 海역은 潮速이 보다 느린 곳이라, 干滿의 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조금 기간(아끈죄기·한죄기·흔물)에 ‘헛무레’를 하고, 간만의 차가 보다 심한 그 나머지 날에는 공동바다에서 周興洞 1,2班 해녀들과 함께 헛무레를 한다. 삼양동 해녀들이 기성회바다에서 헛무레를 하는 동안에는 주흥동 1,2반 해녀들은 자기네만 삼양동 공동바다에서 헛무레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 동안에 주흥동 1,2반 해녀들은 작업을 포기하거나 보다 해산물이 풍부하지 못한 주흥동 海역에서 작업을 한다.

공동바다 : ‘꿀정여’에서부터 상하고수동 分계점인 ‘늪은이물코지’까지 海역이다. 툇은 삼양동 어로집단만이 공동으로 채취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채취를 허용하는 우뚝가사리와 不定期 개별적으로 해녀들이 소라 전복을 채취하는 ‘헛무레’는 三陽洞에 거주하는 해녀와 주흥동 1,2반 해녀들 어장이다.

자락머흘깍 :

큰여 : 자락 가까이에 있는 水中暗礁인 여다. 滿潮 때에는 안보이나 干潮에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이까라여 : ‘답다니’와 ‘자락’ 사이에 있는 수중 암초인 여다.

답다니 :

하르방여 :

목여 :

10) 三陽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財秀(남·51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팽풍개 : 썰물이 되면 그 일대가 마치 屏風을 둘러놓은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개 :

맹주할망여 : 옛날 맹주 할머니가 그 여에만 가서는 즐겨 우뚝가사리를 채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늪은이물알 :

늪은이물코지 : 이웃 상하고수동과의 분계점이 되는 ‘코지’(岬)다. 바로 이 코지의 돌출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다쪽으로 ‘새강알여’, 다시 바다쪽으로 ‘난여’가 놓였는데, 세 지점의 일직선을 기준하여 分界된다. ‘난여’는 가장 干潮 때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上・下古水洞¹¹⁾

上古水洞과 下古水洞은 두 개 自然村落이면서도 바다밭은 하나다. 포구 또한 한 군데로 같이 이용한다. 三陽洞과 分界点인 ‘늪은이물알 큰개코지’에서부터 飛陽洞과 분계점인 ‘물코동산’까지가 상하고수동 바다밭이다. ‘늪은이물알코지’에서부터 수중 여인 ‘난여’ 동쪽 海底 ‘모살통’을 기준하여 경계 삼고, ‘물코동산’에서 ‘물래뚝바위’를 기준 삼아 바다밭을 나눴다.

늪은이물알 : 垣인 ‘큰개’와 ‘돌렝이덕’까지 해안 이름이다.

큰개 : 垣이 있었다. 지금은 원담이 형클어져 버렸다.

돌렝이덕 : 해녀들이 작업하고 나와 언 몸을 녹히던 ‘불턱’이 있던 곳이다.

난여 : 밀물 때 자리돔 어장이기도 하다.

죽은여 : 밀물 때 자리어장이기도 하다.

숨은여 : 썰물 때 자리어장이기도 하다.

곱은여 :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낸다.

먹돌개 :

앵목애 : ‘앵목애원’이라는 垣이 있었다.

11) 上下古水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金允一(男·79세)씨와 尹奉春(男·62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진코지동산 :

물여 :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들이 자란다.

샛개 :

앞개 :

방앗여 : 샛개와 앞개의 경계를 이루는 여다.

성창뚫강 :

오븐작여 :

박하르방개 :

개막동산 : 일명, '멍군 장군'이라고도 한다.

이왕맞이코지 : 지드리는 동산.

생복등알 :

셋모살 : 間石이 놓인 동쪽 일대의 白沙場.

큰모살 : 간석을 기준하여 서쪽 일대 白沙場.

모살툰여 :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낸다.

뭉게여 : 별치어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물이 잘 찢기는 곳이기도 했다.

생벵터 : 물코동산 윗쪽 일대.

동굴랑여 :

진여 :

개와당 :

독진개뭇(여) :

등상여 :

터웃개 :

산물통 : '예물동네'(古水)라는 동네 이름이 이 물에서 비롯되었다.

飛陽洞¹²⁾

이웃 上下古水洞의 분계점인 '셋모살'에서부터 迎日洞과의 분계점인 '곰동산'

12) 飛陽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康基鉉(남·65세) 李成雨(남·58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까지가 비양동의 해역이다. ‘섯모살’에서부터 ‘곰동산’까지 차례로 바다밭 이름을 알아본다. 현재 ‘곰동산’에는 迎日洞과 분계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암반에는 ‘分’자가 陰刻되어 있고 그 기준점이 되는 말뚝도 박혀 있다.

수늑바위개맛 : ‘개맛’은 포구의 토박이말이다. 지난 날 상하고수동과 비양동 사이에 질펀히 깔려 있는 모래밭에서는 벌치를 잡기 위한 마을 공동의 후림그물이 성행했었다. 그 백사장을 두고 흔히 ‘개와당’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이용되었던 옛 포구 이름이다. 지금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먹돌개 :

개두맹이여 : 해산물은 커녕 어로활동상 장애가 되는 암초다.

* 여기는 붓도 안납니다. 미국나라 ㅁ뜨민(같은) 쿠바처럼 눈에 가십주, 배들어 오는데 장애만 되는 겁주, 파도가 치면 여기서 파도가 많이 입주. ‘안비양’을 돌아가 지고 배가 들어와야 혼다 말이우다. 갈치 낚양(낚아서) 들어올 때도 뗏ㅁ뜨민 이디서 배가 다치기도 ㅁ뜨. 이거 아주 골치아픈...〈飛陽洞 康基鉉〉.

두리성창 : 비양동 앞에 있는 섬이다. 그 섬을 干滿에 관계없이 드나들 수 있게 다리를 놓았다. 바로 그 다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 옛날에 만조가 되면 어려와도 간조가 되면 사름이 왔다갔다 해난 모양이라마썸 (모양이지요). 우리 어렸을 때 ㅁ뜨 일곱 그썸 뗏는가, 그때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두리성창’을 만든 겁주(계지요). 그래서 물이 들거나 싸거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잇었던 겁주 〈飛陽洞 康基鉉〉.

섯배수 :

동배수 :

한와지 :

한외지원 : 돌담을 쌓아 놓고 밀물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가뒀놓아 잡는 원이다.

서똥머흙원 :

동똥머흙원 :

불락통 :

오다리 : ‘오다리’는 바다 갈매기 일종의 이름이다. 오다리가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다리툰여 : ‘오다리’에서 따로 뚝 떨어진 여.

동똥머흠 :

서똥머흠 : ‘동똥머흠’과 ‘서똥머흠’ 사이에 동서로 조류가 드세게 흐르기 때문에 품질좋은 톳이 자란다.

벌려진여 :

모살비양 :

볼래낭알 : 보리수나무가 자라는 일대 아래쪽 해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볼래낭알원 : ‘볼래낭알’ 일대의 ‘원’(垣).

진코지 :

장수발자국알 : 해안 岩盤 위에 천연적으로 말발굽처럼 패인 곳이 있는 해안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앉는봉우지 :

터웃개 : ‘태우’를 많이 매었다는 데서 붙여진 마을 바로 앞 포구.

먹들개 :

꽃인물통알 : 지난 날 마소 먹이용 물과 빨래터가 있던 물통 아래쪽 해안가라는 데서 붙여진 바다밭 이름이다. 동풍(셋북풍)이 불면 각종 해조류들이 바람에 떠 밀려 온다.

번난지개 : 강풍으로 일어나는 파도에 못견디어 돌에 붙어 있던 여러가지 해조류들이 떨어져 떠밀려 오는 것을 ‘번난지’라 한다. 곧 ‘번난지’가 곧잘 밀려드는 살췌 灣을 이르는 듯한 곳인 토박이말 ‘개’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른바위 : ‘조른’은 ‘짧다’의 뜻인 토박이말 ‘줄다’의 어간인 듯싶다. 다음의 증언에서 짐작컨대, 물발이 그다지 세차지 못한 곳이라 자잘한 톳이 자라는 바위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이 바다밭에서는 飛陽洞 공동어로잡단의 한 변천사를 들춰볼 수 있었다. 한때

는 동네일을 보는 洞長과 班長 보수로 바다를 주기도 했다가 또 일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일대를 파는 濱賣관행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동네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일대에서 서식하는 틸을 채취토록 하여 스스로 청년회 자금을 마련케 동네에서 배려해주기도 했던 곳이다. 바로 그 당시에는 이 바다밭 이름을 ‘청년바당’이라 했었다.

* 우리가 혼 스무 멧살 때까지는 ‘죽른바위’에 툄(붓)이 즐고, 물밭이 엇기(없기) 때문에, 얼마 나지도 아니하고 혼니까 동네에서 농장(洞長), 반장(班長) 보수로 바당을 줘버렸다 말이우다. 다음은 이것을 풀아가지고 멧 사람이 사서 해먹다가, 청년회 죽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먹으렘 줘 버리기도 해났고, 이젠 툄이 잘 안나마쌌 『飛陽洞 康基鉉』.

산물통통산알 : 牛島에서 유일하게 생수가 조금 나와 물통을 이루는 곳 밑 해변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줄락코지 :

똥내미여 : 자리그물 7~8척을 동시에 드리울만큼 제법 큰 水中 여다.

들물머리 : 자리그물 7~8척을 동시에 드리울만큼 제법 큰 수중 여다.

너른자 : 飛陽洞 해역에 있지 않고 영일동 해역인 등대 밑에 있는 자리밭이다. 이곳은 潮速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간만의 차가 느슨한 조금(조금사리)에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우도 동쪽 연안 어로집단만들 중에서 비양동 사람들이 보다 자리잡이에 극성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곳까지 出漁했었다 한다.

迎日洞¹³⁾

너른구미 : 海域(구미)이 조금은 넓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여 : 썰물이 나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은구미 : 屍身들이 잘 떠밀려드는 해역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살개 : 영일동 포구 일대 바다밭 이름이다.

쟁반여 :

13) 迎日洞의 바다밭 이름을 조사하는 데는 呂成華(남·59세) 金準澤(男·58세)씨의 도움에 따랐다.

청십빌레 :

먹돌개 :

뒷새비 : '뒷새비코지'에서부터 '산바우'까지 바닷가 이름이다.

못얹는여 :

산바우 :

거멀레 : 검은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바닷가.

신문 : 石壁이 新聞을 펼쳐 든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검은콧구멍 :

붉은콧구멍 :

진빌레 :

서우통 : 겨울 동안에 상어그물로 상어를 잡았던 곳이다.

돌랭이 :

선돌 :

가메혹 :

절테 :

너른지 :

뱃여 :

섬여 :

죽은섬여 :

2. 潮 流

漁撈民들은 그 지역 조류를 철저히 認知하고 있어야 한다. 나잠어로를 펼치는 해녀들도 같은 海域이라고 하나 干滿의 차에 따라 入漁하는 장소를 가린다. 錢屹洞 나잠어로집단 해녀들의 경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간만의 차가 보다 심한 '웨살' 때에는 기성회바다에서 그리고 간만의 차가 보다 느슨한 조금 전후로는 '박머리' 연안에서 작업을 한다. 남성들에 의하여 펼쳐지는 어로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썰물에 자리를 잡는 어장이 있는가 하면, 들물에만 자리를 잡는 곳도 있

다. 어떠한 어로 행위에서건 潮流를 철저히 認知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우도에서 특이한 潮流 現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도 섬 전체적으로 볼 때, 썰물은 서에서 동으로, 밀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름이 일반이다. 그런데 썰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빼어나게 돌출된 '코지'(岬)에 부딪고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逆流하는 곳이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의 逆潮流를 '돌런지'라 한다. 조류가 일정 지역에서만 역류하는 '돌런지' 현상은 우도 전체적으로 두 군데, 우도 남쪽 북쪽 연안에서 일어난다.

우도 남쪽 연안 돌런지

우도 남쪽 연안 돌런지 현상은 썰물 때 서에서부터 동으로 흐르는 썰물이 남쪽 연안 중 가장 돌출된 속칭 '보섭봉우지'에 와서 닿으면 일정한 곳까지 逆流하다가 다시 合水되면서 되흘러간다. 돌런지 현상이 일어날 때만을 골라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어장(여)이 있기도 하다.

* '돌런지'엔 혼 디가 자리 젤 하영 거립네께('돌런지'라고 하는 데가 자리 제일 많이 거러지요). 말 그대롭주, 돌아오는 물입주게, 썰물이 서에서 동터래 내려오는 물이 절로 영 내려오다가 '보섭봉우지'에 왕 탁 다이민(닿으면) 다시 물이 올라옴네께, 올라갓당 내려오는 물에 합수(合水)되영 내려가곡, 그릇(금)이 보압네다 <東大津洞 申仁弘>.

우도 북쪽 연안 돌런지

우도 북쪽 연안 돌런지 현상은 썰물 때 서에서부터 동으로 흐르는 물이 북쪽 연안 중 돌출된 속칭 '안비양'까지 흐르다 와닿으면 일정한 곳까지 역류하다가 다시 커다란 썰물 조류와 합류되어 되흐른다. 錢屹洞 연안 '동치코지'에서부터 飛陽洞 앞의 섬 '안비양' 사이에 돌런지 현상이 일어난다.

* 돌런지엔 혼 것은 썰물 나민 '동치코지'서 비양도(飛陽島)까지 켜게 나민 비양도 강 탁 박치민 반대 방향으로 이레 온다 말이여, 썰물(썰물)이지만 안네는 들물 되븐다 말이여, 비양도 쪽 나간디서부터 그 안네 물만 물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말이여.

이디선 '돌런지'라고도 하여, 썰물이 세어도 그 안네선 모음대로 작업할 수 있다

말이며. 물이 잔잔하다 말이며. 바당이 작업하기가 쉼 부드럽주게. 썰물도 쉼에 안가고 들물도 쉼에 안가고, 괴기도 하영(맑이) 놀곡 <錢屹洞 金君善>.

그래서 일정한 곳 밖으로는 썰물이 되어 동쪽으로 흐르나 그 안으로 돌런지 현상으로 潮流가 逆流한다. 흐르는 물과 逆流하는 물이 교차되는 지점을 두고 ‘돌런지곶’이라 한다. 조류가 서로 較差되는 지점에는 각종 고기들이 많이 몰려든다.

* 밖으로 나가면은 썰물이 가는데 안으로 불췌 들물이 돌아가브려. 그 곶을 ‘돌런지곶’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고기가 만하여 <飛陽洞 康基鉉>.

물춤과 좇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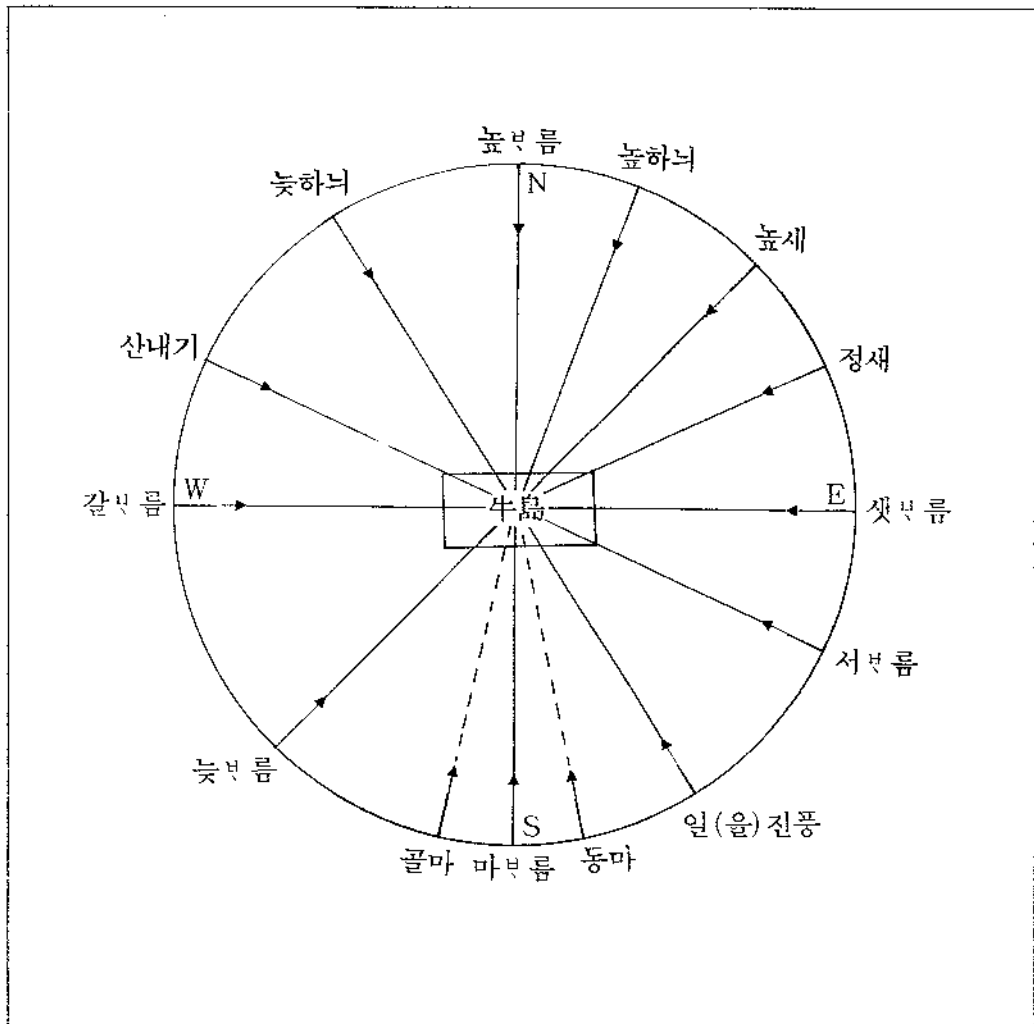
가장 滿潮되었을 때 조류가 잠시 멈춰 있어 잔잔한 동안을 ‘물춤’이라 하고, 그 반대로 가장 간조시 아직 발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멈춰 있는 때를 ‘좇인물’이라 한다.

3. 바 람

바람 또한 漁撈環境 중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 風速이나 바람 방향에 따라 어로활동이 규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牛島 어로민들은 바람을 認知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바람 방향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상황도 예견하고 있어야 한다.

飛陽洞 사람들은 섣바람(東風)이 불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風藻가 밀려들 것이라고 豫見한다.

錢屹洞 사람들은 음력 4월에서부터 7월까지만 자리잡이를 한다. 자리 서식처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錢屹洞 연안에서 가장 이름난 ‘새비툰여’ 주위 다섯 군데 자리 어장은 섣바람(東風)은 의지가 되어 어로작업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나 하늬바람(西風)에는 어쩔 도리없이 작업을 삼가야 한다. 음력 7월 이후부터 줄곧 하늬바람이 찾아들때, 자리그물을 철수해버린다. 그러나 東天津洞



우도의 바람 이름

자리어장은 하늬바람이 의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필자는 周興洞에서 바람이 어로집단민들을 강력히 規制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날은 '92년 11월 17일, 셋바람(東風)이 제법 부는 날이었다.

周興洞 1종공동어장구역 低質은 모래바다다. 나잠어장 조건이 썩 좋지 못하다. 때문에 周興洞 1·2반 해녀들은 三陽洞 공동바다로, 3·4반 해녀들은 錢屹

洞 공동바다에서 나잠업을 하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셋바람이 부는 날이라 삼양동 공동바다에는 작업을 할 수 없었으나 전흘동 공동바다는 셋바람 의지되는 곳이기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삼양동 공동바다에서 나잠업을 하는 주흥동 1·2반 해녀들은 하는 수 없이 자원이 시원치 않은 주흥동 구역 1종어장에서 해녀작업을 해야 했고, 2·3반에 거주하는 해녀들은 전흘동 공동바다로 가서 해녀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셋바람이 불면 三陽洞 飛陽洞 上下古水洞 迎日洞 해역에서는 나잠업이 안 되고, 하늬바람(東風)이 불면 錢屹洞 周興洞 上下牛目洞 해역에서는 나잠업을 할 수 없다.

제 3 절 漁 撈 技 術

牛島에서 해녀들 나잠업을 제외한 남성들만이나 男女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어로기술 관행들은 기술관행에 따라 낚시, 그물 그리고 採藻 별로 나뉘어 살핀다. 지금까지도 전승되는 기술관행은 현장조사에 의존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어로기술관행들은 村老들 증언에 따른 간접조사 방법을 빌렸다.

1. 낚 시

1) 저립(재방어) 끌낚기

漁場 : 저립은 이동성 고기를 쫓아 우도 연안 가까이까지 몰려들었다. 요즘에 이르러 집어등을 켜놓고 들망으로 보다 먼 바다에서부터 移動性 고기인 고둥어 ‘각제기’ 멸치 등을 마구 잡아버리는 바람에 우도 가까운 연안까지 예전처럼 저립은 많이 몰려들지 않는다. 1986년도, 그 당시 舊左邑演坪出張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립어획량은 3톤이라고 했다(자유판매 어획량은 불확실). 지금도 끌낚기를 갖고 있는 어부는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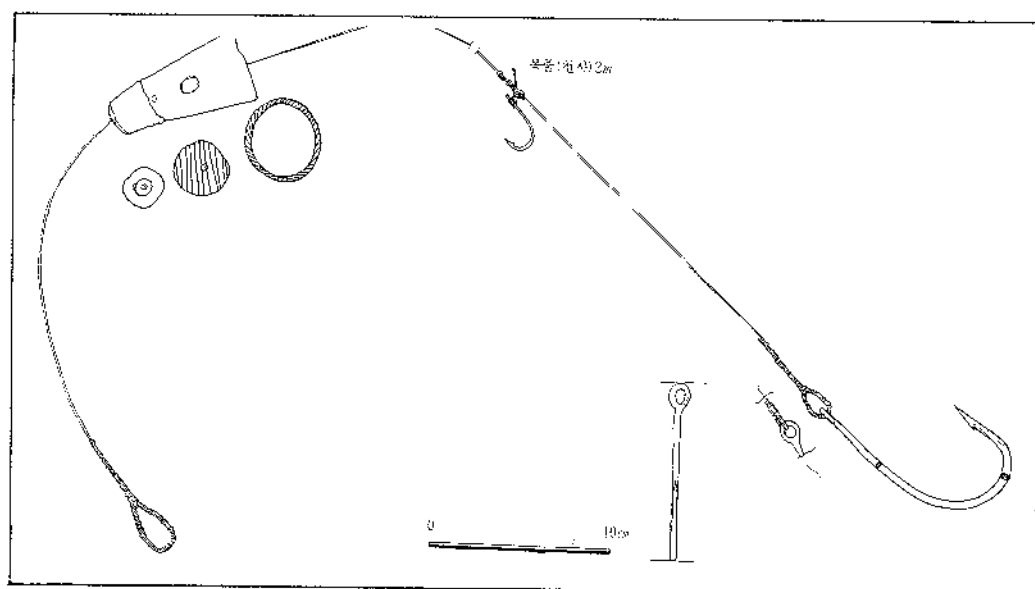
濟州島 내에서는 西歸浦市 甫木洞에서 저립끌낚기가 확인되나 저립끌낚기는 제주도 중에서는 우도를 짊는다. 우도 저립 어장은 두 군데다. 우도 북쪽 ‘박머

리'에서부터 '새비툼여' 뒤흘까지 이어지는 일대 어장과 牛島 등대 밑 迎日洞 해역인 '너른지'다. 이 두 곳 중에서도 '박머리'가 主漁場이다. 이곳들은 한결같이 우도 내에서도 潮速이 가장 급한 곳이다.

漁期 : 음력 5월 20일경부터 약 9월말 霜降日 전후까지다. 5월달에는 자그마한 저림(이를 '꼭저림'이라 함)이었다가 7, 8월에는 최성어기이면서 저림도 150kg 내외의 무게를 갖는다.

물때 : 간만의 차가 느슨한 '조금' 기간보다는 간만의 차가 드센 '워살' 동안에 더 잘 잡힌다. 물살이 세어야 좋다. 주로 낮 동안에 낚으나 달 밝은 밤에도 낚는다. 어느 때건 물발이 세찰 때라야 좋다.

漁具 : 두툼한 본줄 200여발에다 목줄 2m 철사줄에 낚시를 달아맨다. 낚시로부터 25cm 위에 자그마한 낚시를 매단다. 덧달아맨 낚시는 본낚시에 낚 미끼를 위에서 다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줄이외의 저림낚시

지난 날에는 주로 갈치만을 미끼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위에 납덩이를 박아 고정시킨 쇠뿔이 부착되어 있다. 쇠뿔 양쪽으로는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소라나 전복껍질을 박는다. 바로 이것은 저림으로 하여금 고기(미끼)의 눈이라고 눈가림하기 위한 것이다.

저립 낚시에 부착되는 쇠뿔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다. 세 살쯤된 살아 있는 수소 뿔을 뽑아 만들어야 한다.

* 이것도 옛 어른들은 죽은 소뿔은 사용을 앓고 산 소뿔을 뽑주게. 빗깍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산 놈의 뿔을 뽑아야. 그것도 암소뿔이 아니고 부렁치뿔. 부렁치뿔이 오그라지지 아니해영(휘어지지 않아서) 곱게 나가거든. 암소뿔은 대부분 오그라지기 때문에 못써. 부렁치뿔도 늙은 쇠뿔 전 쥐색이 일어가지고 안 되고 세 살(세 살)이나 네 살된 놈은 뿔이 반질반질한다 말이우다. 그런 걸 뽑아야 되어 <周興洞 尹能洙>.

미끼: 미끼에 따라 그 쓰임이나 漁法이 조금씩 다르다.

① 갈치: 지난 날에 주로 사용했던 미끼였다. 갈치를 반으로 토막내어 머리쪽으로 내던져 버리고 꼬리쪽만 사용한다. 이때 소뿔은 바로 갈치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갈치를 통째로 띄면 저립이 꼬리만 잘라먹고 내뺨는 일을 극소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듯하다.

② 만백이: 근래에 개발된 미끼다. 배 물간에 '만백이'를 살려뒀다가 산채로 낚시에 끼어 미끼로 삼는다.

③ 고등어: '만백이'미끼를 구하지 못했을 때 고등어로 대신한다.

漁法: 미끼를 달아맨 낚싯줄을 물 속으로 드리워놓고 배를 이동시켜줘가며 낚기도 하고, 또 닻을 드리운 채 배를 고정시켜 놓아 낚기도 한다. 앞의 漁法을 '홀림배기', 뒤의 漁法을 '닻배기'라 한다.

미끼에 따라 漁法도 다르다. 홀림배기에서는 갈치를 미끼로 삼고, 닻배기에서는 살아 있는 '만백이'나 고등어를 미끼로 쓴다.

또 漁法이나 미끼에 따라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가 다르다. 갈치 미끼를 이용한 홀림배기에서는 해뜨기 전(이때를 '복새'라 함)과 해질 무렵 그리고 달밤에만 낚고, 닻배기에서 고등어를 미끼로 할 때는 밤에, 그리고 '만백이'를 쓸 때는 낮 동안에 낚는다.

홀림배기 동안에 저립이 물면 저립은 배를 끌고 가게 배를 흘려주고, 닻배기 때는 배를 고정시킨 채 미끼를 달아맨 낚싯줄을 흘려내버려 뒀다가 고기가 물면 힘을 내어 낚싯줄을 잡아당긴다.

미끼에 따라 漁法과 시간대가 다르다. 20여년 전까지는 갈치만을 미끼로 삼다

가 그 이후부터 살아 있는 ‘반백이’와 고등어를 미끼로 삼았다. 미끼에 따른 漁法의 변천사를 짐작케 한다.

2) 갈치 낚기

濟州島에서 갈치를 낚는 데는 두 가지 漁法이 전승되어 왔다. 하나는 거의 배를 고정시키다시피하여 낚는 어법이다. ‘푸끔술’ 또는 ‘물음갈치술’이라 하는 손줄낚기¹⁴⁾. 또 하나는 배를 흘러줘가며(2노트 정도의 속도) 낚는 끝낚기 漁法이다. 우도에서는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킨 채 손줄낚기로 갈치를 낚는 일은 없다. 갈치는 온통 끝낚기로만 낚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낚고 있다. 牛島사람들은 이와 같은 갈치 끝낚기를 두고 ‘홀치기’ 또는 ‘끄솔퀴’라 한다.

* 우도 사람들은 배를 2만이 세왕(가만히 세워) 낚으지 않고 배를 돌리멍만(달리면서만) 낚읍니다. 또 성산(城山)·오조(吾照)·시흥(始興)·종달(終達) 사람들은 닻 주영 배를 세왕 낚으지 배를 돌리멍 낚으진 아니하고, 우리 식으로 낚으는 게 하영 낚읍네다(많이 낚지요). 왜냐, 갈치가 2만이 있는 과거가 아니난(가만히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東天津洞 申仁弘〉.

漁場 : 이동성 고기이기 때문에 牛島 연안 어디에서건 잡힌다.

漁期 : 8월 추석 전후에서부터 霜降日까지다. 漁期 중 하루 동안에도 시간을 가린다. 日出沒 전후마나 약 2시간반 동안이나 달이 밝은 날 밤에 낚는다. 前者를 ‘해차구’(또는 해거름), 후자를 ‘돛차구’(또는 돛지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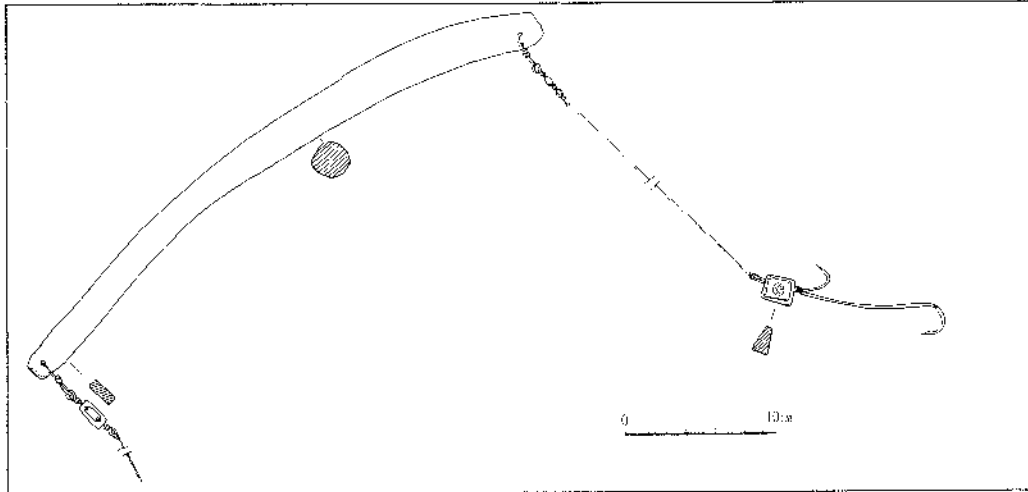
물때와 航海方向 : 물때를 가리지 않으나 갈치 끝낚기에서는 항해 방향이 중요하다. 潮流의 방향으로 航進하지 않는다. 그 반대 방향으로나 아니면 조류 방향의 가로에서 세로로, 세로에서 가로로, 지그재그로 항진한다. 항진 속도는 보통

14) 갈치는 이동성 어족이다. 갈치를 낚는 손줄낚기 어로기술관행은 필바다나 걸바다 어에서 전 이뤄진다. 닻을 드리워 배를 고정시킨 채 낚는다. 낚싯줄을 드리워 놓고 손으로 줄쫓아 줄쫓아 돌려준다. 이 행위를 두고 ‘푸끔다’라 한다. 갈치를 낚기 위한 손줄낚기를 두고 ‘푸끔술’이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어로관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갈치들이 물어주는 水深上 자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지점을 두고 ‘마리’라 한다. 그 ‘마리’를 찾으면 그 수십만큼의 줄을 발에다 휘어 감는다. 그 낚싯줄 끝이를 ‘마리’에 맞춰 고정시킨다.

2노트, 낚시줄이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가도록만 유지하면서 항진속도를 조절한다.

漁具：



갈치 끌낚기(홀치기 또는 꼬슬퀴)

牛島 갈치 끌낚기 漁具도 변천사를 갖고 있는 듯하다. ‘팽돌’(낚시추)이 지금 처럼 낚시 바로 위에 ‘고지돌’로 쏠려 있기 전에는 줄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납덩이를 달아매었다고 한다. ‘고지돌’이나 자잘한 ‘납덩이’는 모두 줄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낚시추 기능을 한다.

* ‘꼬슬퀴’ 낚시줄이 보통 열다섯 발이면 되는데, 〇숫발까지는 줄 중간중간에 납을 박음네나. ‘고지돌’ 매기 전에는, 고지돌이나 납은 줄이 불 우터레 뜨지 말라고 해서 돌아맨 거지요. 경향다가 촌 촌 발달되어가니 수십년 전부터 ‘고지돌’이 나왔어요 <上古水洞 金尹>.

고지돌의 중량은 2.5~2.8kg 정도. 조금은 휘어지게 만들었다. 휘어지게 만들어야 낚시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휘어지며 들어가기 때문에 낚시는 본줄에 와 얽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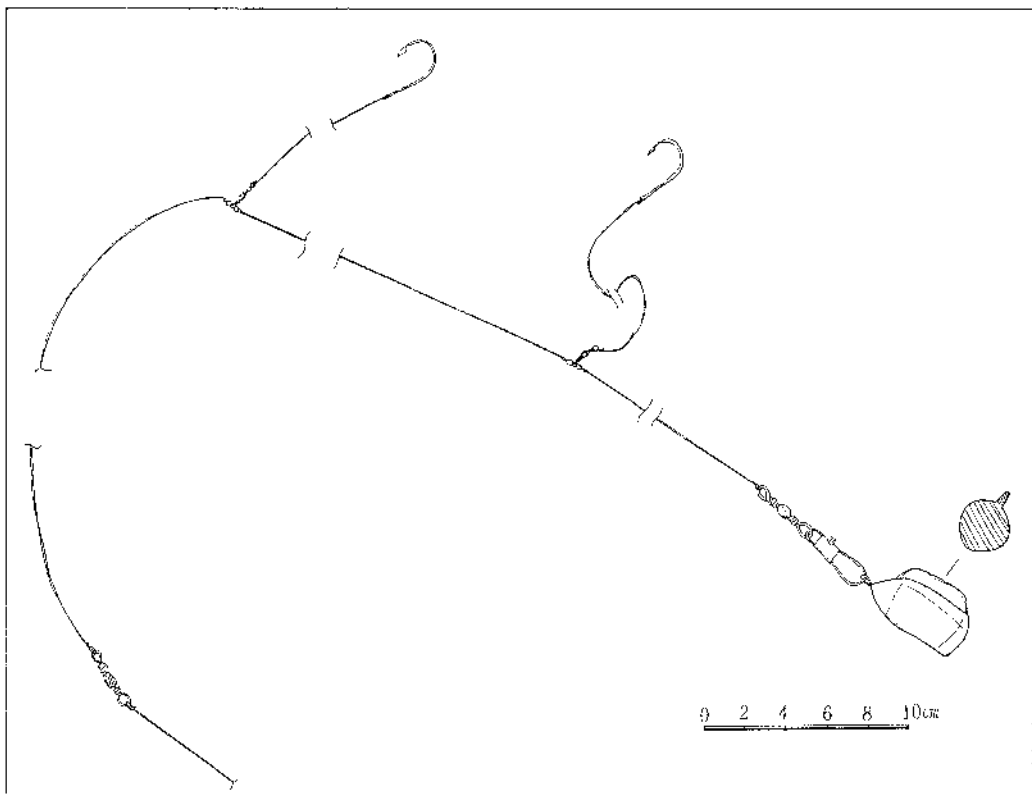
* 왜 휘었느냐, 휘 것도 이유가 있는 겹주(게지요). 휘지 아니해영 곧장하민 낚시 기 술에 오랑 감아져마숨(줄에 와서 감기지요). 경후 덕분에 고지돌이 휘어지면 바스늬이 들어가니까 낚시가 줄에 왕 걸리지 안흠주(와서 걸리지 않아요) <東天津洞 申允弘>.

미끼 : 갈치꼬리 · 고도리 · 문어발 등 갈치는 미끼를 씹 가리지 않는 魚種이다.

3) 구름쟁이 손줄낚기

‘구름쟁이’는 다금바리와 구별이 잘 안 될만큼 엇비슷하다. 고기 등어리에 세로로 금이 나 있다. 주낚으로도 낚으나 죽은 미끼를 꺼리는 고기이기 때문에 보통 손줄낚기로 낚는다.

하루에 평균 17kg (도매가격 kg/23,000원)을 낚는다.



구름쟁이 낚시

漁場 : 연안 해저 低質의 돌밭으로 이뤄진 곳에서만 사는 정착성 어종이다. 이와 같은 저질 조건 바다밭을 두고 '어덕'이라 한다. 어덕에 서식하는 고기라고 하여 '어덕고기'라 한다. 주로 수중 암초인 여만을 쫓아다니며 낚는다.

漁期 : 4절 낮 동안.

물때 : 잘 가리지 않는다.

漁具 :

미끼 : 살아 있는 미끼만을 고집한다. 지난 날에는 살아있는 자리돔을 미끼로 사용했고, 지금은 '각제기'를 미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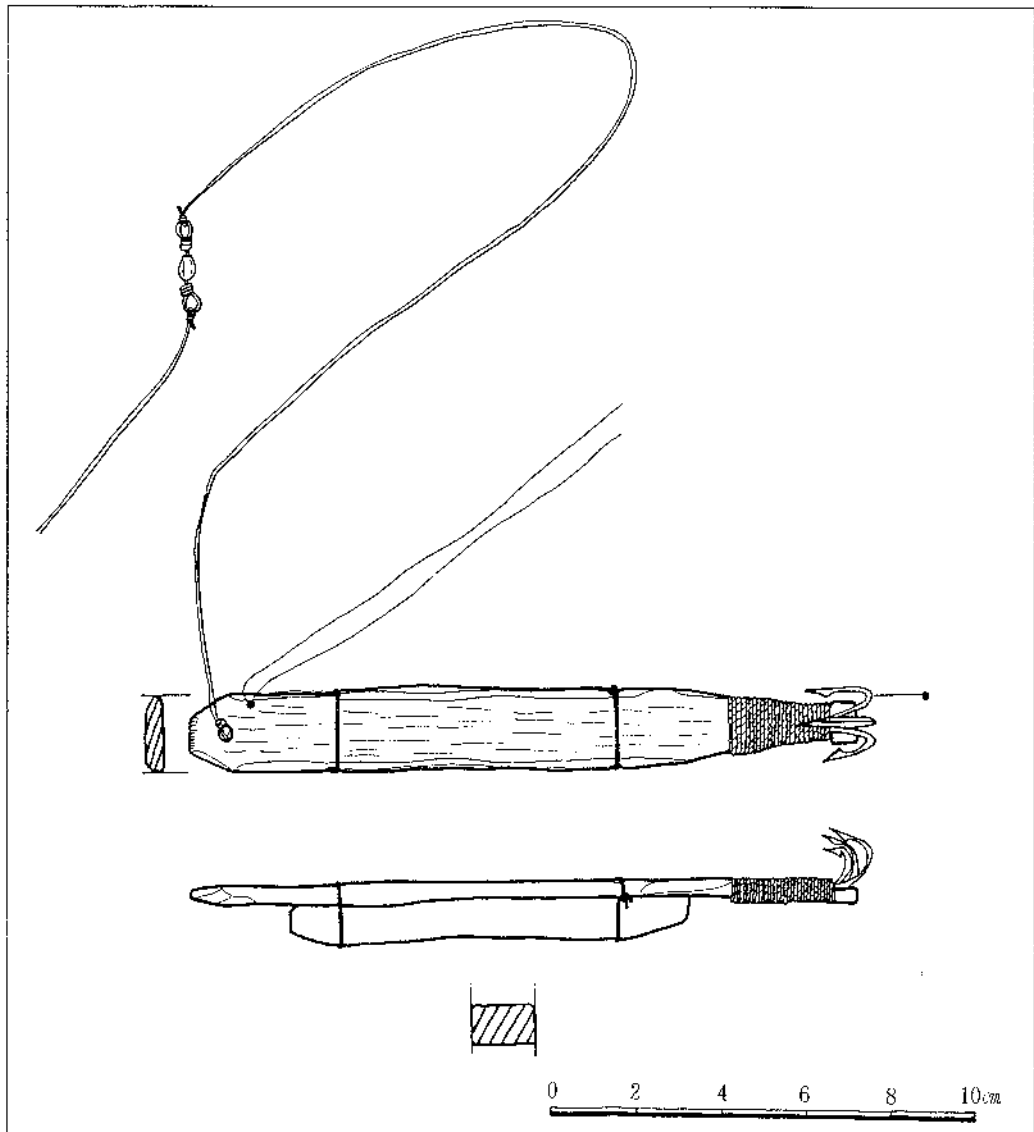
4) 문어 끌낚기(뭉게 삼봉)

漁場 : 낚시를 海底面에 닿게 하여 끌어주며 낚는다. 문어가 돌덩이나 암반이 깔려 있는 바다(어덕, 절바당)에 서식 않는 것은 아니나, 문어 끌낚기는 넓미역 자생지에서만 행해진다. 그 해저면에는 넓미역과 공생관계인 자잘한 자갈(이를 마을 사람들은 '넓미역 작지'라 함)이나 그 모래밭이다. 그래서 넓미역 채취어장과 문어 끌낚기 어장은 같다. 주로 그 어장과 보다 가까운 上下牛目洞 어빈들에 서만 전승되어 왔다. 지금도 간혹 문어 끌낚기가 행해지기도 하나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문어통을 이용한 陷穽漁法으로 문어를 많이 잡고 있다.

漁期 : 봄 가을에 문어 끌낚기를 해왔다.

漁具 : 문어잡이용 끌낚시를 두고 '뭉게삼봉'이라 한다. 납덩이와 대나무를 부착시켜 철사로 감아 고정시킨다. 대나무 끝에 낚시 세 개를 실로 탄탄하게 감아 묶었다. 미끼를 감아 묶기 위한 가느다란 철사도 부착되었다. 미끼를 대나무 위에 놓아 이 철사로 감아 묶는 것이다.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목줄(아리)을 고정시켰고 목줄은 회전고리에 연결된다. 회전고리는 다시 원줄에 연결된다.

미끼 : '각제기'나 '어렁이'를 쓴다. 문어가 여러번 물어 뜯어가면 미끼 신선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새로 간다. 자잘한 문어를 낚아 그 가죽을 벗겨두고 미끼로 쓰기도 한다. 끌낚기도구만 들고 바다에 나가 하얀 형질을 낚시에 묶어 문어 한 마리만 낚으면 그것으로 문어 미끼를 삼기도 한다. 문어 미끼는 하루 종일 두어 번만 미끼를 갈아주면 될 정도로 질겨서 좋은 점도 있다.



문어 낚낚기(몽게삼봉)

漁法 : 潮流 따라 배가 살살 흘러가도록 닻을 드리워 닻줄로 船速을 조종하며 항진한다. 선속이 빨라져버려 낚시가 底面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어가 와서 낚시에 걸려지면 줄이 팽팽해진다. 보통은 한 마리, 많으면 두세 마리까지 한 낚시에 걸려드는 수도 있다.

5) 상어 주낙

漁期 : 봄과 가을.

漁具 : 보통 주낙과 같으나 낙시가 무척 크다.

미끼 : 고도리.

對象魚 : 죽상어 · 가시상어 · 점백이상어 · 모도리 · 박게 등.

6) 동치 낚기

錢屹洞 해안 지명 중 '동치코지'는 바로 '동치'를 즐겨 낚는 '코지'(岬)라는 말에서 말미암는다.

2. 그 물

1) 족바지

바닷가 일정한 구역에 돌담을 築造해 놓고 밑물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둔 곳을 원이라 한다. 원 안으로 물려드는 主魚種은 멸치이나 멸치를 따라 다른 고기들도 물려들 때가 있다. 원 안으로 물려든 멸치는 '족바지'로 떠잡고 그 이외 고기들은 맨손으로 또는 작살을 날려 쏘아 잡았다. 20여년 전부터 濟州島 연근해 먼바다에서부터 집어등을 켜 들망으로 이동성 떼고기들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원은 그 자취만 남아 있고, 원에서 사용했던 최소형 그물인 '족바지'도 필요없게 되었다.

족바지는 Y字 모양의 소나무가지를 손잡이로 삼고, 휘어지는 성질이 강한 대나무를 덧붙여 둥근모양 테두리를 만든다. 테두리 재료는 참나무로 대신하는 수도 없진 않다. 이 테두리를 '어음' 또는 '에음'이라 한다. 거기에 그물을 끼워 달아 맨 것이 '족바지'다.

어로공동집단들바다 그들 바닷가 연안에 인공적으로 돌담(원담)을 쌓아 원을 만들기도 했고, 또 썰물이 되어버리면 불용덩이를 이뤄 천연적으로 원이 형성되는 곳이 있다.



원(垣), 일명 개는 즐거운 추억거리를 주는 곳이었다. 한여름밤 소임이 '멜들었저'하는 외침에 족바지를 들고 뛰던 일이 눈에 선하다.

우도 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담의 實測과 형태 등이 파악되어야 마땅하나 紙面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어로집단마다 원 이름과 한 어로집단(飛陽洞)의 원어로관행을 살피는 것에 한한다.

어로집단	원 이름	조 건	비 고
東 天 津 洞			浦口 확장으로 매립
西 天 津 洞	죽통(빅게통)	천 연	천연적인 원인데, 죽상어 産卵場 ¹⁵⁾
下 牛 日 洞	큰 원 족 은 원	인 공 인 공	

15) 한 세보자(申仁弘)의 證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둔다.

* 보리 누룽누룽해가면 죽이 새끼치레 불통 2뜯더 이십 3리씩(같은데 이십 마리씩) 떼지영 올 때가 있어. '죽통'이엔 혼 더가 있어. 죽이 들물에 들어왕 물나 가불민 가두 와정 사름들이 들어강 맨손으로 심어. 우리 육은지 후에도 혼해났어. 보리 누룽누룽할 때 비나 와남을 후민 우선 그레 가봐. 죽이나 오라시키브덴(왔는가 싶어서). 우리가 잡아봐도 죽 숫눈은 귀해여. 열 개를 잡아봐도 아홉 개는 다 알늬. 새끼도 하나 두 개만 안 버고 이십 개씩 배어. 이 '죽통' 있는 일대를 '진개'라고 하여.

어로집단	원 이름	조 건	비 고
周興洞	죽은원 청년원	인공 인공	집단에서 청년들만이 운용, 공금을 마련하던 원(약 40여년 전).
錢屹洞	죽은원 큰원 물썬원	인공 인공 인공	
三陽洞	답다니원 자락원	인공 인공	
上下古水洞	앵목개원 큰개원 박하르방개	인공 인공 인공	원담 35m에 700여평 원담 길이 60여m에 2000여평 ㄴ字型 70m에 2500평
飛陽洞	서뚱머흘원 동뚱머흘원 모살비양원 볼래낭알원 한와지원	인공 인공 인공 인공 인공	일명 '물짚은원'이라 함.
迎日洞	너른구미원 석은구미원 모살개원	인공 인공 인공	원담 30m에 80평 넓이 원담 20m 정도에 40평 넓이 원담 40m 정도에 100평 넓이

飛陽洞 거주 康基鉉(남. 65세)씨 증언에 따르면, 공동어로집단 구역내 원들은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보수했었다. 원 運用慣行은 변천되어 왔다. 제보자 기억으로는 원담은 공동으로 보수하나 원안에 든 고기는 개별적으로 잡았다. 그 이후에 '소임'(所任)제도를 도입, 집단에서 선임한 소임이 수시로 원 안에 고기가 몰려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몰려들었으면 어로집단 공동으로 잡아 분배했었다. 한 호당 한 사람이 나와 원안에 몰려든 고기를 공동으로 잡고 분배할 때 소임에게는 한 짝을 더 줬다. 원 어로공동관행이 시들해지면서 공동어로집단에서는 원운용관

리권을 동네 일부 성원들에게 팔기도 했었다.

* 우리 어린 때 보민 방어도 많이 들어와났고, 멜 딱라온(멜치 따라온)거 손으로도 잡곡, 그물 작살로도 잡곡. 그때는 원에 멜(멜치) 들어온 거 본 사름이 임재(인자).

경하다가 집단 부락이니까 소임(所任)이라고 셔낫우다(있었드랬지요). 멜 들었을 때 이것을 관리합니다. 관리해가지고 멜 들어오면은 호당(戶當) 혼 사름씩 나와서 동네에서 뱀을 '썩마지'로 잡아올리면은 혼 부근에 일단 뱀(멜치)을 모이도록 합니다. 모여가지고 갈릅주. 소임에게는 혼 적을 더 쫓어.

경하다가 사름덜이 놈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욕심이 생겨가니까 다른 사름에게 관리권을 팔기도 해낫우다 <飛陽洞 康基鉉>.

2) 멜치 후림그물

조직 : 周興洞 1개 조직망과 上下古水洞과 飛陽洞을 합하여 1개 조직망이 있었다. 2개網이 하루씩 교대해가며 작업을 했다.

漁場 : 개와당.

漁期 : 여름과 가을.

물때 : 만조 때.

* 들물이 나면 '한와지붕우지'에서 이 개와당 안터레(안으로) 물을 담겨든. 게민 뱀이 불조류를 뜬랑(따라) 이 안터레(안으로) 막 들어오거든. 게민 이딴 물이 만조(滿潮)되기 직전에 바깥터레(밖으로) 나가블거든. 그 전에 그물로 가두와야 되는 거라 <飛陽洞 李成雨>.

그물과 運用 :

* 옛날에 이 '개와당'에는 뭐를 잡았는고 하니까, 멜치. '후리'라고 하지요, 후리. 여름 가을로 저녁 때쯤 뱀이 들어오면은 풍선에 그물을 나눠 실읍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밤에 멜때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불켜서도 멜때를 못보는 것이고, 뱀이 노는 무리를 좇으려고 하면은 발로 뱀창을 탁 쳐본다 말읍니다. 뱀창을 탁 치면은 멜 수룩이 많이 있는 디서는 불빛이 올라옴주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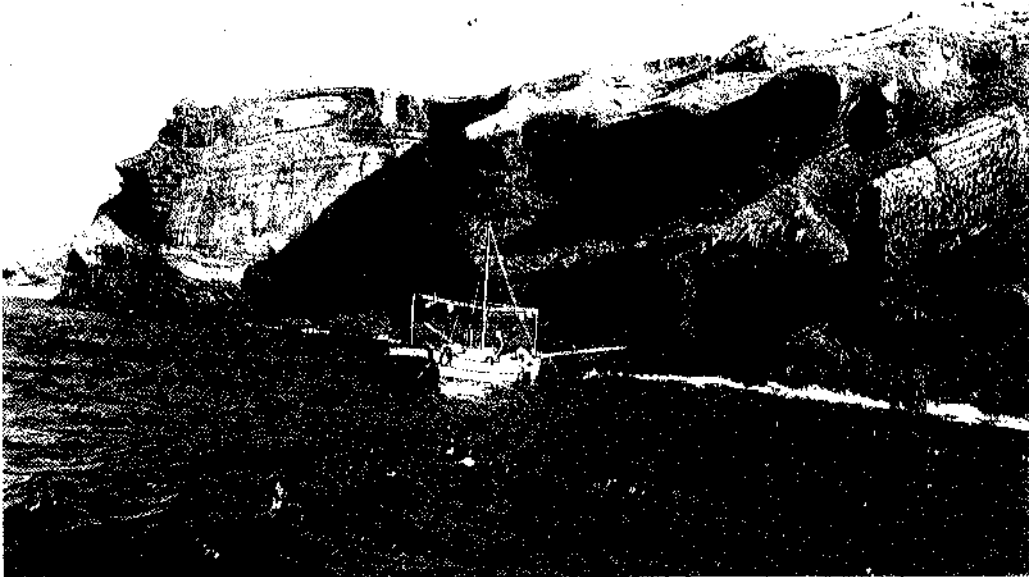
그러면,

‘여기가 멸이 많이 묻혀져 있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포위하는 것이지요. 가두면 최종적으로 그곳에다가 닻가지불 붙여 가지고 이 그물을 땡기는 겁니다 <飛陽洞 康基鉉>.

3) 자리그물

漁場：자리가 서식하는 어장을 ‘자리밭’이라 한다. 자리가 서식하는 자리밭은 거의 水中 暗礁인 ‘여’들이다. 자리밭은 牛島 전연안 해역에 띄엄띄엄 있다.



‘자리’는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한다. 지금도 자리는 재래식 방법에 의해 잡지만 태우가 동력선으로 바뀌었다.

우도연안 자리밭 일람표

海 域	漁場(자리밭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능
迎 日 洞	1. 보섭봉우지앞여	2	滿潮(물쭈)	不必要
	2. 보섭봉우지뒷여	10	滿潮(물쭈)	不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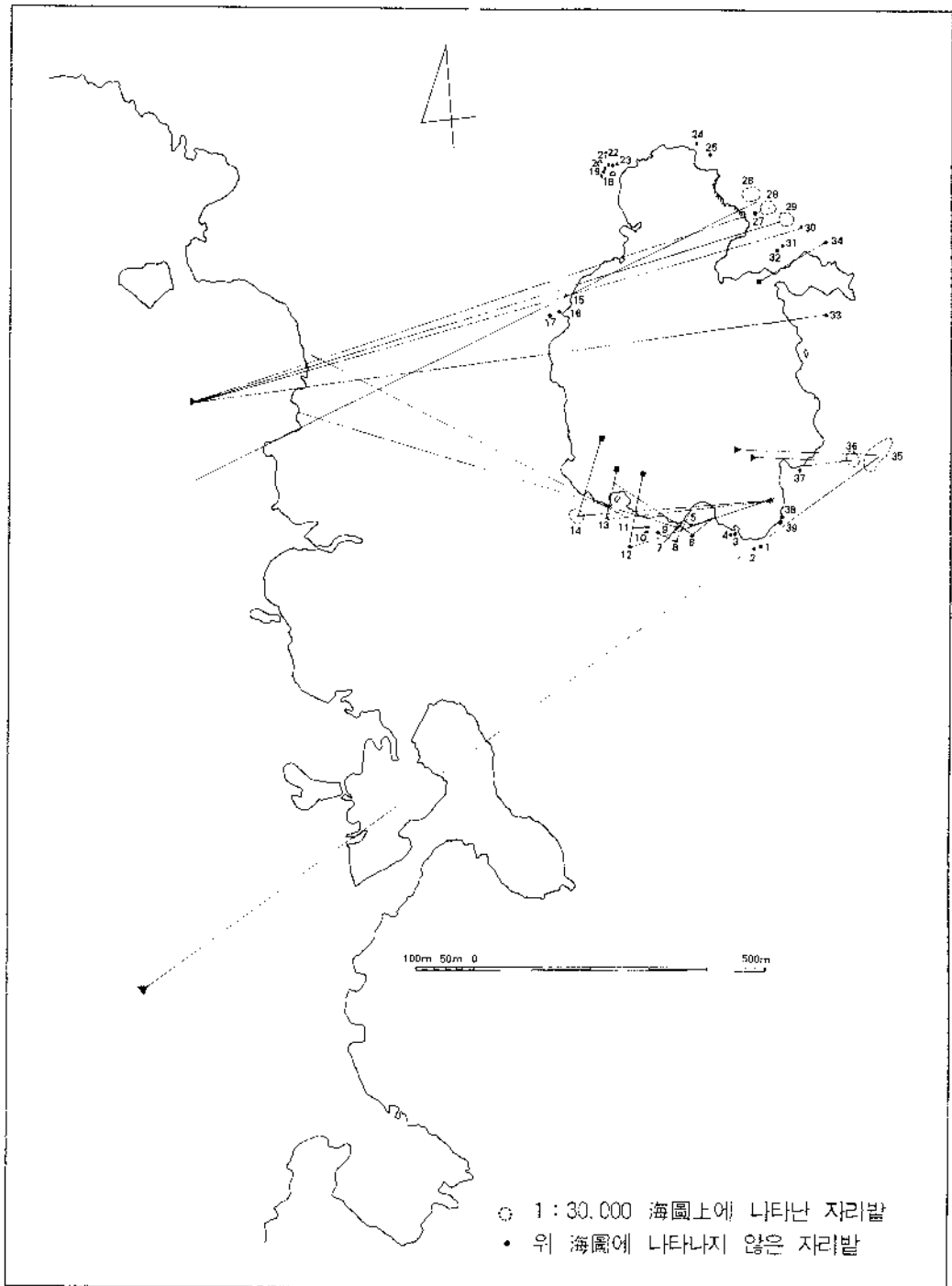
海 域	漁場(자리밭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능
東天津洞	3. 쌀맞인개새붕우지여(東)	1	下潮(죽인물)	不必要
	4. 쌀맞인개새붕우지여(西)	1	干潮(죽인물)	不必要
	5. 안밭여	1	밀물과 썰물돌런지	左/매눈코지 右/톨까니영
	6. 베깃밭여	2(5)	밀물과 썰물돌런지	左/매눈코지-동네전봇대 右/톨까니영
	7. 꿀정여	1	밀물과 썰물돌런지	左/넙데기코지-下道모래밭 右/바다路 層階
	8. < 실머리	1	밀물과 썰물돌런지	左/無 右/바다路 層階
	9. 장옥이야방여	1	上同	上同
	10. 불 락여뒷여	1	上同	上同
	11. 불 락여앞여	1	上同	上同
	12. 만금이야방여	2(7~8)	上同	左/동네 한 집 右/광대코지-등대
	13. 하늘이앞여 (海女 : 등말여)	2(7~8)	上同	左/리사무소 나무 右/안구석-등대
西天津洞	14. 넙대기큰여	1(5)	上同	左/집(김상학씨宅) 右/길-등대
下牛木洞	15. 북돌코지	1	돌런지(15분)	不必要
	16. 코짚여	1	돌런지(15분)	不必要
	17. 번짚여	1	썰물	不必要
錢 屹 洞	18. 넙덕여뒷쪽	1	웨살썰물	不必要
	19. 반넙딕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0. 밧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1. 셋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2. 두린새비여	1	웨살썰물	不必要
	23. 문하르망여	1	웨살썰물	不必要

海 域	漁場(자리맛 이름)	여의 크기 網(舊式)	물 때	가 능
三 陽 洞	24. 박머리여 25. 닷다니여	3~4 1	조금썰물 조금썰물	? ?
古 水 洞	26. 난여 27. 죽은여 28. 숨은여 29. 등상여 30. 독진개 ㅂ루(여) 31. 바양 ㅂ루모살통바위 32. 한참봉여	3 3 3 2 1~2 1 2~3	들물 들물 썰물 양물 썰물 양물 썰물	수덕동산-지미봉 수덕동산-지미봉 수덕동산-지미봉 독진 ㅂ루담-지미봉 집 한 채-지미봉 不必要 不必要
飛 陽 洞	33. 똥내미여 34. 들물머리	7~8 7~8	웨살들물 조금썰물 웨살물돌아지	길-지미봉 물알가늌(모래) 한외지봉-우지-집(방자) 물알가늌(모래)
迎 日 洞	35. 너른지 36. 밧여 37. 산바우 38. 선돌들물팓 39. 선돌썰물팓	7~8 7~8 5 2 2	조금양물 웨살물돌아지 조금썰물 초들물 들물 썰물	左/선돌-소수산봉 右/뒗새비코지동산-백옴동산 左/뒗새비코지 모양 右/청십빌레-죽재비동산 不必要 不必要 不必要

漁期 : 우도에서만큼은 자리는 어느 정도 정착성 漁種으로 이해된다. 錢屹洞에서 경우 그 어기는 음력 4월에서부터 7월까지다.

물때 : 무수기(물때) 상 下滿의 차가 심한 '웨살' 때도 가능한 어장은 웨살 동안이라고 하나 潮速이 드센 곳으로 이해된다.

우도에서 전자는 東大津洞 연안 해역과 錢屹洞 '새비툼여' 동북쪽에 줄줄이 위치한 漁場이고, 후자는 三陽洞의 '박머리' 일대에 있는 두 곳 어장과 迎日洞의 '너른지'와 飛陽洞의 '들물머리' 등이다.



牛島 연안 자리밭과 '가늌'의 實在

‘썰물꽂’은 썰물 때만, ‘들물꽂’은 밀물 때만 그리고 ‘양물꽂’은 썰물 때나 밀물 때를 가리지 않음으로 이해된다. 자리그물은 조류를 이용하여 그물이 조류를 타고 흘러내리다가 수중 암초인 여 자락에 가서 살짝 기대고 있다가 자리가 물러들었다고 하면 건져내게 되어 있다. 때문에 우도에서 썰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밀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썰물꽂’에서는 여 동쪽으로, ‘들물꽂’은 여의 서쪽으로 그물을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漁具 : 제주도에서 보통 자리그물을 두고 ‘사들’이라 한다. 필자는 濟州 本島에서 네 가지 형태의 자리그물을 확인한 바¹⁶⁾ 있다.

①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 안 된 사들 : 그물과 손잡이가 분리 안 된 ‘꺾자’ 모양의 사들이다. 한마디로 족바지형 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지 손잡이와 그물이 기역(ㄱ)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② 손잡이와 그물이 분리된 사들 : 翰京面 高山里에서 조사한 바 있다.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혼자서 해안가로 나가 자리를 잡는 그물이다.

③ 돛대에 그물을 고정시킨 사들 :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돛대를 손잡이로 삼고 저기에다 걸어 그물을 바닷물 속으로 드리우고 떠올리며 자리를 잡는 사들이다.

④ 그물만 있는 사들 : 西歸浦市와 그 일대에서 전승된다. 자리사들이나 사들에 손잡이나 그에 걸맞는 돛대가 없이 직접 바닷속으로 그물을 쳐넣어 드리우고 당겨 잡게 된 사들이다.

우도에서도 자리잡기는 ③ 형태 사들이 보편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 錢屹洞에 거주하다 지금은 故人이 되신 禹奉孝씨가 개발해낸 속칭 ‘굴체사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우도에는 ③ 형태의 사들은 1個網, ‘굴체사들’은 6個網이 있다.

배 양쪽 이물과 고물에 여섯 발 정도의 굵은 대나무를 ‘굴체’(삼태기)처럼 조금은 벌어진 듯이 장치해놓고 그 사이에 그물을 장치한다. 대나무 이외의 것은 부거워서 잘 되지 않는다. 굵은 대나무를 釜山에서 구입해 온다. 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는 조정된다. 필자가 조사할 즈음에는 ‘굴체사들’은 漁期가 끝나버렸을 때라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

16) 고광민(1993) : 《濟州道誌》 “漁撈技術慣行” 편 중 자리그물 참조.

4) 상어그물

지금은 전통적인 상어그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상어도 귀하다. 村老들에 따르면, 지금 나이론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상어는 귀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飛陽洞의 漁民들에 의해서 상어그물은 행해져 왔다.

魚種 : 우도에는 상어가 많았던 듯하다. 村老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상어들이 다.

막쟁이 : 모도리 새끼를 두고 '막쟁이'라 한다.

찜뱅이 : 몸에 점이 박혀 있는 상어다.

어우네기 : 모도리와 같이 따라 다니는 상어인데 모양은 다르다.

백수 : 백상어의 토박이말인 듯하다.

귀상어 :

참상어 :

죽 : 죽상어인 듯.

뿔상어 :

漁場과 漁期 : 漁期에 따라 漁場도 바뀐다.

음력 7월쯤 멸치를 따라 연안 여기저기(특히 원)로 몰려들다가 10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는 우도 연안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소머리오름(우도봉 標高 132.5 m) 기슭 연안(특히 서우통)에 서성이다가, 봄이 되면 우도 연안에서 빠져나가 버린다. 飛陽洞 漁民들 사이에서만 상어그물 어로가 전승되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牛島 전 연안 중에서도 비양동 연안 해역에 그만큼 상어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지도 모른다.

* 음력 칠월쯤부터 '개와당'에 멜만 들어왔다 ㅎ게 되면은 그 멜(멸치) 좇아 가지고 상어때덜이 땡기다가(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라마썸(잡니다). 태위에 실르지도 못 ㅎ는 개 십네다. 그러민 줄에 돌아메어가지고 끄서옴주(끌고오지요). 끄서다가 '테웃개' 앞에다가 느런이 늘어놓게 되면은 줌 볼만해십주. 경ㅎ다가 구시월 농짓돌 섯톨되어가 민 등대 앞에 갑니다. 그 부근에 가민 ㅎ치¹⁷⁾ 덜이 이십주. 그런디 강 그물로 막앙놔두 민 상어덜이 그물에 들어마썸. 경ㅎ당(그러다가) 붙되민 나가블어 <飛陽洞 康基鉉>.

17) 해안조건이 살짝 灣을 이루는 듯한 곳을 두고 하는 말인 듯.

물때 : 干滿의 차가 심한 웨살 때가 좋다.

그물 : 現存하지 않아 증언에 따랐다. 상어그물을 만들어 위하여 울타리에 삼을 심었다. 삼 꺾질을 벗겨 그물을 엮고, '갈'이라는 흙으로 염색을 한다. 두툼한 그물의 윗줄(웃베리)과 아랫줄(알베리)은 짚으로 꼬아 만든다. 나무가 귀한 섬인 만치 바다 연안으로 떠밀려오는 나무를 주워다가 이어붙여가며 부표를 만들었다. 그물 아랫줄에는 띄엄띄엄 돌멩이로 봉돌을 만들어 달았다. 그물이 떠 도망가지 않게 별도 닻줄(이를 '공닷'이라 함)은 그물 한쪽에 묶어 커다란 돌덩이에 묶여있다. 그물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지 않고 물 위에 뜬 그물로 장치해 뒀다.

* 집 울타리 ㄱ뚝디(같은데) 삼을 싱거싱주, 그물 만들라고, 삼으로 그물을 만드는 데 삼 꺾데길(꺾질을) 잘 빨아가지고 하얗게 발해서 노꼬아서 염색홉네다. 옛날물감 원료가 '갈'이라고 하는 거. '갈'이 그거 황토처럼 생긴 건데 잘 개여지지도 아니 해여마썸(생긴 것인데 잘 개지지도 않지요). 그거 녹여가지고, 염색해여가지고 그물을 만듭니다.

요샌 나이롱으로 만든 버국(浮漂)덜이 많이 나오주만은 그때는 낭으로(나무로) 만든 버국이 주로 올라옴디다. 옛날은 버국이 바람이 불면은 조류에 따라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민 역불 주으레(일부러 주으려) 다닙니다. 봐지민 뒗치 봉가와서(뒗처럼 주워다가) 이것을 쪼가리 쪼가리 새겨가지고(이어붙여서), 대로 쑤으면서 이 녹음기 정도 뻘들아가지고 중간중간 웃베리(윗줄)에다 북으고, 아래는 짚으로 새깃줄 노꼬와서 중간중간에 돌을 돌이맷주(달아매지요).

그것을 뜬그물로 칭 내브는 거라마썸(쳐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민 '공닷'이엔 혼걸 뭍읍네다. 공닷은 쇠줄. 공닷은 큰 돌에 묶으고 그물을 놓는 거라마썸(飛陽洞 康基鉉).

1908년 일본인들에 의해 이뤄진 《韓國水産誌》 1권 270쪽에는 그 당시 濟州島 일원에서 성행되었던 상어그물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돋보인다. 그 당시 우리나라 본토에서는 상어를 주낙이나 손줄낙기로만 낚고 있었지만, 濟州島에서는 그물로 잡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하여, 상어그물 구조를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물은 線絲다. 굵기 9.15cm(五厘), 그물 눈은 18cm(五寸), 그물 길이 14.4~

19.8m(8尋~11尋), 그물 폭은 75cm(2尺~5尺)이다. 浮漂는 구상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4.5cm(1寸5分)이고 폭은 3cm(1寸)이다. 이것을 15cm(1尺5寸) 간격으로 달아맨다. 봉돌은 34.5g돌이다. 그 길이는 약 50cm(1尺5寸). 이를 새끼줄에 묶고 1.16~1.54m(3~4尺) 간격으로 달아맨다. 그물 알줄은 짚으로 꼬아만든 줄로 그 굵기가 0.75cm(2分5厘)이고, 그물 윗줄은 종려나무 껍질로 만들었는데, 0.6cm(2分)이 된다.

灣內나 연안, 그리 멀지 않은 수심 7~8m되는 곳에 이 그물을 3~4網을 이어붙여 암초와 모래밭 사이에 그물을 드리워 놓는다. 그 그물이 드리워진 곳을 표시해두기 위하여 별도의 줄에다 부표를 달아매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를 잡아당긴다.

5) 불락 그물

자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 우도 내에서도 飛陽洞 漁民들에 의하여 행해져 왔다. 자금은 그물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불락그물에 잠시 종사했던 한 제보자(飛陽洞, 康基鉉)의 口傳에 따라 간접조사했다. 불락그물로 잡는 主對象 魚種은 망치와 불락이다. 망치도 ‘외망치’와 ‘생망치’가 있었다. ‘생망치’는 멸종이 되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漁場 : 飛陽洞 근해 자리가 서식하는 수중 암초 ‘똥내미여’가 第一 어장이다. 우도를 한 바퀴 빙 돌아가면서 불락과 망치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며 잡았다는 증언으로 봐서 자리가 서식하는 여에서 불락과 망치 어장도 형성되었지 않았나 한다.

漁期 : 파도가 잔잔한 봄날.

* 봄에 이 포구를 나갑니다. 이 ‘똥내미여’에 가게 되면 자리도 많이 거리곡 불락도 많이 놀곡 흡주(놀고 하지요), 봄이 되면 바다가 불지 안습니까(잔잔하지 않습니까), 개민 불락 노는 것을 봐마썸(그러만 불락 노는 것을 보지요) <飛陽洞 康基鉉>.

그물 : 가운데는 품차고 양 옆으로는 좁혀지게 만든다. 물론 옷줄과 알줄이 있고 浮漂와 봉돌도 매달려 있다. 그물 전체 길이는 60m 정도.

그물의 運用 : 불락 떼를 확인하고 潮流 방향 반대쪽으로 그물을 드리운다. 대막대로 수중 暗礁인 여 바닥을 쿵쿵 올린다. 올림 소리에 놀란 불락들은 그물 안으로 꺾인다. 그물 옷줄은 보다 천천히, 알줄은 보다 빨리 당겨나간다. 牛島 한

바퀴를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아나간다.

* 풍선 두 척으로 해가지고 흰 척은 그물을 실르고(실고), 흰 척은 빈 배로 다녀. 불락이 이섬지 흰 디(있음 직한 데) 가서 불락을 보면은 물 역순(逆順)으로 가서 그 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불락 노는 것을 보고 예와싸면은 고기가 혼군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창(물밑)을 대막대기로 때려주는 거라마쌌. 물 우의만 때려주는 게 아니고 여에 돌바퀴를 툭툭 소리가 나게 때려주는 거라마쌌. 개민 고기덜이 겁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수륙이 그물에 가서 싸지민. 그물 옷줄은 촌촌히 땡기고(천천히 당기고) 알줄은 빨리 땡겨줘야 합니다. 경호명(그러면서) 불락을 거리면서 우도(牛島) 흰 바퀴를 빙 돕니다 <飛陽洞 康基鉉>.

3. 採 藻

1) 넓 미 역

牛島 인근해 제주도 최대 넓미역 어장이 있다. 한국 본토 연안에서 양식 미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은 넓미역을 캐어내지는 않는다.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도의 넓미역은 크게 각광을 받았었다. 한때 軍納하던 시절도 있었다.

바다 岩盤이나 돌덩이 위에서 자라는 돌미역이 여성들의 자떡질로 캐어내는 海藻類라면 우도 사람들이 속칭 '넓메역 작지'라고 하는 바다 속 하얀 자갈밭에서 섬유성 뿌리를 내려 자라는 넓미역은 남성들에 의하여 채취된다. 돌미역은 자떡질하여 호미로 베어낸다면, 넓미역은 배를 이동해가며 '갈퀴'라는 도구로 건져낸다. 간혹 보나 얇은 바다에 자라는 넓미역은 해녀들이 자떡질하며 건져내기도 하나 남자들이 갈퀴로 건져내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漁場: 濟州 牛島와 牛島 동쪽 사이 어느 쪽이나 1종공동어장 구역을 벗어난 公海다. 牛島에서 가늠점으로 볼 때 下牛目洞 해역 '큰모살넛기'에서부터 錢屹洞 해역 '툰겔' 사이다.

어느 쪽으로나 1종공동어장을 벗어난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우도 사람들은 물론 濟州 本島 사람들까지도 몰려와서 채취했었다. 채취를 시작하는 시기 결정은 넓미역 어장, 보다 가까이에 있는 下牛目洞 漁民들이다.

漁期: 음력 5월 말부터 6월 사이. 그 시기는 넓미역이 최고로 성장해 있을 때

이면서 조 파종이나 고구마 심기 등 밭일이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물때 : 물때를 가리지 않으나 넓미역이 조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못하여 곧장 서 있을 때보다 넓미역이 조류에 따라 비스듬히 쏠린 듯해 있을 때가 좋다.

* 물이 잘 때는 잘 걸리지 안흔다. 썰물이 되었건 들물이 되었건 비석이 들어누면은 갈퀴를 ㄱ로 끄시면은 갈퀴에 들어간 놈은 전부 걸려나오는 거라 <下牛目洞 鄭贊景>.

채취도구 - 갈퀴(또는 갈퀴리) : 필자는 下牛目洞에 거주하는 金千能·鄭贊景·金千壽씨의 도움으로 넓미역 채취도구를 직접 제작해봤다.

○ 차 : 갈퀴 몸통 부분이다. 밑부분에 홈을 내어 '넓메역쌀'을 촘촘히 박을 수 있게 홈이 나 있다.

○ 넓메역쌀 : 넓미역을 걸러내는 것이다. 11개 살을 만들고 보니 촘촘치 않아 하나의 살, 그러니 12개를 만드니 몸통인 '차'에 촘촘히 박혀졌다. 쌀은 가시나무 문짝을 쪼개어 만들었다. 간혹 윤노리나무(윤유리낭)로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단단한 나무여야 좋다.

○ 관제 : 차에 박힌 쌀을 단단히 묶어주는 끈을 '관제'라 한다. 보통 억새꽃의 겹질이나 '신사리'로 꼬아 만든다.

○ 불돌코 : 차 밑에 불돌을 달아매기 위하여 뚫린 구멍이다.

○ 불돌 : 갈퀴가 海底面에 닿도록 무게를 주는, 마치 낚시의 붕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돌이다. 돌끝로 쪼아 구멍을 낸다.

○ 옷코 : 차 윗부분에 뚫린 구멍으로 배 위에서 잡아 당기는 줄(원줄)을 피어 묶기 위한 구멍이다.

○ 목돌 : 차의 목 부분에서 바로 이 목돌이 무게를 실려줘야 줄을 끌어당기고 있어도 갈퀴의 몸통(차)이 들리지 않는다.

○ 원줄 : 배 위에서 갈퀴를 끌어주는 줄이다. 단단한 줄 30~40발 정도.

한 사람이 넓미역 한 철을 보기 위하여 갈퀴 3~4개를 미리 만들어둔다. 특히 살은 부러지는 일이 흔하매, 더 많이 만들어 놔둔다.

채취 : 한 척의 배에 보통 네 사람이 乘船, 한 조를 이룬다. 한 사람은 배를 적당한 속도로 항진하는 일을 맡는다. 세 사람은 각자 갈퀴로 넓메역을 건져 올린다.

* 갈퀴가 물 속에서 빙빙 돌주. 넓메역이 걸리게 되면은 이 쌀에 데깁 걸립주(쭈쭈히 걸리시요). 깨민 이 갈퀴 하나에 한 짐 <下牛月洞 金天壽>.

건조와 분배 : 배 한 척이 한 동아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네들도 자연 동아리를 이뤄 공동으로 건조한 후 똑같이 분배한다.

* 남주 어른덜은 배로 강 그걸 건져오민 부인덜은 그걸 널주게. 다 그걸 널거 아니라, 널민 이젠 또 비오람직하민 건영 들영 디겠당(걸어들여 덮었다가) 또 날 좋아가민 널영 불류왕(널어 팔려). 불류민 2찌(말리면 같이) 가온 뱃동서닐까리 갈르주게 <下牛月洞 金千能씨 부인>.

2) 거름용 海草(실겅이듬복)



실겅이 바닷 전경. 실겅이는 제주산 농산물의 거름용 해초였다. 金肥사용으로 토질의 산성화가 보편화된 지금에 한번쯤 되새겨 봄직하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濟州島에는 金肥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漁村 마을들에서는 거름용 해초채취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濟州島에서 보리를 파종할 때는 거름을 충분히 했고, 그 그루에 이어서 조를 파종할 때는 특별히 거름하는 일이 없었다.

牛島에서 보리밭 거름용 해초는 '실쟁이'·'고지기'·'노랑쟁이' 등이 있었으나 그중 '실쟁이'를 으뜸으로 꼽았다. 그만큼 '실쟁이'는 거름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쟁이'만은 해당 마을 해역별로 음력 3월 중에 채취시기가 합의되어 '許採日'이 결정되면 이웃들간에 組를 이뤄 개별적으로 채취했다.

漁場: '실쟁이'는 아무데나 있지 않았다. 우도 해역 내에는 소문난 실쟁이 自生地는 세 군데 뿐. 실쟁이 自生地를 '실쟁이바당'이라 한다.

① 周興洞 실쟁이바당: 牛島 내에서도 실쟁이 최대 자생지다. 지금 설치된 정치당 바깥쪽 일대 해역이 모두 실쟁이바다다. 周興洞 錢屹洞 三陽洞 사람들이 채취 시기를 결정하여 채취해왔다. 지금에 와서 보다 자원(특히 우뚝가사리와 소라 전복)이 빈약한 周興洞 사람들이 반으로 갈려 한쪽은 전홀동 바다로, 한쪽은 三陽洞 바다(공동바다)로 가서 換錢 가치가 높은 해산물을 채취하게 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② 飛陽洞 실쟁이바당:

③ 東天津洞 실쟁이바당: '만금리아방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일대 바다다.

採取 道具: '줄아시'라고 하는 커다란 낚이다. 지금 우도에서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줄아시를 확인할 길 없다. 현재 濟州大學校 博物館에 소장중인 줄아시는 낚의 너비 5.7cm, 그 길이는 378cm나 된다. 줄아시로 베어나가는 대로 '공쟁이'로 건져 올린다. 그 도구 크기만큼이나 줄아시 하나에 따른 작업 구성원도 많다.

採取 方法: 飛陽洞의 사례다. 하나의 줄아시를 기준으로 채취 조직이 편성된다. 실쟁이를 채취하거나 실어나르는 배는 모두 '테우'다.

採取 組: 3인이 한 배에 승선한다. 한 사람이 노를 젓고, 두 사람은 줄아시를 양쪽에서 운용한다. 줄아시 양쪽으로 줄이 매어져 있다. 잡아당겨나가는 대로 실쟁이는 베어져나간다. 베어진 실쟁이는 자연적으로 물 위에 뜬다.

* 줄아시로 하여서 양쪽에 줄 매어가지고, 한 사람은 테우 노 젓어주면은 테우가 앞으로 나갈 게 이넙니까, 가다가 실갱이가 날에 걸리면은 테우가 부겨워서 못나간다 말이우나. 게민 잡아차지요. 잡아차면 날이 있으니까 베어지는 겁주. 베어지만 물 우의 떠, 실갱이듬복엔 버끌레기(氣胞)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飛陽洞 康基鉉>.

運搬 組 : 6~8인. 2인씩 한 배에 승선하는 테우가 3~4척. 베어나가는 대로 물 위에 떠오르는 실갱이를 공쟁이라는 갈취로 건져 싣고 물으로 운반한다. 서너 척의 테우가 건져 운반하는 것이다. 운반하는 배를 '뒷배'라 한다.

* 뒷배, 실러나르는 배 서너 척이 공쟁이로 건집주. 시꺼당 '먹돌개'에도 푸국, '터웃개'에도 푸국 <飛陽洞 康基鉉>.

乾燥, 分配 : 대개 편성된 組의 부인들이 이를 건조한 후,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

3) 툇

해안 조간대층에서 자라는 툇은 牛島 11개 어로집단별로 그들 해역에서 공동으로 채취하여 공동으로 분배한다. 기준은 家戶다.

飛陽洞이라는 하나의 어로집단에서는 하나의 동네를 네개 반(班)으로 나눈다. 바다밭도 넷으로 나누고 반 단위별로 輪番으로 돌아가며 채취한다. 일정하게 바다밭을 나눈 해역을 두고 토박이말로 '구미'라 한다.

- ① 수늑바위
- ② 서똥머흘
- ③ 동똥머흘
- ④ 한와지

나눔의 기준은 그 길이라기보다 툇의 생산량에 따른 듯하다.

4) 風 藻

바람에 떠밀려오는 해초 일체를 '風藻'라 한다. 換錢가치가 있는 '감태'·'우뭇가사리'도 있고, '듬복' 등 거름용 海草도 있다. 풍조 채취 관행은 어로집단들

마다 조금씩 다르다.

〈西天津洞 1, 2班의 예〉

서천진동 1, 2반 30여가호 ‘들영코지’에서 ‘넛골알’까지가 西天津洞 1, 2班 해역 바닷가다. 바닷가 중에서도 ‘뚝내미구석’에만 집중적으로 풍조가 떠밀려든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班에서 채취하는 풍조의 95%). 섯바람(東風)이 불고나면 십중팔구 풍조가 밀려든다. 主채취대상물은 우뚝가사리와 감태.

약력 12월에 반 정기총회를 열어 반장 2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반장은 수시로 풍조가 떠밀려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반원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班員 공동으로 풍조를 채취해다가 건조시켜 공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한다.

판매금액으로 마을 운영비도 내고 도로도 보수하고 어버이날 행사비도 마련한다. 또 반장 보수도 지급한다.

그러다가도 돈이 남으면 가호당 나눠갖는다. '92년도에는 戶當 65만원씩 배당 받았다.

〈上牛目洞의 예〉

상우목동 해역 내에서 바다밭 나눔은 없다. 섯바람과 하늬바람에 풍조는 많이 떠밀려든다.

풍조 채취대상물은 환전가치가 있는 우뚝가사리·정각·감태 등이다. 공동으로 풍조를 채취하여 洞공동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가호(27戶)마다 나눠 갖는다.

班長이 바닷가 風藻를 관리한다. 그 값으로 해녀들이 간간이 채취하는 소라·전복·해삼 등 ‘헛무레’ 商權을 획득하기도 했다가 요근래에 이르러서는 年間 手當額을 정해 버렸다.

반장은 풍조가 떠밀려들었을 것이라 판단되면 작업량을 판단한다. 27가호는 평균 7호씩 4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1개조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개조만을 동원한다. 매일 그럴 경우에는 輪番制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가호가 총동원되어야겠다고 생각되면 온 동네 출동을 알린다. 알리는 수단은 스피커. 출동하지 못한 家口에는 시간당 일정액의 關金을 내야 한다.

채취한 물건은 건조시켜 차곡차곡 동네 공동창고에 보관한다.

'91년도에는 동네 공동자금을 제외시켜두고, 가호당 40만원씩 분배받았다.

〈飛陽洞의 예〉

풍조 구미 또한 넷으로 나눈다. 듬북은 가호별로 나눠 밭에 거름으로 쓰고, 감태는 반 공동으로 채취하여 팔아 班 共同資金으로 쓴다. 풍조가 보다 많이 떠오르는 구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해역도 있다. 때문에 전 해역을 네 개 구미로 다음과 같이 나누고 1년을 週期로 시계바늘 돌듯 돌아간다.

① 수늑바위 구미 : 上下古水洞과 分界点인 '섯모살'에서부터 '뚝비양'으로 들어가는 길목 서쪽인 '섯배수'까지.

② 뚝비양 구미 : '뚝비양' 전체

③ 터웃개 구미 : '먹돌개'에서부터 '줄락코지'까지.

④ 조른바위 구미 : '먹돌개'에서부터 '곰동산'까지.

飛陽洞에서 바람에 떠밀려오는 우뚝가사리 채취 관행만은 조금 다르다. 飛陽洞에는 전체 어로집단의 자금을 마련하는 '기성회바다'가 없다. 대신 연안에 파도 타고 밀려드는 우뚝가사리 채취권을 일정한 집단 사람들에게 팔아 그 자금을 어로집단 공동자금으로 마련한다. 약력 12월 20일 경에 洞會議를 소집하여 競賣에 붙인다. 우뚝가사리 채취권은 가호 단위이고, 보통 30여호의 계원들이 이에 참여한다.

〈迎日洞의 예〉

영일동은 두 개 동네(웃동네 알동네)로 나뉜다. 두 동네마다 30여가구 내외. 風藻채취를 위해서 바다밭도 둘, 곧 '곰동산'에서부터 '모살개' 그리고 '모살개'에서부터 '거멀레'까지 나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풍조 채취를 위한 바다밭은 2년마다 교체된다.

두 동네마다 반장이 있어 풍조가 떠밀려 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바닷가를 돌아보며 확인한다. 풍조가 떠밀려오면 동네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풍조를 건조하여 보관했다가 판매하면, 반장에게는 한 가구 몫을 더 준다.

제 3 장 宗 敎

한국인의 신앙을 분류해 보면 대개 샤머니즘(무교·민간신앙), 불교, 유교, 도교, 예수교(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신흥종교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조지훈 1962). 현대사 속에 한국사회가 오랜 혼란기를 경험하는 동안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정신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종교에 귀의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세계 종교의 전시장” 또는 “종교 백화점”으로 불리울 정도로 각종 종교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종교의 실정을 감안할 때 놓여온 사회에까지 각종 종교들이 전파되고 변창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엄밀히 말해 놓여온 사회로의 종교의 침투는 사회변혁의 한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에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각 종파의 종교인들은 자파에 신도들을 확보하려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질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이한 종교의 범주에 합류하게 되고 또 각각의 종교가 제시하는 도그마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동질성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점이 아울러 주목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란 불가피한 과정이며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종교가 놓여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심대한 것으로 사려된다.

우도의 종교 양상도 한국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독특한 신흥종교까지 전파됨으로써 우도의 지역민들 사이에 신앙의 대상은 훨씬 다양해지게 되었다. 일

제 초기부터 카톨릭이 전파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뒤늦게나마 진출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도에는 종교에 관한 한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색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우도의 종교 현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신흥종교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소위 찬물계 종파의 태두가 바로 우도 출신인 김봉남이라는 점이다. 신흥종교는 흔히 사이비 종교로 여겨질 정도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빚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흥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신흥종교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향인들에게까지 무시되어온 김봉남의 업적이 우도지의 발간을 계기로 재조명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천지대안교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김봉남의 업적과 사상 그리고 영향 등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제주 출신의 한국 신흥종교의 태두, 김봉남 선생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우도 조사에 앞서 1984년부터 근 3년 동안에 걸친 토산리 조사에서 천지대안교와 삼천교 등 소위 김봉남의 영향하에 발생한 찬물계 종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해 왔는데 종교라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사상의 어려움이 컸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에 연구된 결과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도에 진출해 있는 종교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고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지에 있는 각 종교의 교회나 불당 혹은 교당을 방문하고 그곳의 책임자나 주민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자료에서 미비한 부분은 문헌자료로 보완하였다.

제 1 절 불 교

조선조의 불교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불교의 탄압에 제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절 오백, 당 오백이 관권에 의해 폐쇄당하고 불교는

“근 200년 동안 본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한라연감 1991 : 493) 시가지에서 사찰이 폐쇄되고 산사들만이 불교의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895년 서울에 승려 입성 금지가 해제되면서 불교는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본도민과 놀교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여 다른 지역보다 단기간에 포교가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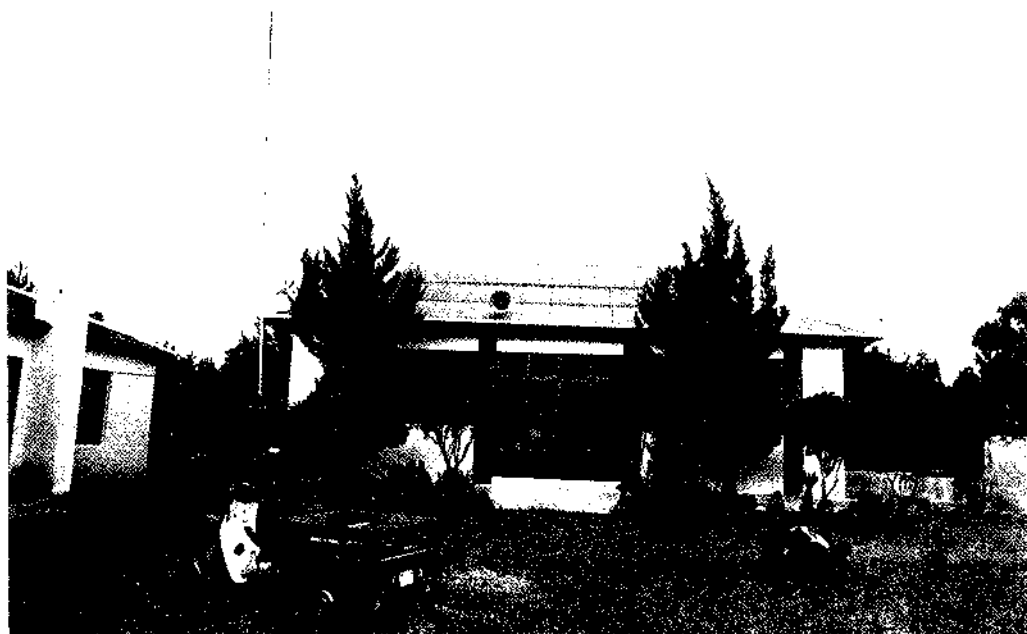
제주에 들어와 있는 불교의 종파는 다양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가장 큰 세력을 점유하고 있다. 조계종은 본사를 관음사로 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 수에 있어서는 태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태고종은 조계종에 비해 체계적인 면에서나 단일 사찰들의 규모에 있어서 열세에 있으나 사찰의 수에 있어서는 조계종을 앞서고 있다. 제주에는 기타의 불교 종파들인 법화종, 진각종, 원효종 등의 군소 종단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단에 소속된 사찰이 20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무소속 사찰이 8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교인은 타 종교를 압도할 정도로 제주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2,643 명(1979년 문공부통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도에는 1개소의 암자를 포함해서 모두 2개소의 불사가 세워져 있고 그 밖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비교적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다.

1. 대한불교 태고종 금강사

우도에 있는 유일한 불교사찰인 금강사가 서천진동 1841번지에 세워져 있다. 우도에서의 불교전래의 역사는 바로 금강사의 유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우도에 불교가 소개된 것은 지금부터 약 50여년 전의 일이며 제주시 관음사에 있던 강남옥 스님이 내도하여 동천진동의 현재 고인이 된 김창훈씨택의 방을 빌어 작은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면서 우도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스님이 내도하여 예불을 드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도내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보였고 신도가 되었다.

장소가 협소하여 예불을 제대로 드릴 수 없음에 따라 당시 다년간 신도회장을 맡고 있던 고 최용현 여사를 중심으로 이행길, 홍월석, 이도하 등이 신도와 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고태주씨 등이 거들어 동천진동 앞동산에 대지 100평



금강사 전경

을 마련하고 2칸 정도의 작은 초가집을 짓고 이곳을 불당으로 삼아 정식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동천진동의 이 작은 초가집이야말로 바로 현재의 금강사의 전신이며 최초의 우도의 불사였다. 신도들은 다시 절을 서천진동으로 옮기고 초가지붕을 스테이지붕으로 개조하여 불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는 동안 강남옥 스님은 성산읍 동남에 큰절을 짓고 우도를 떠났고 강 스님의 뒤를 이어 변인종, 이어 조성민 스님이 내도하여 예불을 주재하였다.

현재 서천진동의 1841번지로의 이전은 1971년 8월 11일 불당 설립을 위한 법정 등록을 마치고 1973년도에 이루어졌다. 신축불사 공사가 1980년도에 완공되어 불사의 명칭도 금강사로 명명되었다. 금강사의 부지는 면적이 600평인데 동천진동의 불사부지 100평과 교환하여 확보되었다고 한다. 불사의 건평은 28평이며 이외에 17평의 부속건물이 금강사를 형성하고 있다.

조성민 스님은 67년도 제주도 아라동 죽림성에 덕홍사를 기공하면서 우도를 떠났고 이어 최씨 스님 등이 우도를 거쳐 갔고 현재 주지스님으로 있는 강성부 스님은 1977년도에 우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금강사를 지키고 있다.

불교 신도는 100가구로서 한 가구의 인구를 3~5명을 가정할 때 신도수는 대략 4~500여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신도들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의 신도들은 약 200여명 정도로 볼 수 있다. 불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와는 다르게 비교적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 자체가 주민들이 신봉하는 민속신앙인 무속과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서 이곳의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 올 수 있는 부차적인 이점을 지닌 종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곳 사람들은 한 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 어느 한 종교의 교리를 철저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당을 찾아가 무의를 행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유교식 의례를 지키는가 하면 불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기원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신앙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불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속적 성격을 깊게 가미하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없이 수용되고 있다.

불교에서 행하는 큰 의례는 소위 10제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십제일중에 주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좋은 몇몇 제의만 거행하고 있다. 이곳 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의례로는 음력 정월 초이레, 정월 15일, 부처님의 탄신일인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칠월 백중, 시월 십오일, 십일월 동지, 12월 초여드레 성도세일을 들 수 있다.

개인 불공은 정월 한달에 한정하여 각 가정이 날을 보아 절을 찾아와 드리나 그외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절을 찾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느옛당이나 이렛당을 찾은 후 불당을 나중에 찾는 사람들도 있다.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신 가구가 90가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은 정월 보름과 칠월 보름에 찾아 올 뿐이며 주민들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것 같지는 않다. 주민들이 열악한 도서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신앙은 자연히 부차적인 일로 밀려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강 스님의 말은 이곳의 주민들의 종교적 태도를 잘 반영하는 말로 여겨진다.

2. 대한불교 원효종 수덕암

우도에 있는 원효종의 수덕암은 강정화(여 69세)보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수덕암 전경

암자와 원효종 종단과의 관계는 매년 종단 운영비조로 거출되는 회비 9만원씩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밖에 강제적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 보살은 짐도 치고 푸닥거리 등 무속의례까지 하고 있어서 이 암자가 순수한 의미에서 불교의 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무속과 깊게 연관되고 있다. 강 보살은 25년전에 서귀포 서흥리에서 우도로 건너온 뒤 상고수동에 막사리 한 채를 사서 불당을 모시고 불교식 의례와 무속의례를 교객의 요구에 따라서 동시에 수행해 왔다. 암도 당시에는 스님도 함께 와 불공은 스님이 전담하여 드렸는데 불교식 의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미미한 것을 알고 스님이 섬을 떠남에 따라 현재까지 강 보살만이 남아 이 암자를 혼자 운영, 유지해오고 있다. 현 위치의 암자로 옮겨온 것은 17년 전의 일이다. 현재에도 불공을 드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스님을 초빙하여 드리고 있는데, 큰 불공은 대정읍 화순리 화강사의 고수일 스님이 도맡아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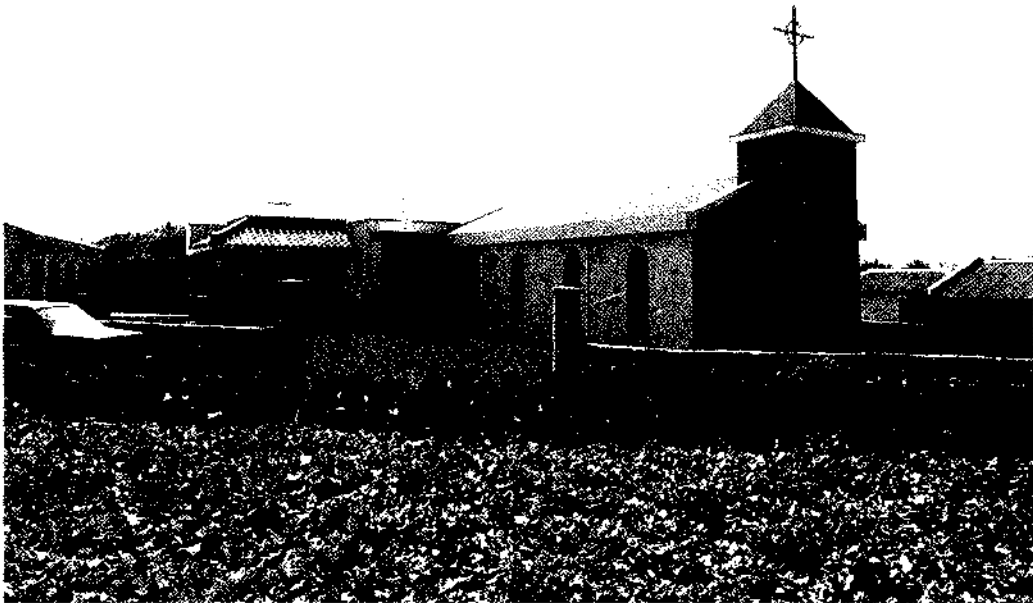
이 곳에 드나드는 신도들은 호구수로 산정되는데 모두 70호의 사람들이 이 암자와 인연을 맺고 있다. 역시 이 암자를 찾는 이들이 여성임을 감안할 경우 신도

수는 100여명으로 볼 수 있다. 절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내에 수복을 기원하거나 액운이 낀 해에는 좋지 못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닥친 흉사를 무난히 넘기려는 의도하에 이 암자를 찾고 있다. 이 암자에서 드리는 각종 의례들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불교식 의례들이다. 큰 불공이 이루어지는 날들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칠월 백중, 10월 절세불공(절이 세워진 날), 동지 등 연중 8일이며 이러한 날에는 외부에서 초빙된 스님이 주재하여 불공을 드린다. 다른 절은 매달 음력 18일은 지장제일, 24일은 관음제일로 불공을 드리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신도들의 대부분인 여성들이 물질하느라 농사일을 거드느라 분주하기 때문에 매달 드리는 불공은 생략하고 있다. 공식적인 불공 이외에 독불공이라는 개인 불공이 있는데 가내에 평온과 위복을 기원하면서 개별가정이 자청하여 드리는 불공으로 주로 정월에 행해진다. 그러나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거나 삼대운에 접하게 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절을 찾아와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에게 안녕을 기원하게 된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드리는 예불은 4~5시 사이에 행해지고 있다.

강 보살은 시대가 바뀐에 따라 사람들의 신앙심이 얇어짐을 우려한다. 이러한 지적은 모든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절에 찾아와서도 신도들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번 이야기라든지, 물질적인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므로 불심이 얇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 2 절 천 주 교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58년 본도인 베드로 펠릭스라는 한 사공에 의해서였다. 그는 1956년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중국 광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유학중이던 조선인 신학생을 만나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1858년 제주도에 돌아와 가족, 친척, 친구 등 20여명을 입교시키고 집단으로



천주교회 전경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원군의 병인년 박해로 이 교우 집단은 없어지고 그 뒤 1899년 페이네(Peynet)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가 파견되어 제주읍 대교동과 서귀포 한눈에 본당을 창설함으로써 제주도에 복음이 시작되었다(이상 한라연감 1991 : 495 참고). 이렇게 전파된 천주교는 비약적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는 1901년에 제주교난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 교란에서 근 700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도의 천주교 전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신유년 교난에 관한 연구서(김옥희 1980)이다. 교난시의 교민들은 가옥과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의 피해상을 밝히는 대목은 연평리의 고영준, 고관송, 강찬기, 윤명관 등이 가옥 및 가산 피해를 당한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앞의 책 20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는 제주교구의 역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유교란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서들과 논문들이 나왔으므로(김옥희 1980, 이기석 1988 등)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주민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는 우도에의 천주교 전파는 1901년 제주 천주교회

초대 신부인 구마실 신부가 내도하여 포교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당시 구마실 신부는 전 천주교 연평 공소장인 고정환씨의 증조부 고영준(당시 하교수동에 거주)씨와 외조부인 강찬기(역시 하교수동에 거주)씨와 접촉하여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우도내의 상하교수동과 삼양동, 전을동, 주흥동 일대에 교세를 확장하며 신도들을 끌어들이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교란사에는 4명의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우도에의 천주교 전파 연대는 1901년 교난이 일어난 해와 일치하고 있는데 신축년 교난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교세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곳의 주민들이 전통적인 민속신앙에 깊숙히 젖어 있어서 이질적인 종교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도내에서의 교민 확보가 어려워 교세를 확장하는 일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73년도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조사반이 내도하여 우도 전반에 대해서 학술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편내었는데 이중 종교분야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신도들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인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명,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2명, 초등학생이 8명 그리고 중학교 중퇴자가 1명으로 학생 신도들이 24명이고 기타의 신도가 27명, 총원 51명으로 집계되었다. 학생들이나 식자계층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 교인이 33명으로 남자 신도 18명의 거의 배에 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교 전파의 역사가 오랜 것은 아마도 이 지역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 일찍부터 육지부와 직교역을 실시하여 육지부의 문물을 어느 지역보다 쉽게 접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는 천주교 성산포 본당 우도공소 교당이 서광리(중앙동 1458-4번지)에 세워져 있다. 일요일마다 공소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고 성산포에서 신부가 매월 1회씩 본 공소를 방문하여 미사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신강림일, 성모승천일 등 대축일에는 표선, 세화 공소의 신도들과 함께 우도 공소의 전 신도들도 성산포 본당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다. 현재

(1992년 12월)의 신도수는 30명이며, 이중 여성이 20명, 남성이 10명으로 여성 교인이 여전히 배에 달하고 있다. 연령층은 2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70년대보다 신도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세받은 신도들이 타지로 출타해 나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이곳 주민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할 때 영적인 신앙 생활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도 신도수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라고 현 공소장인 한광친(57세, 하고수동거주)씨는 말하고 있다.

제3절 기 독 교

기독교 즉 개신교가 제주도에 선교되기 시작한 것은 1907년으로 기록되고 있다(한라연간 1991 : 497-498). 제주 선교는 바로 이해 9월 17일 평양중앙교회에서 조직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창립 7인의 목사 중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제주 선교사로 결정된 이듬해인 1908년 남해의 거친 풍랑을 넘어 제주에 상륙하였다. 당시의 제주의 상황은 신축성교난으로 인심은 거칠대로 거칠어 있었다. 도민들은 서양사교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기독교의 선교를 허락한 후였으므로 관가에서는 소요하는 도민들을 무마할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기풍 목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내(城內)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위협당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적대시 당하거나 심지어는 침식마저 거절당하는 어려움 속에 제주선교에 심혈을 기울였다(앞의 책 : 497). 이러한 희생적인 선교의 결과로 1925년에는 제주시를 비롯하여 모슬포, 법환, 세화, 성읍 등에 교회가 들어섰고 기독교 신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독교 제주 전파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우도예의 기독교 전파는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두 교회가 세워져 각 교회가 신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독교 교세의 전망은 밝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도내의 기독교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대한 장로회 우도교회



대한장로회 우도교회 전경

본 교회는 1974년 서울에 있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파견한 김유미 여전도사가 우도에 내도하여 동년 5월 19일 연평리 서전진동 윤석찬씨 댁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첫 기도회를 가졌고, 동월 26일에는 김혜숙씨 댁에서의 예배로 개척 전도가 시작되었다. 동년 7월에는 장로회 신학교 하기 봉사대 8명이 찾아와서 전도함은 물론 교회학교를 열어 참석한 주민들에게 기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연평초등학교, 공의 진료소, 구 농협 건물 등으로 이동하며 예배를 드렸다. 또한 장년들을 위한 저녁 예배는 윤지홍, 김연금씨 집에서 드림으로써 장로회 교회의 존재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 1974년도에 현재 하우북동에 거주하는 오영돈(66세)씨가 교회부지(중앙동 1943번지)을 제주시 장로교회측에 알선하였다.

1975년 5월 14일에는 중앙동 1943번지내 480평 대지에 제주노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총무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

며, 1976년 12월 준공을 보았다. 이어 1977년 4월 20일에 제72회 제주노회에서 우도교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본 교회는 종로5가에 총회를 두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교회조직으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노회, 그리고 그 하부 조직으로 동부지역에 20여 지역 교회들이 분포되어 교세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우도에서는 1978년 5월 5일 이종구 전도사가 제2대 책임자로 부임하여 동년 7월에 사택을 건립하고, 10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 전도사는 이후 계속 우도에 남아 전도사업을 하던 중 1983년 전도사직을 사퇴하고 우도를 떠났다. 현재 재임중인 차재천(66세) 목사는 제3대 부임자로 1983년 8월 4일에 부임하였다. 차 목사는 동년 교회부지내에 건평 40평의 교육관 건물을 건립하고 84년 3월 5일에 완공을 보았다. 이 건물을 이용하여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하였고 1986년 6월 20일 군청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는 명칭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유아원 운영에는 양정희(2급 정교사)교사가 원아생 5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원장은 차재천 목사, 원감은 홍성숙씨, 급식영양사는 우후선(23세)씨가 맡고 있다.

신도들은 모두 85명에 이르고 있다. 신도는 대부분 여성들이며 약 30%정도만 남성들이다. 연령별로 보면 장년부가 30명, 청년부 12명, 중년부 23명, 주일학교 유년부 교인이 23명이다.

이 곳에 교회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기독교인의 사명 의식하에 섬중의 섬인 우도까지 선임 전도사들이 내도하였다고 차목사는 회상하고 있다. 교회 건립 당시만 해도 3년내에 300명의 신도가 구성되리라 생각했으나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포교 10년을 맞고 있고, 또 사회적인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세 확장의 어려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10명을 전도하는 것은 육지부에서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차목사는 실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곳의 문화적 양상에 기인하고 있다. 즉, 주민들은 전통 신앙인 무속에 깊이 몰입해 있어서 교인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교세확장의 희망은 단지 유아원 운영에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유아원생들도 자라서 교인이 된 후 섬을 떠나기 때문에 신도들이 증가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2. 우도 영일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우도영일교회 전경

우도에 전래된 종교단체 중에 가장 뒤늦게 도입된 종교단체가 바로 영일교회이다. 교회의 공식명칭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우도 영일교회」이다. 성결교회 총회는 서울 종로구 행천동에 1907년에 세워졌고 우도로 전파된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이다. 현재 영일교회를 정기채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여전도사가 들어와 선교하다 떠났다고 한다. 이어 1990년 7월 2일 정기채 전도사가 영일동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함으로 본 교회는 우도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후 1991년 5월 9일에 교회자리를 비양동으로 이전하고 대도시의 여러 신도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현재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8월 29일에 교회건물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부대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40여평의 건물에서 정기채 전도사 부부가 교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가 짧아 신도들의 수는 이곳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교인들은 모두 25명에 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 보면 장년층이

3명이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9명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13명에 이르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이 여성신도들이다. 교회의 건립은 전적으로 앞서 지적인 기독교인 특유의 강렬한 신앙심과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전도사의 사명의식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섬을 떠났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 올 경우에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인 확보에는 다른 교회와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는 기독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기존 민간신앙에 대한 깊은 믿음 등이 교세확장에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사는 자신의 깊은 신앙심이 많은 주민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일념에 차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성의를 다하고 있다.

제 4 절 신 흥 종 교

1. 신흥종교의 일반적 성향

오늘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수 많은 자생 신흥종교들과 외래 신흥종교들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저마다 교세의 확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들의 종단수는 현재 약 4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신도수도 3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노길명 1990 : 15). 신흥종교들은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은 “신흥종교의 왕국”, “세계종교의 전시장” 그리고 “종교백화점”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신흥종교하면 계룡산이나 전라북도의 모악산을 연상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로부터 도피하려는 과거의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대도시에는 물론 농촌지역에까지 적극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계파의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흥종교의 발생의 원인은 연구자들 사이에 여러가지로 주장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흥종교란 사회적인 모순과 기성종교의 한계나 문제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된다(노길명 1990 : 25). 그래서 발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원인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원인이다. 대체로 안정되고 건전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종교가 제기능을 다할 때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널리 인식되어 왔었다.

제주도의 종교 현상도 한국사회의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흥종교로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이입된 종파는 1916년의 태을교를 들 수 있다(이강오 1977 : 126~130). 일찍부터 도입된 이 태을교는 1922년에 보천교로 개칭되어 포교되었는데 당시의 많은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에 귀의하여 수도하였다. 그래서 한때 이 보천교는 제주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가장 큰 교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천교 자체가 제기한 문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제의 완강한 탄압에 의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교세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 후 제주에는 뚜렷한 종파의 이입이 없다가 6·25동란과 더불어 피난민의 대열 속에 묻혀 각종 신흥종교들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제주도의 신흥종교는 그 유형별로 볼 때 8계열로 구별된다(이강오 1977 : 127). 즉, 불교계, 물법계, 기독교계, 일본계, 증산계, 수운계, 무속계 등이다.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 많은 신흥종교들을 여기에서는 모두 언급할 수 없고 본고에서는 우도에 도입된 종교에 한정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물법계의 신흥종교

우도의 종교현상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신흥종교는 바로 물법계 종교이다(이하 노길명 1988 : 106~109 참고). 이 종교의 창시자는 제주도 연평리(우도) 김봉남(金奉南, 본명은 김영선, 1898~1950)이다. 그는 8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나, 14세 때 위장병에 걸려 만성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18세 때에는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육지부로 건너가 무량도와 같은 신흥종교들을 찾아 다니며 많은 도인들을 만나 도술을 배우고 21년에 걸쳐 입산수도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던

중, 1937년 경상남도 기장의 연화산에서 두 차례의 백일 기도를 드리던 끝에 하늘로부터 물법을 받고, 피가 맺힌 고깃덩어리 하나를 토해냄으로써 마침내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43년 강신 체험을 하면서 중생의 삼고를 헤탈하고 심수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는데 치유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생불로 추앙하며 따르게 되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교단의 교세가 커지자 일제 당국은 김봉남을 사도난민의 혐의로 체포하여 고문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한때 그의 교세는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8·15해방 후 김봉남은 교단 본부를 기장에서 부산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 거대한 교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은 교권상의 문제와 교리 해석상의 이견으로 저마다 새로운 종단을 세움으로써 현재에는 여러 종파로 분파되고 말았다. 이 물법계의 신흥종교로는 삼법수도원·천지대안교·성덕도교화원·태화교·무량교·용화산덕교·찬물교·봉남교·대한도교 그리고 삼천교 등 20여 종파가 있다.¹⁾ 그리고 신지는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법계 종교의 신앙대상은 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질로서의 불이 아닌 물법의 신비로 바꾸었다. 물법이란 단식을 하고 주문을 외우며 찬물을 마심으로써 심신의 죄악은 물론 고통과 질병을 퇴치하고 도통에 이르는 수도법을 말한다. 물법계에서는 찬물은 인간의 심기를 맑게 하고 심화기화(心和氣化)의 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물은 우주만물을 생성시키는 원질이며, 만물을 키우는 생명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심성은 본래 깨끗하고 맑은 것이며, 인간의 체력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물의 기질을 지님으로써 생기가 왕성하게 된다.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 죄악과 번뇌가 생겨서 심성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성이 더러워지면 자체에 오염이 생기고 생명에는 수기가 결핍되며 생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질병이 생기게 된다. 즉, 질병은

1) 찬물계 계통의 신흥종교의 형성과정, 특히 김봉남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글은 조성운(1992)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인간의 심기가 수기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법을 통해 심수(心水)의 법을 육체에 붙여 넣고 신체의 생명수를 충족시켜야만 질병이 치유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질병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는 마음을 밝히는 참회와 주문압송, 기를 깨끗이 하는 찬물마심과 안찰 및 단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종단에서는 신체의 질병은 마음의 잘못에서 온다고 하여, 물법치료를 받기전에 죄를 고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물법계의 신흥종교는 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교리에는 유불선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윤리규범으로써 삼강오륜과 인의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며, 참회와 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적인 것이며, 주문을 외우고 물을 마심으로써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도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찬물요법이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삼교의 진리를 통전한 대도진법의 시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법계의 종단은 유불선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교단으로 분파되기도 한다. 현재 찬물교와 성덕도교화원은 유교의 윤리적인 면을, 용화삼덕교와 봉남교는 불교의 염불과 참회를, 대한도교와 삼법수도원은 선교의 주술치병을 보다 중시하여 분파된 종단들이다. 특히, 태화교와 봉남교의 교리나 신행에는 무속적인 내용까지 융합되어 있으며, 태화교에서 분파된 삼천교는 무속신앙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이상 노길명 1986 : 106~109를 참고함).

우도에 들어와 있는 물법계의 종교로는 천지대안교와 타불교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교의 발생의 배경과 종교적 특징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천지대안교²⁾

1) 천지대안교의 창립 배경

천지대안교는 제주 출신인 부경순(夫景順)이라는 여인이 창립하였다. 천지대

2) 종교적 부분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로 사소한 전에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교의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전 전북대 이강오 교수가 조사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더듬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안교를 일으킨 곳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이며 부경순은 이곳을 포교활동을 위한 본거지로 삼았다. 부산의 본당이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로 이전하게 된 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도의 본당은 철폐되지 않았고 교주의 여식인 조영자가 여기에 머물러 포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지대안교의 본부는 부산 영도의 분회와 계룡산의 본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한편 영도 남항동에 천지대안교 지부는 신도 김계춘(金桂春)이 설치하여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 교단을 창립한 부경순은 서기 1900년 8월 27일 제주도 북제주군 종달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국문 해독도 못하는 문맹자였다. 21세 때(1920년)에 남편 조상만을 따라 일꾼 대판에 건너가 노동과 상업으로 연명하다가 45세 때에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 해 9월 29일(음력) 당시 소위 “대보환사건”으로 부산을 떠들석하게 했던 선박인 대보환(大保丸)이라는 이름의 발동선을 타고 9인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대마도 근해에서 해적을 만났다. 이 때 시어머니와 남편, 장남 등 가족 6인이 해적에게 살해당하고 부경순은 구사일생으로 1남 1녀만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고국에 돌아온 부경순은 부산 영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해적에게 받은 심한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적 이상이 생겨 마치 정신병자와 같이 되었다. 때마침 영도에는 제주도 태생인 김봉남이란 도인이 도법에 의해 모든 난치의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고 있었다.

김봉남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에서 1898년 4월 빈한한 농가에서 농부인 부모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는 8세부터 한학을 배우다가 18세에 우연히 병에 걸렸다. 그 증상이 정신이상과 같아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효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마침내 병고를 비판하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집을 나와 육지부로 나갔다. 벽지에 나오자 그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정신수양에 전념하였고 한때는 보천교에 입교하여 입신수도도 하여 보았으나 효력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또 사찰에 들어가 수도를 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그는 마지막으로 116일 동안 물법 단식치료를 스스로 행하였는데 이때에 신병의 완치를 볼 수 있었다. 이 물법 단식치료는 일체의 식사를 끊고 잔물만 마시

면서 수도하여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단식의 기간은 병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15일이 소요된다. 단식하는 기간에 찬물만을 마셔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찬물은 청정한 것이어서 심신의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단식 치료하는 동안 주문을 계속하여 외우게 되는데 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심신이 수련되어 질환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도력을 얻어 신선의 경지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김봉남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질병이 심신의 부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질병을 고치는 데에는 약물보다 주송(呪誦)으로 심성을 밝히고 찬물로써 오염을 씻어내며 동시에 지난 날의 허물을 참회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면 모든 병이 통치된다고 하였다. 도덕의 실천은 유교의 법이요, 심성을 밝히는 것은 불가의 법이요, 찬물요법은 도술의 법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 찬물요법을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 불, 선, 삼교의 진리가 통합되어 있는 대도진법의 사행이라고 하였다. 실제로도 환자들이 주문을 외우고 찬물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과정에 접령자와 같이 심신의 이상이 생기고 신과 통하여 계시를 받는 사람과 같이 이상한 말을 지껄이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들은 김봉남의 도력과 그가 시행하는 물법의 신비를 느껴 스스로 종교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김봉남의 문하에는 많은 문하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이 점차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종교단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 김봉남의 도술치유법

김봉남으로부터 신병치료를 받은 부경순은 마침내 봉남교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김봉남은 자기의 교법에 어떠한 종교의 이름을 내세운 바 없었지만 사람들이 봉남의 산하에 모이는 단체를 가리켜 “찬물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부경순이 찬물교의 신도가 된 것은 찬물치료의 신비에 끌린 바도 있지만 보다 더 마음이 끌린 것은 김봉남의 “도통공부”와 “운도”를 말하는 예언이었다고 한다. 봉남이 시도하는 도통공부에 깊이 들어가면 천지의 “영해”에 도달하여 마음 가운데에 무형의 “심수”, “심법”을 통할 수 있고 동시에 천지의 “태행”, “태평”을 보아 심신의 “대도”, “대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교리의 핵심

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도통공부의 방법은 팔팔정국이라는 단계적 수도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우선 첫째 단계의 <초통공부>에서 주문 <나무아미타불이나 태상노군>을 주로 하여 여러 가지 주문을 연속하여 외우고 있으면 이상한 기운이 생겨나 몸을 흔들게 되고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토로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거나 통곡을 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는 등 광적 현상을 연출하게 된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눈앞에 천상과 지전, 신비한 물형과 귀신의 형상 등이 나타나거나 하면 혹은 신어(神語)와 같은 이상한 말이 들리기도 한다. 김봉남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도통에 들어가는 과정에 식마의 경지(마에 걸린 경지)라고 명명되었지만 공부하는 자들 대부분은 이 신비한 현상에 매혹되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김봉남의 물법은 도통공부의 이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도통공부에 어떠한 신비를 얻으면 신병은 곧 치료가 되는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물법에 효과를 얻은 자는 의례이 도통공부에 정진하면서 찬물교의 교도가 되는 것이었다. 이 수련 공부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개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때로는 다른 지방의 정적인 곳을 찾아서 집단수련하기도 하였다.

3) 천지대안교의 탄생

부경순은 물법에 의하여 자신을 치유한 후에 아들의 병도 치료하였다 한다. 때로는 부경순은 김봉남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그는 도통 공부 중에 얻은 신비가 곧 자신이 도통된 것을 입증한다고 자부하였고 도중에 맞는 환영이나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말(吐說이라고 함) 모두가 자기에게 구세의 권능을 주는 신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경순은 마침내 교주 김봉남을 비판하고 자신이 교주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4월 8일(음력)에 김봉남이 사망하자 지도자를 잃은 교인들이 각자 행동을 취하려 할 때 부경순은 자기에게 천명으로 구세의 권능이 내렸다고 하면서 자기 솔하에 신도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 때 자기에게 태상노군(太上老君)이 강림하였다는 말로 신도들을 유인하였다. 태상노군은 중국의 도가들이

종주로 받드는 노자(老子)의 존칭이다. 김봉남의 물법이나 도통공부가 선가의 치병술과 주술적인 수련방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공부에서 태상노군은 가장 중요한 신앙대상인 것이다. 부경순은 또한 자신의 도호(道號)를 해월선(海月仙)이라고 하였다. 이 도호는 봉남이 죽기 전인 1949년 11월 6일 부경순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그대는 해월선이다. 말세 인간들을 구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천령(天靈)께서 자기에게 도호를 주어 구세의 권능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세의 방법은 다름 아닌 봉남에게 받은 물법과 수련공부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부경순이 영도의 홍법사 불당에서 수양할 때 도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도통은 김봉남의 도통이 태상노군 강림으로 이를 수 있는 뜻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 도통은 천상의 도통으로 변하였다. 이 김봉남의 물법을 받아 질병을 치료하는 부경순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점차로 수를 더하게 되자 1952년 가을에 자신이 일으키는 교가 천명으로 천지대안교라는 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천지대안교의 교주가 되고 영도의 자기 집을 천지대안교의 본부로 삼았다. 이때의 교도는 여자들로서 약 50명 정도였다고 한다. 1952년 가을 부경순은 천지대안교의 교주이므로 자신이 곧 옥황상제이며 미륵세존으로서 새로운 천지가 개벽되는 운수(運數)에 말세인간을 재난에서 구제한다는 해괴한 설을 퍼뜨리는 바람에 우매한 부녀들이 모여들었다. 1956년 9월 충남 계룡산의 삼신당에서 천지인 삼합도수에 의한 공사를 본다고 여신도 5인(5선녀)을 데리고 기도수련을 하게 됨은 계기로 하여 영도의 본부까지 신도안에 옮기었다. 이때 천지대안교가 계룡산에 옮기게 된 이유는, 첫째로 부경순 교주가 1955년 정월에 천지대운이 한국에 내임(來臨)함을 알린다고 신도들을 이끌고 부산에서 시가행렬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조소와 반축을 사게 되어 교의 위신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된 것과, 둘째로 새 운수(運數)의 개벽을 주장하는 교리는 한국의 새 운수가 세워지는 티전으로 알려진 계룡산 신도안에서 펴기가 쉽다는 생각에서이며, 셋째로 김봉남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자기의 교리로 주장하기에는 김봉남을 따랐던 제자들의 저주도 있으려니와 봉남교의 발상지에 본부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사종교의 못자리라고 알려진 계룡산에 두는 것이 표교상의 이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강오, 1977)

천지대안교의 본부가 계룡산에 이전된 뒤에는 그 포교의 활동이 더욱 넓어졌다. 각종 신흥종교들이 모여 있는 중앙에 어엿한 교당이 세워지고 한국에 새 운이 오고 교주가 이 운수를 개척한다고 하여 때로 교도들을 동원하여 행렬을 하고 신도안이 떠들썩하게 하여도 아무런 거칠 것이 없었다. 이곳(신도안)이야말로 온갖 미신을 도말아 행하면서도 미신 타파를 한다고 해도 통하는 지대였다. 그런데 1965년 6월 4일 그러니까 계룡산으로 본부가 이전된 후 9년째 되는 해에 교주 부경순이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로 제주 태생인 김태순 선녀가 교단을 맡고 있다.

4) 교 리

천지대안교에서 신도들은 교주 해월선을 절대자이며 구세주로 신앙한다. 해월선은 부경순 교주가 천명으로 받은 도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해월선은 인간 부경순의 호가 아니라 조물주이며 옥황상제이며 태상노군이며 미륵세존의 집약된 칭호라고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1953년 癸巳에 교도들이 공부할 때에 해월선님의 하는 말이 “금일까지는 나의 육체로 지도하였으나 앞으로는 영(靈)으로 지도하겠다” 하면서 공부하는 자들의 등을 한 번씩 치고 “영을 보라” 외치자 공부하는 자들이 모두 통영(通靈)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통영이 되어 보니 백발 노인이 천당에서 내려와 강당에 좌정하였다가 해월선으로 변신하여 하는 말이 “나는 옥황상제다. 옥황상제는 태상노군이오, 태상노군은 미륵세존이다. 미륵세존은 부해월선이오, 부해월선은 인간 육체 부경순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차 통영으로 보니 그가 말하기를 “천상 분부 받아라, 지상 분부 받아라, 세계 역사 받아라, 신 분부 작성하여라, 해월선님은 신천지 오만년 운도를 내어 놓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월선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조물주라고 신도들은 믿는다. 이도 또한 선녀 김태순이 통영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산 본부에 세운 교주의 비(碑)에 「천지 대안도 완전 조물주 부해월선」이라고 새겨 놓고, 여기에 새 천지의 개벽을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물주는 물론 유일신적인 존재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교의 유일신은 한국재래의 무속신앙에서 보는 다신(多神)의 위에 두는 일신(一

神)인 것이다. 말하자면 다신신앙의 바탕 위에 일신을 세우는 것이다. 해월선은 후천 말세의 인간들을 구제하는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는 조물주의 사자로 강림한 것이 아니라, 후천 조물주께서 직접 인간 세계에 내려 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해월선은 후천운도의 신천지를 개벽하는 개벽주이다. 이 새로운 천지는 지하운으로서의 지상극락이다. 지상극락은 불교적으로 용화세계이다.

따라서 해월선은 도래한 용화주 마륵불이다. 이 마륵불이 내려 와서 용화세계를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다시 귀천하였다면 그는 죽어서 인간세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만 인간세계를 떠난 것이고 그 영체만은 인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하며 앞으로 재생할 것까지도 믿어야 한다. 한편 해월선은 용왕신이다. 용왕신은 바다의 신이다. 그리고 이 바다의 신은 천신과 결부시킨다. 부경순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에 대마도 근해에서 조난한 것은 해월선이 해운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증거로서 부경순이 공부 중에 천영에서 하는 말이 “너의 가족 되살리려 하지 마라 성현이 하는 일에 칠살이 무엇이냐? 내가 구천관에 앉아 구천년 동안 살파다가 대해를 건너올 때 대가족을 달아 올리고, 인간 장성 소원 말라하고 육체에 대신 하강 하였노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에서 숭배하는 만국기(萬國旗, 神旗)에 용과 거북을 그린 것도 해월선이 용왕신으로서 용궁造化(龍宮造化)를 부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敎의 신앙 목적은 새로운 천지운수의 개벽시기에 처하여 있는 말세인간들로 하여금 재액을 벗어나서 크게 안락한 새 세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교의 교주나 신도간에 어떠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우주관이나 인생관이 세워질 수 없지만 구태여 우주관이나 인생관을 말하라면 천지의 새 운도개벽을 믿는 것과 말세에 처한 인간의 새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주관이며 인생관이라 하겠다.

이 교의 경전 계운전(啓運典)은 곧 천지운도가 열리는 법전이라는 것이다. 계운전에서 보면 1949년 2월 7일 상오 3시경 부경순이 수도 중에 통영으로 말하기를 「때가 오고 運이 오니 선후천이 바뀌어지니 앞으로는 지하운이다. 지하운인 새 천지운 공부를 하여야 보평하리라.」하였다는 것이다. 이 선후선운도가 바뀐다

는 것은 중국의 역사상(易思想)과 음양사상, 한국의 전래적인 도참사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신흥종교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말세설이며 또한 부경순의 소승으로서 사실상의 교주라고 볼 수 있는 김봉남도 이를 주장한 것이지만 특히 부경순이가 말한〈지하운(地下運)〉은 선천(先天)의 운도(運度)가 천운(天運) 즉 건도운(乾道運)이었음에 반하여 후천의 운도가 곤도운(坤道運)이란 말이며 곤도운은 곧 여자운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남자운수가 다 되고 여자운수가 이른다는 것이다. 이 여자운에는 여자가 남자의 상위에 있게 되므로 도를 펴는 천명도 여자에 돌려진다는 것, 이것이 지난 날 봉남에게 도명이 있다고 믿던 것을 해월선 자신에게 도명이 주어진 것으로 믿으라는 이론이기도 하다. 지하운은 다시 해운(海運), 선운(仙運), 용화운(龍華運)으로 설명된다. 역학적으로는 후천운이며 음양학적으로는 지하운, 곤도운, 수운이며 도교적으로는 선운이며 불교적으로는 용화운이며 무속적으로는 해운이란 이름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와같이 본다면 부경순은 역학 등 전래적인 운도설을 자기의 부교적인 운도설로 전향시킨 셈이 된다. 선운은 태상노군이 주재하는 운도이다. 부경순이 처음 김봉남에게 받은 물법이나 도통공부는 대개 태상노군을 믿는 선술(仙術)의 내용에서 취한 것이다. 이 공부에 의하여 남자는 태을선인이 되고 여자가 옥황선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선운개벽이다. 이 선운개벽에 의하여 부경순 교주가 해월선님이 되고 모든 신도들이 물법과 단식, 도통공부로 지상선이 된다고 믿는다. 다만 곤도중심(坤道中心)이 아니라 선녀가 중심이 되는 것이 특색이다. 사후에도 남자는 선남으로 극락 세계에 참여할 뿐인데 여자는 옥황선녀의 자리에서 남자를 지도하게 된다는 사후사상이다. 용화운은 미륵불이 주재하는 운도이다. 1954년 3월 15일 해월선이 신령으로 전하기를 “앞으로 각 도(道), 각 파(派)는 합덕지운(合德之運)을 當하였으니 미륵세존을 단성으로 숭배하라. 미륵세존은 통합 일운(一運)이다. 일운으로 개척하여 나가라.”라고 하였다. 즉 미륵세존은 유불선 모든 도파가 하나로 통합되는 운인데 이 운도의 세계는 5만년의 지상극락이라고 한다. 이 5만년 용화운은 곧 해월선이 주재하는 해운(海運)이다. 해운은 1954년부터 해월선에 의하여 개척되는데 六大九月에 완전히 개벽된다고

하였다. 六人九月은 한국의 전래되는 도참설에 여섯 번 큰 九月달에 새로운 세계정부가 개벽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침 음력으로 1969년부터 6년 동안 구월달이 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도참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때에 세계의 개벽이 있으리라고 믿는 이가 많았다. 부경순이 말한 해운의 새 세계도 물론 한국 땅에서 개벽된다는 것이다. 도참설에 말한 계룡산 운수는 곧 해월선의 해운개벽이라는 뜻에서 계룡산에 본부를 이전한 것이다. 도참설에 정도령이 가지고 나온다는 海印은 나뭇아닌 해월선의 바다해字(海)의 도술조화(道術造化)라는 것이다. 이 교에서 주문으로 「바다해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지하지리 통일통령 물비소사 소원 성취」라고 외우는 것은 해월선님의 바다 ‘해’자 도술조화로 계룡산 해운이 개벽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5) 계 운 전

천지대안교의 경전은 계운전이다. 계운전은 교주 부경순이 통영으로 토설(吐說)한 내용을 주로 하고 신주들 특히 김태선 선녀와 신경생 선녀가 수도중에 통영으로 본 것이나 토설한 것들을 수집하여 해월선이 새 천지운도 개벽에 주재자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교주 부경순의 역사와 김태선, 신경생 선녀의 역사를 첨가하고 교주의 경계 말씀과 성경문·신자들의 수도 공부에 대한 방법과 시험·소원문·찬가·평론가 등을 합하여 1961년 3월에 신도들의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四六版 400페이지로 된 것으로 그 내용은 대개 무녀(巫女)들이 신에 접한 이야기 같은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어서 해괴한 내용이 많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천령의 말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6) 예 배

이 교에서는 교주 해월선 외에 어떠한 신앙 대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월선이 생존시에는 교주를 산 조물주로 숭배하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다른 예배가 없었다. 교주인 해월선에 드리는 예

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시의례로서 교주가 죽은 뒤부터 교당에 교주의 사잔을 모시고 신단을 설치하고 그 신단에 조석으로 찬물을 올리고 기도 소원문을 외우며 찬양가와 천지평론가 등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³⁾. 조석 예배시 외우는 주문은 「바다햇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통일통령 물비소시 소원성취」라는 24자를 주로한다. 24자 주문은 김태순선녀가 1954년 9월 30일에 백일단식 통령(通靈)으로 강설(降說)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문은 세종대왕이 지은 한글과 같은 숫자로서 한글 24자는 한민족을 교화를 목직한 것이지만 본 교의 24자의 주문은 전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언급한 예배는 동상 예배시에 행하는 절차이다. 다음으로는 임시 예배가 있다. 신도들의 물범수련이나 도통수련도 교주 해월선님의 개운도수와 은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주에 대한 일종의 예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교단에는 국가수도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모여 기간을 정하고 기도수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가 바로 임시예배이다. 다음으로는 정기예배가 있다. 정기예배는 이 교에서 중요한 날로 지정된 때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3월 15일(음력 이하 同 : 해월선이 용화운을 받아 편 날), 4월 6일(교주 해월선의 終天地날), 7월 15일(해월선이 천지대안도호를 받은 날), 8월 27일(해월선의 誕生日), 11월 6일(해월선이 도호를 받은 날)에 신도들은 본부나 지부 또는 교당에 모여 예배를 올린다.

3) 〈기도소원문〉

합장에도 천하유와 해월선
어머남전 소원이올시다.
만친하에 중생들이 역친죄를
지을지라도 천지어머님의 은덕으로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복하신 어머님의 새로운 광채로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기 소원이올시다.

〈찬양가〉

높고높은 해월선님 깊고깊은 성심으로
선친수도 깊이하여 선녀모여 운앓치니
구천선녀 하강한듯 선생공덕 하실려면
포고문을 등에지고 방방곡곡 돌아보며
빈한한자 구제하여 있는자를 계유하며
도덕세계 되었으니 그아니 좋을소냐
중생제도 널리하여 악조창생 하였으니
명명하신 해월선님 천만세에 포덕하세

7) 修 道

본교의 수도생활이라면 대개 <물법수도>라고 해서 찬물만 먹고 단식하면서 주문이나 기도문 등을 외우는 것이다. 단식 기간은 보통 1주일⁵⁾ 하는데 개인 능력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최장기 단식 수련이 현 교주 김태순이 행한 백일단식이라고 한다. 물법치료의 방법은 사람과 때에 따라 다른 점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루에 찬물 다섯 그릇을 마시고 매일 찬물로 목욕하는 과정이다. 이 물법수도는 원래 부경순 교주가 김봉남에게 받은 방법에 주문을 가미하여 변경한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물법수도를 하게 되는데 물법수도야말로 심신의 죄악을 제거시키고 통영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도통공부> 또는 <통영공부>라고 한다. 또한 이 공부는 해월선님의 운도 개척에 참여하는 공부라고 해서 <운도공부>라고도 한다. 이 운도공부는 한국을 중심으로 오만년이 계약된 용화세계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국가수도>라고도 한다. 물법과 해월선의 운도개벽과의 연계관계는 후천운(後天運)은 해운(海運)이며 수운(水運)이라는 데에 있다. 「바다햇자 해월선님 도술 조화 통일통령 물비소시 소원성취」라는 24자 주문을 외우는데 이 주문을 주로 외우면 강신이 되고 통령이 되어 몸이 흔들리고 귀신 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설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의 계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계시는 바로 교주 해월선의 신력에 의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1965년 해월선이 사후에는 공부 중에 토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든 이 수도공부에 의하여 해월선의 개벽하는 신천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현재 질병이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삼재팔난(三災八亂)까지 무난히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본교의 신앙인 물법수도의 목적은 당면한 병고와 앞으로의 재앙을 물라치고 새 운도의 개벽에 참여한다는 데에 있다. 신도들은 본교의 신앙에 대한 10가지 신조⁶⁾를 갖는다. 또한 엄격한 8조의 계율⁷⁾이 정해져 있다. 본교에서 내세우는 윤리는 사강육론(四綱六論)⁸⁾이라는 색다른 윤리를 세우고 있다. 이는 종래 유교의 三綱五倫에 대하여 새로운 윤리를 세운다는 의도의 소산이다.

신도들의 가정생활은 위에 말한 윤리관에서 보더라도 보수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도들은 신교육을 받지 못하여 특별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는 농, 공,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도들은 이 빈궁한 생활이 말세에서 구제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앞으로 개벽되는 세계는 빈부의 차가 없는 이상세계인데 오래지 않아 이 세계가 도래하리라고 신도들은 믿는다. 새로운 천지개벽이 있고 새 정부가 세워진다고 믿는 이 교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현정부에 불평한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추하면서 새 정부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정감록 비결을 믿는 사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수련생활을 하는 데에 술, 담배, 도박 등을 멀리해야 한다. 기타 신흥종교들에서 보이는 남녀 신도들 사이의 성적 문란은 없는 듯하다. 신도들의 특수한 풍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으나 전래적인 민속을 그대로 행하고 무속적인 행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들의 의례적 관계를 보면 여신도를 선녀, 남신도를 선관이라 부르는데 선녀는 보통 재래식 한복에 황색병거지(모자)를 쓰고 선관은 백색 두건을 쓰는 게 특색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대개 생식으로써 생 쌀가루를 장만하여 찬물과 같이 먹는 것이 보통이다.

- 4) * 신조 : 본교에는 「신앙에 대한 질서」라고 하여 10조의 신조를 갖는다.
 (가)천지 어머니를 영원할 일, (나)나라에 충성할 일, (다)부모님께 효성할 일, (라)형제간에 화목할 일, (마)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바)반한한 자 구제할 일, (사)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아)두 가지 마음을 먹지 말 일, (자)악은 물을 제촉하는 것이니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하여 우리 근본을 찾는 일, (차)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 등 이 열 가지 신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조 미신을 타파한다는 조항이다.
- 5) * 계율 : 본교에서는 「하원선님의 경계말씀」이라고 해서 8조의 계율을 정하고 있다. 즉
 (가)남의 인권을 뺏지 말 것, (나)남의 후론하지 말 것, (다)남에게 모략하지 말 것, (라)시기, 투기하지 말 것, (마)자기 자칭하지 말 것, (바)내 몸에 난 치하지 말 것, (사)말소리 자국소리 높이지 말 것, (아)사람의 복은 미신에 있지 않고 말과 예도에 있으나 주의할 것 등이다.
- 6) 四綱은 父爲子綱, 師爲弟綱, 夫爲婦綱, 國爲民綱이며,
 六倫은 사강에 대하여 매강에 육윤이 있다는 것이니
 父爲子綱에서…父道生 慈德成 國道生 和德成 大道生 義德成
 師爲弟綱에서…明道生 信德成 友道生 愛德成 長道生 明德成
 夫爲婦綱에서…師道生 教德成 弟道生 道德成 婦道生 順德成
 國爲民綱에서…民道生 忠德成 子德生 敬德成 幼道生 孝德成을 뜻한다.

8) 교 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교의 교맥(敎脈)은 김봉남 계통에 있지만 김봉남의 사후에 부경순이 스스로 자칭 전명을 받은 교주로 선언함으로써 김봉남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였다. 교주 해월선은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우상인 것이다. 신도들은 이러한 해월선의 독재적인 명령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교단을 운영하는 데에 종사하는 책임자나 또는 포교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다만 백일단식에 통영하였다고 하는 김태순과 신경선 여인이 선녀라고 하여 교주의 뜻을 받들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통영을 한 자라고 해서 25선녀와 25선관을 지정하여 이들이 교단운영과 포교상에 중추가 되어 있다. 부경순이 사망한 뒤에는 김태순이 명목상 2대 교주가 되었으나 사실상 전교주의 영명을 받드는 대리 교주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교인의 확장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두고 본부는 본교 발상지이며 교주의 주거지인 영도에 두었다가 1965년 계룡산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지만 교주의 자택이 영도에 그대로 있고 그 자녀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부는 영도 신선동과 계룡산 두 곳으로 나누어 있는 셈이다. 다만 부산 남항동에 김계춘 여인이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는 제주, 거제 등지를 합하여 2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 제주도 지부가 17개소나 된다. 1969년 현재 교인은 3,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주도 출신이나 제주 태생의 신도들이다. 각 지부는 대개 지부 책임자의 가정 교당이 되고 있다. 대개는 선녀의 칭호를 얻은 독실한 신자들이 전교자들을 데리고 지부 선생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는 소속 신도의 성금을 받아 지부와 본부 운영까지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포교의 목적이나 방법은 본부나 지부가 다를 것이 없다. 해월선의 뜻에 따라 새 천지 운도개벽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포교의 목적이다. 포교방법은 물론 물범으로 치료하고 운도개벽을 선전하는 것이다. 물범수련에 의하여 병이 낫는 것을 해월선님의 영(靈)에 의한 도술조화라고 한다. 물범의 신비와 선녀들의 영통(靈通), 토설(吐說) 등을 증거라고 내세워 해월선을 절대자이며 구세주로 우상화 한다. 때로 신도들을 모아 운도개벽을 알린다는 시위행렬도 한다. 포교의 외부적인 선전은 세계평화와 국가의 운수(運數)를 기원하는 국가수도(國家修道)

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다. 포교의 대상은 주로 병환자들이다. 특히 학문이 얇고 무술(巫術)을 좋아하며 세상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신도들 대다수가 여성들인 까닭은 교주 해월선이 역시 여성이며 새 세계가 여성운이라 주장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해월선을 믿어야 된다는 이론에 혹할 남성이 드물기 때문인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포교지역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즉 신입자(信入者)는 주로 부산과 제주도인데 그 중에도 제주도의 신도가 9할 이상을 차지한 것은 본교의 무속적인 교리가 무속산양의 본향인 제주도 여인의 생리에 맞기 때문인 듯하다.

9) 우도지부



천지대안교 우도지부 전경

우도내의 천지대안교는 이 교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김봉남 선생이 태어난 본 교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종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이 교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지 않는다. 교당은 4년전 동천진동 입구에 있던 것을 현 위치인 동천진동으로 옮겨 왔으며 고옥탁(66세) 선생이 교회 책임자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고선생은 우도 출신으로 비양도 출신의 교육자인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다시 우도로 돌아와서 천지대안교 선생직을 맡고 있다. 근래에 제주 지부 천지대안교 내부에서 신도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사건이 장기간 끌면서도 해결되지 않아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곳 우도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교인들이 교당을 등돌림으로써 교인의 수는 격감했다. 10년전에는 100여명의 신도들이 교당을 찾았으나 현재는 25명의 신도들만이 교당을 지키고 있다. 이들 교인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동천진동, 서천진동, 비양동, 전흥동, 상우목동, 하우목동 등 우도내 여러 마을에 분산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본교가 처한 내분의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신도수는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신도들은 매일 아침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기도시에는 기도문을 외운다. 제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이며 5일에는 기도소원문을 15회, 15일과 25일에는 각각 25회씩 외우며 5일부터 10일 동안은 생식을 하며 냉수욕으로 신체와 정신을 정결하게 한다. 생식은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데 특히 위와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신도들은 믿고 있다.

이 교당은 대부분 여성신도들이 찾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그 밖의 외부인들은 대부분 환자들이다. 교당의 선생은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데 우선 환자에게 냉수를 뿌려 어루만져주며 치료를 시작한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일 경우는 식이요법에 의존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는 단식을 행하도록 하여 병을 치료한다. 이곳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도 100일 동안만 단식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신도들은 5일, 15일, 25일에 성심금으로 교당운영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헌납하고 있으며 신도들 각자 가정과 자식들의 무병장수와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고자 교당을 찾고 있다.

4. 타불교 : 용화사

봉납교의 아미타불 주송이 빨라지면 곧경 「타불 타불」만 연송하는 것처럼 불리



한국불교태고종 청강사 연평 염불당 전경

므로 외부 사람들이 이 교를 조롱하는 뜻에서 타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교파는 특별히 내걸은 교명도 없이 자가의 교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붙여진 교명을 그대로 적용한 호칭이 바로 타불교이다. 이러한 교파가 여러 개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부산파와 제주파 두 개의 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우도에도 천지대안교와 더불어 이 타불교가 들어왔다. 타불교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 세칭에 불과하고 이전에는 용화사라 불렀다. 이 교는 제주출신 윤유선 여인에 의해 창설된 종교이다. 윤유선이 김봉남 밑에서 수도할 때 동기생이었던 강기춘은 부산에서 용화삼덕교를 세웠고 제주에서 윤유선(尹有善 : 호적명 윤선유)은 용화사를 창설하였다. 윤유선은 구좌면 종달리에서 출생하여 남편 권정생을 따라 부산 영도에 기거할 때에 김봉남이 죄없이 일현에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구출운동을 벌였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해방 후 봉남에게서 불법을 전수받고 화자들에게 불법을 시험해 본 것이 의외로 신비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윤유선은 제주에 돌아와 현 구좌읍 종달리에 용화사란 절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윤유선의 물법치료의 신묘한 효험이 널리 퍼져 한때는 구좌읍, 성산읍 그리고 표선면 일대에서 약 2,0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절을 찾아와서 용화사는 큰 교단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윤유선의 포교가 성공하게 되자 천지대안교, 수운교, 금강도 등에서 저마다 윤유선을 자교단의 지부로 포섭하려 하였다. 이때 윤여인은 여러 교당의 요구에 응하여 때로는 천지대안교의 지부가 되고 때로는 수운교, 또 때로는 금강도의 지부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윤유선에게 따라오는 신도들이 대개는 위의 앞서 언급한 3개 교단의 신도로서 이 교단 저 교단으로 넘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윤유선의 아들 권명환(權明煥)은 모친인 윤유선의 교인들을 이끌어 5·16군사혁명 당시 종교단체의 공식 등록을 요구할 때인 1962년도 대한불교 태고종단에 가입하였다. 교명도 용화사에서 모친의 호를 따라서 청강사로 고침으로써 정식 교당의 명칭은 대한불교 태고종 청강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윤유선의 타불교는 혼합신앙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즉 그 신앙대상이나 교리체계가 이원화되었다. 불교의 예식을 따르면서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는 김봉남의 물법치료를 따름으로써 신흥교단으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타불교의 공통점이 염불과 물법치료 그리고 바찰요법을 이 교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염불시 환자들은 “아미타불”을 빠르게 외워야 한다. 빠른 염불은 안찰의 효과를 지니며 호흡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종달리 청강사에는 약 250여호의 신도가족들이 찾아들고 있다. 불교 교단에 정식 등록됨으로써 모든 의례는 불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대제일은 정월보름, 4월 초파일, 7월 15일 백중, 그리고 11월 15일이며 그 밖에는 매일 드리는 아침 예불이 있다.

우도에 도입된 타불교는 현재의 공식명칭은 한국불교 태고종 청강사 연평 염불당이라 불리운다.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에 이곳에 처음으로 염불당이 설치됐을 때에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었는데 현재는 하고수동의 고유순(79세)을 중심으로 14명의 교인들만이 불당을 찾고 있다. 이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수양차 모여 촛불을 켜놓고 염불을 외우고 찬물요법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제 5 절 끝맺는 말

우도에는 그동안 다양한 종파들이 진출하여 오늘날 주민들 사이의 종교의 양상은 산업 사회의 유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 곳에 진출한 종교들은 정작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의 근원을 무속을 비롯한 전통 민간신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타 종교에의 전환을 원하고 있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신앙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배척되어 온 관계로 주민들 각자는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신앙행위에서 아직까지도 당위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본향당을 찾고난 후 다시 불당을 찾는 주민들의 행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이 일깨워져야 하겠다. 근래에 들어와 우리 고유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 과거의 편견이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감을 갖기에 부족한 상황에 있다. 우리들의 민속종교에서 당을 찾는 행위가 미신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불당에서 불공을 드리는 행위가 미신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고유 신앙형태가 미신으로 매도된 것은 바로 일제치하에 일인들에 의해서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사항은 우도에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종교인의 한 사람인 김봉남을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우도에 진출해 있는 종교들 중에서도 천지대안교와 타불교는 모두 김봉남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종교들이다. 신흥종교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정체를 고집하고 교세의 확장에 전념하는 나머지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주민들을 현혹하는 기상천외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김봉남 선생은 생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살다가 타개한 유일무이한 현대의 종교인이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도인은 김봉남을 재평가하고 그의 사상과 치적에 대해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2), 봉남계 교단, 한국민속대관 제3권 : 647-651.
- 김옥희(1980), 제주도신축년교난사, 제주 : 천주교 제주지구.
- 노길명(1988), 한국의 신흥종교, 서울 : 카톨릭신문사.
- 이강오(1977), 제주도의 신흥종교,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 126-156, 문화재관리국.
- 이기석(1988), 1901년 제주민란의 성격과 구조 - 천주교 선교정책을 중심으로, 서의필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73), 우도학술조사 보고서, 국문학보 제9집
- 조성운(1992), 찬불교 연구 서설, 한국사회연구회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 195-222,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조치훈(1962), 한국의 종교와 그 배경 - 한국적 신앙의 기반에 대한 고찰, 현대인 강좌 제4권 : 289-310, 서울 : 박우사.
- 한라연감(1991), 종교 : 493-502, 제주 : 한라일보사.

